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409-01

C2013-49 | 2013. 12.

# 농식품 수출진흥 증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방안 중심

박 기 환 연구 위원  
김 경 필 연구 위원  
이 병 훈 부 연구 위원  
허 성 윤 초 청 연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박기환	연구 위원	연구 총괄, 제1장~제6장 및 부록 1~3
김경필	연구 위원	제4장
이병훈	부연구위원	제4장
허성운	초청연구원	자료수집 및 분석, 부록 3

## 머 리 말

---

농식품 수출액은 2012년 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크게 신장되었으며, 정부도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관련 기관 등의 노력으로 1995년 1품목에 불과하였던 1억 달러 이상의 농식품 수출품목이 2012년에는 10품목으로 증대되는 등 농업부문 수출산업화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수출물량의 지속적·안정적 확보가 곤란하여 수출단가 하락은 물론, 수출시장에서의 신뢰저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수출 활성화 지원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엔화 변동 등에 의해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수출진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현안 문제를 면밀히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신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각계 전문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관련 직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 요 약

---

### 연구의 배경

농식품 수출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안정적·지속적 수출물량 확보 곤란, 핵심 수출품목인 가공식품의 농업과 연계성 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 특정시장의 수출의존도 심화 등 현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재의 농식품 수출이 처한 문제와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 연구방법

농식품 수출 관련 자료 수집·분석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103단지)와 가공식품 수출업체(52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농식품 시장동향과 향후 전망은 해외 컨설팅 전문 업체인 Euromonitor International(Asia)에 의뢰하였으며, 농식품 수출과 국내가격 및 환율변동의 영향 분석은 시계열분석, 수출공급반응함수, 상관관계분석, 상위집중도( $CR_k$ ), 허핀달지수(Herfindahal Index)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식품 수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지속적 수출물량 확보 기반 조성, 수출 중심 품목의 집중 육성, 수출국 다변화로 시장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는 첫째,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전용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수출전용단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별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전용단지 지정 품목의 수출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유인책을 수립해야

만 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다. 우선, 수출전용단지의 지정품목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보협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가격안정보협제도의 재도입도 고려해야 하며, 유류비나 종자(종묘) 구입비 일부 지원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 예산의 제약이나 수출하지 않는 농가와 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원 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장 중요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국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의 추가 지원 확대,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자금의 우선 배당, 국내 생산자와 계약 재배 시 농가에 세제 혜택 부여 및 일정 물량의 수출업체 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된 현행 지원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농식품 수출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수출의존도를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이 상이한 ‘단절된 분할시장’이므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표적 시장을 설정한 후, 시장 동향이나 전망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검역제도 시행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대중국 수출 확대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국시장 내 물류·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국내 주요 권역별로 수출전진기지 건립과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은 식품 수입통관 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 기준, 보건(기능)식품의 위생허가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심해 대중국 수출확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중국 정부 간 협의로 이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 ABSTRACT

---

### Study of Comprehensive Mid-to-Long Term Promotion of Agricultural Food Product Export

- Focus on Measures to Attain the Stable Export Volume and Expand the Export Markets -

#### **Research Background**

Although export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has grown impressively and become the foundation to develop the agricultural export industrialization, there is the current issue of difficulties of obtaining the stable and continuous export volume; lack of linking of processed food products, which are the key export items, with agriculture and inadequate support system; and deepening dependency on export to specific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current problems and status of agricultural product export and analyze the change of worldwide environment and then to present the mid-to-long term policy to seek export promo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 **Research Method**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agricultural food product export related documents and reviewed the preceding studies. To observe the real condition of agricultural food product export, 103 horticulture production complexes and 52 processed food exporters were surveyed. Euromonitor International (Asia), an international consulting company, was contracted to conduct the market trend and future prediction of agricultural food product market in China. Methodologies such as the time series analysis, export supply response function, correlation analysis,  $CR_k$ , Herfindahal Index, etc.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impact of domestic price and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change on export of agricultural food product.

## **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

Setting up the ground for attaining the stable and continuous export volume, focused cultivation of export oriented items and market expansion through diversification of exported countries are needed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of agricultural food product export. The programs needed for that would be, first, the development of the dedicated export complex to attain the stable export volume. To establish a dedicated export complex program, it is recommended to begin with a test project and then gradually increasing the target items. The policy can be continuously operated only when it has the incentives for the farmers of the items featured by the export dedicated complex to have the stable income level. The items offered by the export dedicated complex should be designated to be the subjects of government-run import insurance system to help stabilizing the producers' income from export. Moreover, reintroduction of price stabilizing insurance system, which compensates some of sales price when the domestic price suddenly increases after the export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and additional export logistics expense assistance and partial expense assistance for purchasing the fuel oil or seed should be reviewed. However, the priority of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be set with regard to government budgetary limitation and fairness to farmers who do not export so that the most important measures will be adopted first.

Second, There should b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inking of processed food product exports and agriculture as well as to promote exports. To increase the domestic content of the processed food products, measures such as expansion of additional assistance of export logistics expenses of exporters using the domestic raw materials, preferred allocation of outstanding agricultural food product purchase assistance fund, tax incentive for farmers under contract with Korean producers and designation of exporter for a specific volume are needed. Moreover, the current program of processed food product export assistance needs to be improved and a new assistance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The infrastructure assistance instead of direct assistance is needed.

Third, a strategy of entering the Chinese market is needed to not only expand the export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but also mitigate dependency on export to a specific country. Although China is the world's largest consumption market, it is an 'isolatedly fragmented market' which has

different income level and consumption inclination according to region. As such,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o segment the market and select the target market then develop the export strategy by reviewing the market trend, forecast and other information. Since export of fresh agricultural food products is very limited in China because of the country's adoption of quarantine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pansion of export to China should be centered around the processed food product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Chinese consumers to Korean agricultural food products,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networks in China are needed. Moreover, there is high level of non-tariff trade barrier such as the demand for sanitation certificate during customs clearance of imported food products, excessive quarantine criteria and sanitation permit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t hinders the expansion of export to China.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discuss such matters with Chinese Government to overcome the problems promptly.

Researchers: Ki-Hwan Park, Kyung-Phil Kim, Byoung-Hoon Lee and  
Seong-Yun Heo

Research period: 2013. 7. - 2013. 12.

E-mail address: kihwan@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6
3. 연구내용 및 방법 ..... 10

### 제2장 농식품 수출 동향과 부류별 구조 변화

1. 전체 농식품 수출입 실적 ..... 15
2. 신선농산물 수출 동향과 시기별 변화 ..... 20
3. 가공식품 수출 현황과 무역구조 ..... 26

### 제3장 농식품 수출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최근의 수출 정체

1. 국내외 수출여건 변화와 농식품 수출 정체 ..... 33
2.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 46
3. 농식품 수출의 SWOT 분석 ..... 55

### 제4장 농식품 수출진흥의 한계 요인과 실태 분석

1. 신선농산물 수출진흥의 주요 저해 요인과 실태 ..... 59
2. 가공식품 수출진흥의 현안 문제 ..... 70
3. 농식품 수출의 특정국가 의존도 심화와 영향 ..... 86

### 제5장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1. 농식품 수출진흥의 비전과 기본방향 ..... 97
2. 농식품 수출진흥의 중장기 세부 추진 과제 ..... 99

제6장 요약 및 결론 .....	137
부록 1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의 엔화 환율 영향 분석 .....	151
부록 2 최근의 미국·일본·중국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	167
부록 3 중국의 가공식품 시장 동향과 전망 .....	185
참고 문헌 .....	209



## 표 차례

---

### 제1장

- 표 1- 1.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설문조사 개요 ..... 12

### 제2장

- 표 2- 1. 국가전체 수출입 실적 ..... 16
- 표 2- 2.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입 실적 추이 ..... 17
- 표 2- 3. 농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추이 ..... 18
- 표 2- 4. 농림축산식품의 주요 국별 수출 비중 변화 ..... 20
- 표 2- 5. 주요 신선농산물의 수출 실적 추이 ..... 23
- 표 2- 6. 주요 신선농산물의 국별 수출 비중 추이 ..... 25
- 표 2- 7. 가공식품의 품목별 수출 추이 ..... 27
- 표 2- 8. 주요 가공식품의 국별 수출 비중 추이 ..... 30

### 제3장

- 표 3- 1. 원예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 ..... 33
- 표 3- 2.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동향 ..... 35
- 표 3- 3. 기상악화 영향으로 인한 배 생산량 변화 ..... 37
- 표 3- 4. 기상악화 영향으로 인한 배 수출 감소 ..... 38
- 표 3- 5. 기상악화 시 배추 가격 급등 현황 ..... 38
- 표 3- 6. 기상악화 시 배추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김치수출 감소 ..... 39
- 표 3- 7. 세계의 주요 국별 실질 GDP 증가율 ..... 40
- 표 3- 8. 국가 전체 및 농식품의 최근 수출 증감률 ..... 43
- 표 3- 9. 국가 전체의 최근 국별 수출실적 ..... 43
- 표 3-10. 농식품의 최근 국별 수출실적 ..... 44

표 3-11.	주요 농식품의 수출품목별 최근 수출실적 .....	45
표 3-12.	주요 채소 수출품목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	47
표 3-13.	주요 과일 수출품목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	48
표 3-14.	주요 화훼 수출품목의 재배면적 전망 .....	49
표 3-15.	김치 및 삼계탕 주재료인 배추·고추·육계의 생산 전망 .....	50
표 3-16.	세계 경제 전망 .....	51
표 3-17.	미국의 경제 전망 .....	52
표 3-18.	중국의 경제 전망 .....	53
표 3-19.	일본의 경제 전망 .....	54
표 3-20.	농식품 수출단가 변화 .....	56

#### 제4장

표 4- 1.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	61
표 4- 2.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애로 경험 여부 .....	61
표 4- 3.	수출농가의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내수전환 비중 ...	62
표 4- 4.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 시 수출업체의 계약단가 인상 경험 .....	63
표 4- 5.	농식품 수출과 농가판매가격지수와와의 상관관계 (1994~2012년) .....	64
표 4- 6.	농식품 수출과 농가판매가격지수와와의 상관관계 (2000~2012년) .....	64
표 4- 7.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주요 품목별 생산 대비 수출 비중 (2012년 기준) .....	67
표 4- 8.	원예전문생산단지의 국내판매가격 대비 수출가격 비중 (2012년 기준) .....	67
표 4- 9.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시 추가 경영비 상승 정도 (2012년 기준) .....	68

표 4-10.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시 국내판매 소득 대비 비중 (2012년 기준) .....	69
표 4-11.	수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향상 정도 .....	69
표 4-12.	가공식품 수출 증대 시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	71
표 4-13.	가공식품의 산업별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	73
표 4-14.	식품제조업체 조사 표본의 특징 .....	74
표 4-15.	식품제조업체의 품목별 국산 이용률 .....	76
표 4-16.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농축산물 외국산 이용 이유 .....	78
표 4-17.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국산 이용률 .....	79
표 4-18.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	81
표 4-19.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관련 재정사업 현황 .....	82
표 4-20.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인지도 평가 .....	83
표 4-21.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 기여도 평가 .....	83
표 4-22.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이용도 평가 .....	84
표 4-23.	수출업체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이용도 평가 .....	85
표 4-24.	신선농산물의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국가 상위집중도 및 허핀달지수 변화 .....	89
표 4-25.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국가 상위집중도 및 허핀달지수 변화 .....	89
표 4-26.	농식품 수출과 엔화 환율과의 상관관계(1992~2012년) .....	90
표 4-27.	농식품 수출과 엔화 환율과의 상관관계(2000~2012년) .....	91
표 4-28.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 신선농산물 .....	94
표 4-29.	공적분과 백터자기회귀모형 적용 결과: 가공식품 .....	95

## 제5장

표 5- 1.	수출농가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의향 .....	101
표 5- 2.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식품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의향 ..	102
표 5- 3.	수출업체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의향 .....	102

표 5- 4.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전용단지 대상 지정 방식에 대한 의향 .....	103
표 5- 5.	수출업체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품목 의향 .....	105
표 5- 6.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전용단지 운영 방식에 대한 의향 ...	105
표 5- 7.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 의향 .....	110
표 5- 8.	수출전용단지 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원 항목 우선순위 .....	112
표 5- 9.	수출전용단지 운영규정 위반 시 패널티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 .....	114
표 5-10.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용 가공식품 국산 원재료 사용 상 애로사항 .....	116
표 5-11.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국산 원재료와 외국산간 가격 축소를 위한 지원 .....	116
표 5-12.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 .....	117
표 5-13.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원재료 활용 의향 .....	117
표 5-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지원내역 .....	118
표 5-15.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유형별 기업 지원내역 .....	119
표 5-16.	중국의 도시 수 증가 전망 .....	123
표 5-17.	중국 소비자의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별 만족도 .....	124
표 5-18.	중국 5개 권역의 주요 특징 .....	128
표 5-19.	중국의 행정구역별 가공식품 판매액 추이 .....	130
표 5-20.	대중국 수출확대 타겟 시장의 특징과 전망 .....	131

## 그림 차례

---

### 제1장

- 그림 1-1. 1천만 달러 이상의 신선농산물 수출품목 변화 ..... 2
- 그림 1-2. 1억 달러 이상의 가공식품 수출품목 변화 ..... 3
- 그림 1-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비전 ..... 4

### 제2장

- 그림 2-1.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출비중 추이 ..... 19
- 그림 2-2. 신선농산물의 시기별 수출 신장률 변화 ..... 21
- 그림 2-3. 가공식품의 분류별 수출 비중 변화 ..... 28
- 그림 2-4. 가공식품의 대아시아 무역구조(2012년) ..... 31

### 제3장

- 그림 3-1. 일본 아베노믹스의 예상 파급효과 개념도 ..... 41
- 그림 3-2. 엔화 환율의 변화 추이 ..... 42
- 그림 3-3. 일본의 1달러당 엔화 전망 ..... 54
- 그림 3-4. 농식품 수출의 SWOT 분석 ..... 57

### 제4장

- 그림 4-1. 농산물 전체 수출국가의 상위집중도 및  
허핀달지수 변화 추이 ..... 87

### 제5장

- 그림 5-1. 농식품 수출 진흥의 비전과 기본 방향 ..... 99
- 그림 5-2. 중국의 리코노믹스 경제정책의 영향 ..... 122

그림 5-3.	한·중 FTA 1단계 합의 품목군별 정의 .....	125
그림 5-4.	중국의 성별 소비시장 구분 .....	127
그림 5-5.	중국의 5대 권역별 농식품 수출시장 구분 .....	128
그림 5-6.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 지역 설정 .....	129
그림 5-7.	중국 내 수입식품의 유통구조 .....	133

## 부표 차례

---

### 부록 1

부표 1-1.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및 단위 .....	156
부표 1-2. 분석 변수명 .....	156
부표 1-3. 신선농산물 수출의 ARDL분석 결과 .....	158
부표 1-4.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 검정 .....	159
부표 1-5.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 신선농산물 .....	162
부표 1-6. 가공식품 수출의 ARDL분석 결과 .....	163
부표 1-7. 공적분과 백터자기회귀모형 적용 결과: 가공식품 .....	165

### 부록 2

부표 2-1. 미국 시장접근프로그램(MAP) 참여단체 배정액(2013년) .....	168
부표 2-2. 미국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FMDP)의 협력업체 배정액(2013년) .....	169
부표 2-3.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액 추이(2006~2013년) .....	172
부표 2-4. 일본 농식품 수출의 품목별 전략 .....	174
부표 2-5.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정책 개요 .....	179

### 부록 3

부표 3-1. 중국의 유통업체별 가공식품 판매 비중 추이 .....	186
부표 3-2. 중국의 가공식품 판매액 전망 .....	191
부표 3-3. 중국의 영양/주식류 제품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192
부표 3-4. 중국의 간식류/충동구매 제품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194
부표 3-5. 중국의 식사대용 제품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195
부표 3-6. 중국의 유아용 식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197

부표 3- 7.	중국의 우유제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198
부표 3- 8.	중국의 맛/향 첨가 떠먹는 요구르트제품 선호도 변화 .....	200
부표 3- 9.	중국의 과일 첨가 떠먹는 요구르트제품 선호도 변화 .....	200
부표 3-10.	중국의 요구르트제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201
부표 3-11.	중국의 냉장식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202
부표 3-12.	중국의 냉동 어류/시푸드 품목별 판매 비중 변화 .....	203
부표 3-13.	중국의 냉동 닭/오리/가금류 품목별 판매 비중 변화 .....	204
부표 3-14.	중국의 냉동 육류 품목별 판매 비중 변화 .....	204
부표 3-15.	중국의 냉동식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205
부표 3-16.	중국의 즉석면류 선호도 변화 .....	206
부표 3-17.	중국의 면류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207



## 부그림 차례

---

### 부록 2

부그림 2-1. 일본의 농식품 수출목표 .....	173
-----------------------------	-----

### 부록 3

부그림 3-1. 중국의 가공식품 판매액 추이 .....	190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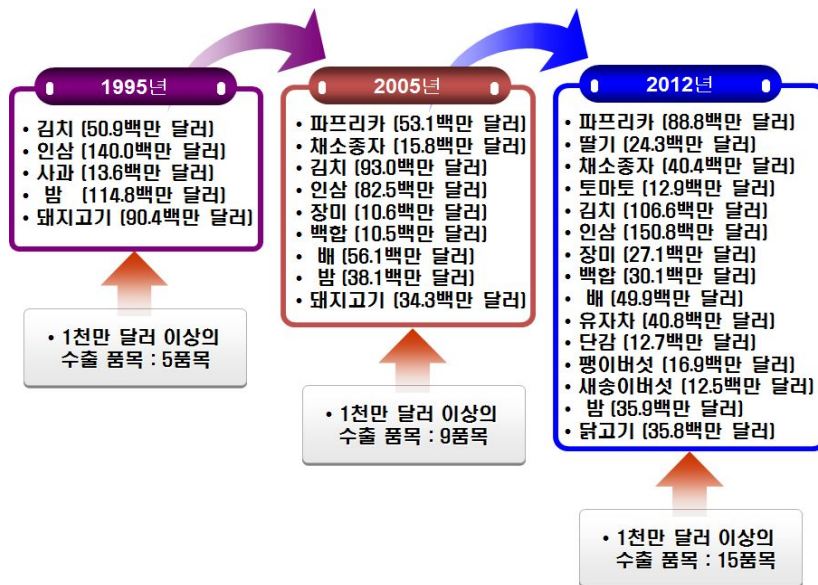
- 농업부문 수출액은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000년 대비 3.7배로 급증하는 등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수출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84억 달러에서 2012년 294억 달러로 증가하여 농업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는 동년 69억 달러에서 238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농업부문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의 국산 대체가 필요하지만, 시장개방 하에서 수입을 통제하거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가인 수입 농식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임.
- 이 때문에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농업부문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더욱이 수출은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출로 국내 유통량이 감소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가소득 지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sup>1</sup>

- 정부도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와 함께 어느 정도 수출규모를 갖춘 품목도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신선농산물의 경우 1천만 달러 이상인 수출품목이 1995년에는 5품목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9품목, 2012년에는 15품목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선농산물의 수출규모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1억 달러 이상인

그림 1-1. 1천만 달러 이상의 신선농산물 수출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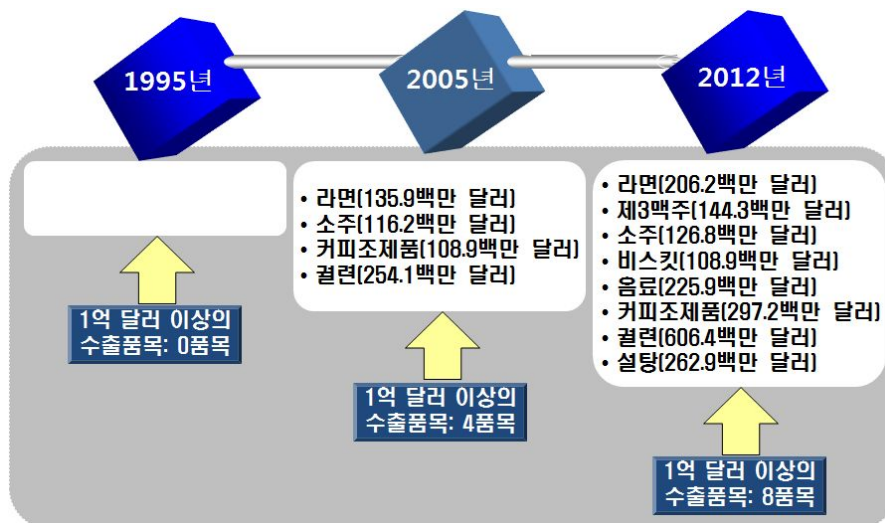


<sup>1</sup> 농식품 수출 중단 시 국내 농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GTAP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과일·채소의 가격지수는 5.9%, 축산·낙농 2.9%, 낙농제품 1.1% 등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박기환 외, 2012). 또한, GTAP 모형으로 추정된 가격 하락폭을 적용하여 주요 수출품목의 농가소득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10%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 중장기 기본계획」, 2013).

품목이 2품목(김치, 인삼) 생성되었음.

- 가공식품 수출도 1억 달러 품목이 1995년에는 1품목도 없었으나, 2005년에는 라면, 소주, 커피조제품, 껌의 4품목, 2012년에는 라면, 제3맥주, 소주, 비스킷, 음료, 커피조제품, 껌, 설탕의 8품목으로 확대되었음.

그림 1-2. 1억 달러 이상의 가공식품 수출품목 변화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접목,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복지농촌 건설,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을 5대 농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에는 신성장동력 확충, 식품산업 육성 등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를 세부계획(Action Plan)으로 제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2013년 60억 달러, 2017년 100억 달러로 확대하여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는 물론, 시장 규모화로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sup>2</sup>

<sup>2</sup>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2013.3.22)에 농식품 100억 달러 달성 등 수출 확대 계획을 보고하였음.

그림 1-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비전



- 이처럼 농업부문 수출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많은 현안 문제가 노출되어 있음.
-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수출물량의 지속적·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이나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수출시장에서 신뢰 저하는 물론, 수출단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농업부문 수출은 그동안 채소, 과일, 화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선농산물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로 재편되고 있어 농업부문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음.
  - 신선농산물 수출은 2012년 10.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가공식품은 80.9%인 45.7억 달러로 가공식품 중심으

로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

- 이처럼 가공식품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은 미흡한 실정임.
-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 비중은 2000년 일본 46.2%, 미국 9.7%, 홍콩 8.9% 등에서 2012년 일본 24.9%, 중국 16.1%, 미국 8.4%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대일 수출비중은 40%대에서 20%대로 하락하였음.
- 특정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여전히 대일 수출비중이 높아 엔화 변동에 의해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대일 수출 감소 현상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농식품 수출은 2012년 5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로 농업부문이 수출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수출물량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전략 미흡, 여전히 특정시장 의존도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농식품 수출이 처한 문제와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농식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업부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 진흥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연구는 농업부문의 수출 구조와 수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체 농식품 수출 현황은 물론, 농식품 수출을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출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출시장 여건 및 향후 국내외 환경 변화를 전망한 후 셋째,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의 영향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수출 진흥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선행 연구 검토

### 2.1. 수출확대 방안 관련 연구

- 김경필 외(2008)는 농산물의 수출유망시장으로 러시아를 선정하고, 러시아 농산물 시장 동향, 대러시아 수출실태·사례 등을 분석한 후 극동러시아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연구는 수출지원제도가 아닌 신흥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출지원시스템 개편 방안과는 상이한 과제임.
- 박기환 외(2010)는 채소·화훼류 수출 동향과 문제점, 주요 수출시장의 채소·화훼 수입 구조와 한국산의 평가, 수출시장 소비자 선호도 분석 및 전망 등의 분석을 토대로 수출 증대 및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안 중의 하나로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언급하고 있으나, 수출지원시스템의 전반적 개편 방향은 다루고 있지 않음.
- 김경필 외(2010)는 과수·특작의 수출동향과 제약 요인, 과실류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수출선도조직 운영 실태 파악, 수출시장 소비자 선호 분석 등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확대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임.



- 어명근 외(2011)는 농식품 수출성과를 Random Effect Panel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신흥 수출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신흥 수출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수출지원제도 개선보다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임.
- 엄석진 외(2011)는 농림수산물 연관산업 동향과 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방안은 수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나, 현황 파악과 제시된 방안과 연계성이 미흡하며, 구체성도 다소 부족함.

## 2.2. 수출 효과분석 관련 연구

- 한국고용정보원(2012)은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정책과 고용연계성을 파악한 후, 농식품 수출 확대지원사업의 사업별 파급효과를 CGE 모형으로 계측하였으며, 수출업체 설문조사를 기초로 고용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는 지원제도 개선이나 정책 방향 설정이 목적이 아니라 고용효과 분석에 있기 때문에 제시된 정책적 제언은 많지 않음.
- 박순찬 외(2013)는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정책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으로 인해 농림수산물 생산이 추가 성장될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 증가는 물론, 사회 후생도 증가하여 금액 환산 2억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 2.3. 수출지원제도 관련 연구

- 김병률 외(2005)는 농산물 수출지원 현황, 수출단지 운영 실태, 수출업체 조사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 개선 방향과 수출 촉진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출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최세균 외(2009)는 세계 농산물 잠재 수출시장 분석,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현황, 수출조직 강화, 수출물류 현황, 시설원예·가공식품·식재료 수출 동향 등을 파악하고 각 항목별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나,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출지원 중복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
- 김성훈(2009)은 정부의 물류비지원사업을 포함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출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아 연구범위가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음.
- 이승신 외(2010)는 중국과 일본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소개한 후,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해외의 농산물 수출지원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임.
- 김경필 외(2011)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실적, 수출 영향 요인분석, 수출지원제도의 수출업체·전문가 의식 조사 등을 기초로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의 개선 과제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등 개편 방향 설정에는 접근하고 있지 않음.
- 이병성 외(2012)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현황과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수출된 농식품의 해외유통 실태를 수출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설명한 후 농식품 수출확대

의 시사점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제시된 시사점의 구체성은 낮으며, 각국의 수출지원제도 소개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 박기환 외(2012)는 농식품 수출 구조변화와 요인을 분석하고, 수출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농식품 수출 및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GTAP, CGE, Random Effect Tobit, I-O 분석 등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출이 국가경제와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출지원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품목별 또는 부류별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 수출국 다변화 도모를 위한 신흥 수출시장 개척 전략 연구, 수출의 효과 분석 연구 등이 대부분임.
  - 더욱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출확대 및 현행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나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출물량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 부족, 대일 수출의존도 심화를 중심으로 각각의 실태를 실증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중의 하나인 대중 수출확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음.

### 3. 연구내용 및 방법

#### 3.1.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전체 농식품 수출의 수출실적,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등을 살펴보고, 농식품 수출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출구조의 특징과 변화 요인에 대해 정리하였음.
  - 제3장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출시장 여건을 진단한 후 최근의 수출 정체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국내외 환경 전망을 통한 농식품 수출의 SWOT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출물량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곤란, 수출 주도 품목인 가공식품의 수출지원체계 미흡, 특정시장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한 리스크 상존 문제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중점 파악하고,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해당 문제의 파급영향을 분석하였음.
  - 제5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조사·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한 수출지원체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 기본 방향 하에서 주요 수출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6장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연구결과를 주요 핵심사항별로 요약하고, 결론을 유도하였음.
  - 부록에서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의 엔화 환율 영향 분석, 최근의 미국·일본·중국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동향, 중국의 농식품 시장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보고서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범위는 전체 농식품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설문조사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수출실적 비중이 높지 않은 임산물은 제외함.
- 또한, 설문조사는 대표적인 수출품목 중심으로 실시하며, 경영분석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사과, 배, 단감, 장미, 국화, 백합, 심비디움, 가공식품은 김치, 막걸리, 고추장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함.
- 농식품 수출을 둘러싼 문제점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농산물의 수출물량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지원 체계 미흡, 수출시장 편중 심화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전개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 진흥 정책방안도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대중 수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하도록 함.

### 3.2. 연구방법

- 기존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추진 현황,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등의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농식품 수출 관련 선행 연구도 검토하였으며, 관련기관 방문조사도 추진하였음.
- 조사 분석결과의 논의 등을 위해 관계자 수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농식품 수출의 경영성과,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여부와 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지원 요구사항 등 실태 분석을 위해 정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원예전문생산단지는 2012년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가 가운데 연락처가 확보된 152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3단지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67.8%임.

표 1-1.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및 기간	회수	회수율 (%)
원예전문 생산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정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152단지</li> <li>• 기간: 2013.11.20~12.10</li> <li>• 내용: 원예전문단지의 수출실태, 경영성과의 수출 및 내수 비교, 수출전용단지 제도 의향 및 지원제도 우선순위 등</li> </ul>	103단지	67.8
가공식품 수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일정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97업체</li> <li>• 기간: 2013.11.20~12.13</li> <li>• 내용: 경영성과의 수출 및 내수 비교,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가능성 여부 등</li> </ul>	52업체	53.6

-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가운데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업체 97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이 중 52업체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53.6%로 나타났음.<sup>3</sup>
- 설문조사는 회수율 제고를 위해 E-Mail, Fax,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음.

3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과정 상 애로사항, 수출지원제도의 이용도 등에 대해서는 박기환 외(2012)에서 충분히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별도로 가공식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대중 수출확대가 될 수 있어 중국의 농식품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해외 컨설팅 전문 업체인 Euromonitor International(Asia)에 중국시장 조사를 의뢰하였음.
  
- 농식품 수출과 환율변동과의 영향 분석은 보고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에게 원고 의뢰하여 정리하였음.
  
- 농식품 수출과 국내가격 및 환율변동의 영향 분석 등을 위해 계량경제학적·통계적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음.
  - 활용된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는 ARDL모형, 벡터자기회귀모형(VAR), 산업연관분석, GTAP, 수출공급반응함수, 상관관계분석 등이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상위집중도( $CR_k$ ), 허핀달지수(Herfindahal Index) 등을 이용하였음.





## 제2장

### 농식품 수출 동향과 부류별 구조 변화

#### 1. 전체 농식품 수출입 실적

##### 1.1. 농식품 수출의 위치와 실적

-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수출액은 2000년 1,723억 달러에서 2012년 5,479억 달러로 2000년보다 3.2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액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여 동년 대비 3.2배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 전체 수출입은 매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이 수입에 비해 많아 세계금융위기와 국제곡물, 유가 급등 상황이었던 2008년을 제외하면<sup>4</sup>

<sup>4</sup> 2008년에는 미국의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은행들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2008년 9월 베어스텝스와 리먼브러더스 등 투자은행이 파산하였으며, AIG가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는 등 이른바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음. 더욱이 2008년은 기상이변과 신흥경제국의 소비 증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크게 상승하였음. 2008년 원유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3%나 증가하여 2007년의 증가율 8.0%를 크게 웃돌았으며, 2009년에는 유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40.9%나 수입액이 감소하였음. 이러한 원유 수입액 급증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는 2008년에 일시 적자로 전환되었음.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여 2012년 28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나, 연평균 성장률은 농업부문이 국가 전체에 비해 높아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국가 전체의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12년 기간 동안 10.1%인데 비해 농업부문은 11.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최근인 2005~2012년간 수출액 성장률은 국가 전체 9.8%보다 4.4%p 더 높은 14.3%이었음.
  - 즉, 국가 전체 수출 증가에 농업부문이 크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2-1. 국가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계	172,268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466,384	555,214	547,870
이중 농식품	1,509 (0.88)	2,222 (0.78)	2,304 (0.71)	2,532 (0.68)	3,048 (0.72)	3,298 (0.91)	4,082 (0.88)	5,384 (0.97)	5,645 (1.03)
수입 계	160,481	261,238	309,383	356,846	435,275	323,085	425,212	524,413	519,584
이중 농식품	8,433 (5.25)	11,888 (4.55)	13,328 (4.31)	16,182 (4.53)	20,121 (4.62)	18,347 (5.68)	22,330 (5.25)	28,994 (5.53)	29,447 (5.67)
무역수지	11,787	23,181	16,082	14,643	△13,268	40,449	41,172	30,801	28,286

주: ( ) 내는 수출 계 및 수입 계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자료: 무역협회.

- 농업부문 수출액은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 56억 달러로 3.7배나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류별로는 농산물이 전체의 84.8%, 축산물은 7.0%, 임산물은 8.2%로 농산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수입은 2000년 84억 달러로 최근의 농식품 수출액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수입 증가로 2012년에는 294억 달러로 수출액보다 5.3배나 많음.

-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부터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은 20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2-2.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입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A)	농산물	1,133	1,899	2,008	2,222	2,715	2,991	3,722	4,941	4,785
	축산물	121	173	172	181	215	140	146	176	395
	임산물	255	150	124	128	118	168	214	266	465
	계	1,509	2,222	2,304	2,532	3,048	3,298	4,082	5,384	5,645
수입 (B)	농산물	5,104	7,397	8,117	10,089	13,905	11,754	13,988	18,362	18,717
	축산물	1,676	2,360	2,749	3,235	3,352	2,485	3,123	5,071	4,720
	임산물	1,653	2,131	2,462	2,858	2,864	4,108	5,219	5,561	6,010
	계	8,433	11,888	13,328	16,182	20,121	18,347	22,330	28,994	29,447
무역 수지 (A-B)	농산물	△3,971	△5,499	△ 6,109	△ 7,867	△11,190	△ 8,763	△10,266	△13,421	△13,932
	축산물	△1,555	△2,188	△ 2,576	△ 3,054	△ 3,137	△ 2,346	△ 2,977	△ 4,895	△ 4,325
	임산물	△1,398	△1,981	△ 2,338	△ 2,730	△ 2,745	△ 3,940	△ 5,005	△ 5,294	△ 5,545
	계	△6,924	△9,666	△11,024	△13,650	△17,073	△15,049	△18,248	△23,610	△23,80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농산물의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채소가 16.4%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2012년에는 6.9%로 줄어들었으며, 인삼도 동년 7.0%에서 3.2%로 감소하였음.
- 주력 수출품목인 과자, 주류, 면류, 소스류 등의 비중은 감소하다가 최근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연초류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6%에서 2012년 13.2%로 크게 확대되었음.
  - 이와 같이 상당수의 품목별 비중은 감소 내지 정체함에 따라 기타의 비중은 2000년 25.4%에서 2012년 44.7%로 크게 신장되었는데, 이는 채소, 인삼, 연초, 주류 등 주력 수출품목 이외의 타 품목 수출 약진이 있었기 때문임.

표 2-3. 농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채소	186 (16.4)	231 (12.2)	204 (10.2)	196 (8.8)	234 (8.6)	251 (8.4)	277 (7.4)	283 (5.7)	331 (6.9)
과일	45 (4.0)	121 (6.4)	98 (4.9)	145 (6.5)	155 (5.7)	173 (5.8)	195 (5.3)	200 (4.0)	222 (4.6)
인삼	79 (7.0)	82 (4.3)	89 (4.4)	92 (4.1)	97 (3.6)	109 (3.6)	124 (3.3)	189 (3.8)	151 (3.2)
연초	52 (4.6)	271 (14.2)	350 (17.4)	414 (18.6)	464 (17.1)	478 (16.0)	542 (14.6)	572 (11.6)	633 (13.2)
과자	153 (13.5)	204 (10.7)	206 (10.2)	226 (10.1)	248 (9.1)	250 (8.3)	290 (7.8)	375 (7.6)	403 (8.4)
주류	146 (12.9)	189 (10.0)	193 (9.6)	192 (8.6)	236 (8.7)	242 (8.1)	313 (8.4)	403 (8.2)	417 (8.7)
면류	118 (10.4)	192 (10.1)	166 (8.3)	179 (8.1)	200 (7.4)	207 (6.9)	240 (6.5)	290 (5.9)	316 (6.6)
소스류	38 (3.3)	81 (4.3)	95 (4.7)	107 (4.8)	122 (4.5)	109 (3.7)	130 (3.5)	155 (3.1)	172 (3.6)
기타	288 (25.4)	475 (25.0)	567 (28.2)	614 (27.6)	882 (32.5)	1,095 (36.6)	1,507 (40.5)	2,383 (48.2)	2,140 (44.7)
계	1,133 (100.0)	1,899 (100.0)	2,008 (100.0)	2,222 (100.0)	2,715 (100.0)	2,991 (100.0)	3,722 (100.0)	4,941 (100.0)	4,785 (100.0)

주: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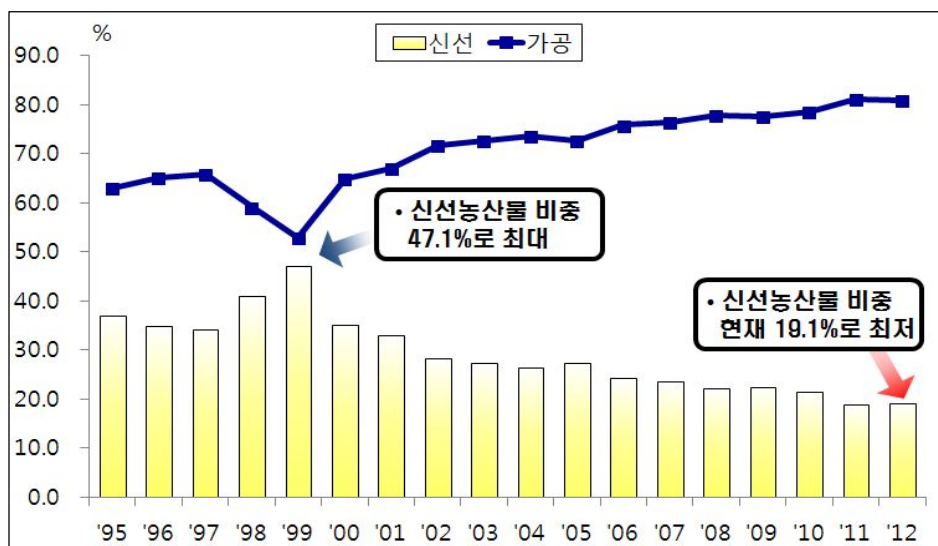
## 1.2. 농식품 부류별·국별 수출 변화

- 농업부문 수출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부류별 실적을 살펴 보면,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7.0%에서 1999년 47.1%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로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19.1%로 나타나고 있음.<sup>5</sup>

<sup>5</sup>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김치, 홍삼, 삼계탕 등 가공식품으로도 분류가 가능한 품목도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포함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로는 신선농식품이라 볼 수 있음.

- 반면,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80.9%로 나타나 농업부문 수출의 상당부분은 가공식품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이는 수출구조가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단순히 수출하던 구조에서 가공을 거친 농식품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2-1.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출비중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재정리.

- 농업부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이며,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대일 수출 비중은 1999년 56.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이후 매년 감소로 전환되어 2012년에는 1999년 대비 31.3%p나 줄어든 24.9%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제1의 수출국임.
  - 대미 수출 비중은 2004년까지 증가하여 13.7%까지 확대되었지만, 이후 감소하면서 2012년은 8.4%로 나타났음.
  - 대중국 수출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홍콩의 비중보다

낮았으나, 이후부터 신장세를 보이면서 2008년부터는 중국이 우리나라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과 함께 농식품 수출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므로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2-4. 농림축산식품의 주요 국별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1997	2000	2005	2010	2011	2012
일본	41.3	46.2	32.1	25.1	25.6	24.9
중국	4.6	7.8	10.4	13.6	17.0	16.1
미국	5.8	9.7	12.6	9.2	7.8	8.4
홍콩	11.8	8.9	5.6	5.3	5.1	4.8
러시아	17.2	4.9	9.2	5.6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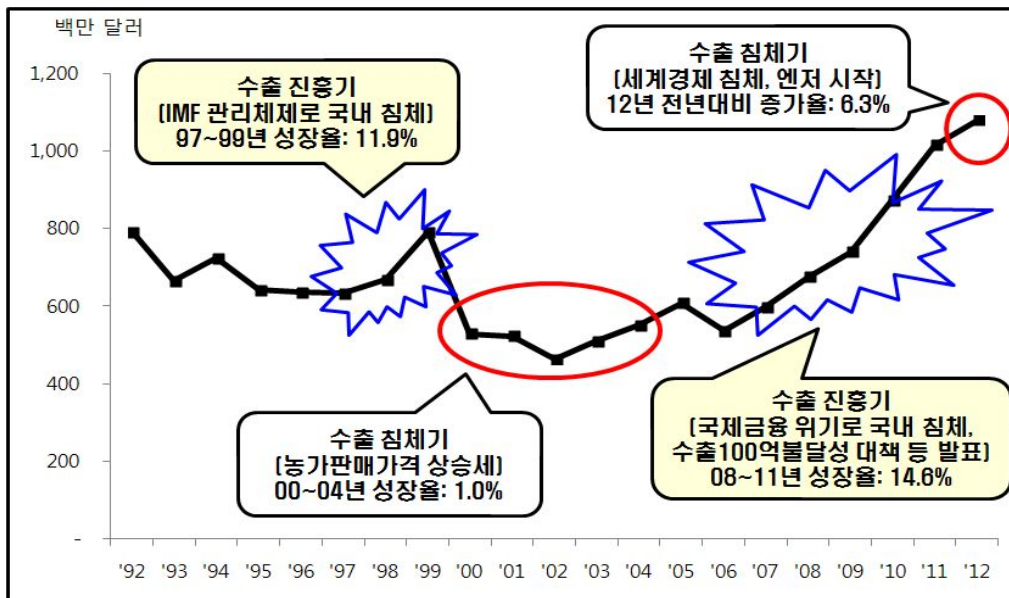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에서 재정리.

## 2. 신선농산물 수출 동향과 시기별 변화

### 2.1. 주요 시기별 수출 신장률 변화

- 신선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가격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신선농산물 수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약간의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IMF 관리체제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가 위축되자 수출을 적극 도모하게 되었음.
  - 이 때문에 1997~1999년간 수출은 11.9%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안정되자 수출은 다시 침체하여 2000~2004년간 연평균 1% 성장하는데 그쳤음.

그림 2-2. 신선농산물의 시기별 수출 성장률 변화



- 수출이 다시 진흥기를 맞이한 것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가 수출 100억불 달성 대책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터임.<sup>6</sup>
  - 이 시기(2008~2011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4.6%로 어느 시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이후 2012년부터는 성장률이 다소 정체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연말부터 시작된 엔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sup>6</sup> 정부는 2008년말 「20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에 대한 투·융자를 계획한 바 있으며, 2011년말에는 25개 수출전략품목의 중점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등 농식품의 새로운 수요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음.

## 2.2. 주요 품목별·국별 수출 실적

- 신선농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은 김치의 경우 2012년 수출액이 2000년에 비해 35.2% 증가하였으며, 인삼은 같은 연도 대비 91.0%나 증가하여 신선농산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파프리카는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률로 수출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신선딸기는 그동안 일본품종 중심으로 재배되었는데, 2002년 일본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로열티 지불 문제로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최근 국내 육종 품종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토마토는 웰빙 붐에 의한 국내 소비 확대로 과거 수출 중심 품목에서 내수 소비형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토마토 수출사업단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1,300만 달러까지 증가하는 등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임.
- 장미는 화훼 가운데 백합과 더불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은 품목이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신흥 수출국과 경쟁하면서 2011년부터 수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sup>7</sup>, 백합도 최근 수출이 정체하고 있음.
- 사과 2009년을 정점으로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으며, 과일 중에서 가장 수출액이 많은 배도 2010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음.

---

<sup>7</sup>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장미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2.8%, 인도 42.6%, 네덜란드 11.0% 등으로 한국산 비중은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신흥 화훼 수출국으로 부상한 콜롬비아와 케냐 등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많아져 2012년 기준 케냐 31.5%, 인도 22.3%, 콜롬비아 10.1%인 반면, 우리나라의 비중은 16.0%로 크게 낮아진 상태임.



표 2-5. 주요 신선농산물의 수출 실적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김치	78,847	92,965	70,328	75,309	85,295	89,386	98,360	104,577	106,608
인삼	78,986	82,475	88,598	92,075	97,229	108,916	124,204	189,305	150,828
파프리카	-	53,145	45,732	47,154	54,166	53,280	58,302	65,866	88,807
딸기	9,531	4,406	5,863	6,947	11,667	19,190	26,125	20,606	24,270
토마토	22,949	8,828	5,764	4,563	4,797	3,886	6,642	9,652	12,904
장미	10,324	10,570	8,847	8,025	11,811	20,132	34,235	25,676	27,142
백합	4,395	10,484	9,716	15,886	19,051	24,742	27,845	33,088	30,090
사과	2,339	7,798	2,501	3,404	9,363	19,633	17,945	8,874	5,906
배	17,104	56,087	36,651	49,180	47,384	53,770	54,117	47,268	49,918
단감	3,922	5,590	4,941	6,196	7,404	10,884	8,353	9,363	12,739
유자	-	-	-	25,275	27,148	26,843	32,607	40,442	40,815
버섯(농산)	5,562	2,819	4,166	8,633	23,185	33,039	38,885	38,231	33,459
밤	89,044	38,121	33,296	28,194	26,533	29,858	30,157	28,953	35,902
닭고기	4,521	9,509	8,508	8,985	12,884	18,380	31,827	40,869	41,21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단감은 매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은 2000년 대비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자는 2007년부터 이른바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차 형태로 1차 가공되어 수출되는데, 크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정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버섯은 팽이버섯 중심으로 수출되다가 2009년부터 새송이버섯도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수출 확대 영향으로 수출 실적은 최근 감소로 전환되고 있음.

- 밤은 상당부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닭고기는 삼계탕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2년 수출액이 2000년보다 11.8배나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신선축산물 수출 품목임.
-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식품의 대표적인 수출국은 일본이지만, 수출 비중이 2000년 40%대에서 2012년에는 20%대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중국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주도 품목의 국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김치와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백합은 대일본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 인삼 수출은 홍콩, 대만, 일본의 3개국 중심에서 최근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홍콩과 대만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사과는 대만, 배는 미국과 대만의 수출비중이 크게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자차는 일본, 중국, 홍콩 순으로 수출되다가 중국, 일본, 홍콩 순으로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반면, 신선딸기는 일본 중심 구조에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국이 확대하였으며, 버섯도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되다가 최근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 대상국이 늘어났음.
  - 단감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심에서 캐나다와 홍콩 등지로도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밤은 종래 일본이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7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sup>8</sup>

---

<sup>8</sup> 중국은 수입한 밤을 탈피 등의 과정을 거쳐 밤 가공제품으로 제조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가 수출한 밤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님. 이 때문에 중국의 대일본 밤 가공제품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밤 수출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표 2-6. 주요 신선농산물의 국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김치	일본	97.0	93.0	89.1	87.8	88.0	86.8	84.2	83.0	79.3
파프리카	일본	-	100.0	99.8	99.9	99.8	99.8	100.0	99.7	99.9
신신포마토	일본	99.2	95.0	90.1	98.8	96.4	98.2	95.8	96.7	95.9
장미	일본	99.7	99.7	99.8	99.3	96.8	95.7	99.1	97.6	97.9
백합	일본	99.9	100.0	99.9	99.9	99.9	99.9	99.9	99.9	99.9
인삼	중국	3.2	5.8	8.1	3.9	6.9	6.3	13.0	24.1	21.4
	홍콩	35.1	26.4	22.4	23.0	31.8	25.7	22.4	20.5	17.6
	대만	21.3	10.0	15.4	18.8	12.3	14.8	19.0	20.0	14.8
	일본	22.3	35.5	32.9	31.1	27.6	31.7	24.0	17.5	24.3
유자차	중국	-	-	-	22.3	36.0	35.4	42.6	41.4	43.7
	일본	-	-	-	39.5	27.4	30.1	28.6	30.7	28.8
	홍콩	-	-	-	14.3	14.9	13.2	9.9	12.2	11.7
신선딸기	홍콩	-	40.7	54.2	36.0	39.1	27.9	28.8	34.4	33.9
	싱가포르	-	18.2	22.5	32.0	33.5	39.0	44.7	27.1	31.6
	일본	96.1	29.9	16.3	17.6	16.0	22.5	10.3	18.4	14.8
	말레이시아	-	0.1	0.4	2.4	4.8	5.5	8.5	8.5	8.7
사과	대만	-	94.4	82.9	87.1	87.0	91.4	84.7	69.6	62.3
배	미국	65.9	40.3	54.8	48.9	46.1	45.9	47.0	50.4	52.7
	대만	-	53.3	35.9	45.0	46.7	46.0	44.9	40.5	41.1
단감	말레이시아	48.1	42.4	39.7	50.2	50.5	44.0	42.8	42.7	40.9
	싱가포르	19.7	6.6	11.1	7.1	12.1	14.2	13.9	18.1	13.9
	캐나다	-	2.6	6.4	10.0	9.7	15.1	11.6	14.0	14.8
	홍콩	10.6	11.0	6.1	7.8	11.4	12.1	7.5	10.1	10.9
버섯	미국	2.3	20.3	35.0	39.3	22.7	20.6	17.7	15.7	19.3
	네덜란드	-	5.7	25.3	25.1	18.1	8.3	6.3	13.5	17.5
	베트남	7.6	12.1	4.8	4.0	1.1	0.5	5.7	13.3	9.1
	중국	1.0	1.7	5.8	0.7	18.1	28.5	16.6	13.1	1.9
	홍콩	0.1	2.1	1.1	2.8	1.5	16.8	23.1	9.0	8.2
	일본	87.0	30.7	7.8	6.0	12.8	5.8	5.2	7.2	6.9
밤	중국	2.1	54.4	58.2	59.1	56.7	52.2	55.2	56.9	71.2
	일본	94.2	38.8	35.4	34.4	36.6	34.5	29.9	32.2	20.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이와 같이 농업부문 전체 수출국은 다변화 노력으로 특정 수출국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신선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특정 국가의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3. 가공식품 수출 현황과 무역구조

#### 3.1.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 가공식품 수출은 2000년 5.6억 달러에서 2012년 25.8억 달러로 4.6배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인 가공식품 수출 품목은 주류로서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제3맥주와 소주가 주로 수출되고 있는 반면, 막걸리와 전통주의 수출 비중은 낮은 편임.
  - 특히, 그동안 크게 신장하던 막걸리 수출은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초류는 가공식품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2012년 6.3억 달러 정도가 수출되어 전체 가공식품 수출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자류는 주로 비스킷이 수출되는 가운데 수출액은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 4억 달러로 2.6배 증가하였음.
- 면류 수출은 라면을 중심으로 2012년 3.2억 달러를 수출하여 2000년에 비해 2.7배 증가하였으며, 유제품의 경우 최근 수출 신장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멜라민 파동 이후 대중국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유제품 수출의 대표적 품목은 조제분유로 전체 유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표 2-7. 가공식품의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류	118	192	166	179	200	207	240	290	316
라면	91	136	103	116	130	142	157	187	206
소스류	38	81	95	107	122	109	130	155	172
마요네즈	11	32	31	34	47	35	38	37	38
고추장	8	12	11	11	9	15	17	22	24
주류	146	189	193	192	236	242	313	403	417
제3맥주	18	9	8	17	33	60	97	138	144
소주	88	116	119	112	124	113	123	114	127
맥주	19	38	39	34	43	42	47	65	68
막걸리	1	2	3	3	4	6	19	53	37
기타 전통주	4	7	8	7	8	7	6	7	7
유제품	11	30	31	34	49	54	58	67	102
조제분유	4	9	11	13	24	23	24	36	57
과자류	153	204	206	226	248	250	290	375	403
음료	12	36	43	56	64	74	103	184	226
커피류	33	111	125	161	198	199	221	333	311
연초류	52	271	350	414	464	478	542	572	633
계	562	1,114	1,209	1,368	1,582	1,613	1,897	2,380	2,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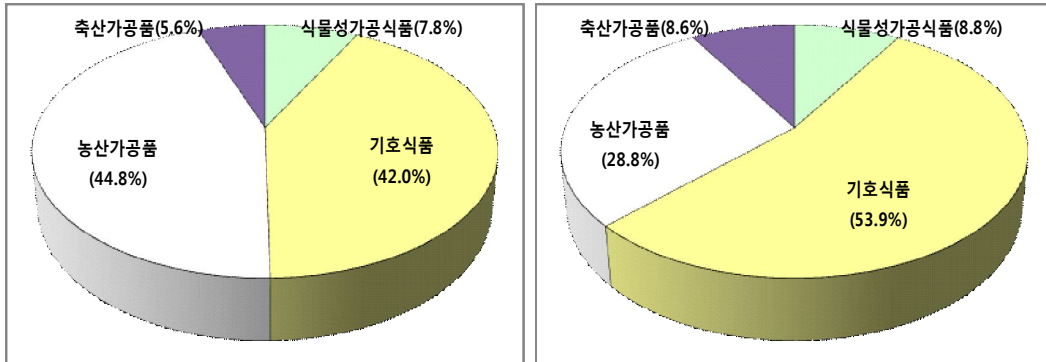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가공식품을 식물성가공식품,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농산가공품이 전체의 4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기호식품 42.0%, 식물성가공식품 7.8%, 축산가공품 5.6%의 순으로 농산가공품이 주력 수출품이었음.
- 2012년에는 기호식품 비중이 53.9%로 2000년에 비해 11.9%p 상승하여 가공식품의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는데, 커피조제품과 담배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축산가공품은 2000년 대비 3.0%p 확대되었으며, 조제분유를 포함한 분유 등의 수출이 증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반면, 농산가공품은 2000년에 비해 16.0%p 하락하였는데, 이는 사탕과 면류 등의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2-3. 가공식품의 분류별 수출 비중 변화  
(2000년) (2012년)



주 1) 식물성가공식품은 식물성유지(대두유 등), 유지가공품(마가린 등), 소스류(고추장 등)임.

2) 기호식품은 커피, 초콜릿, 담배, 주류, 음료 등임.

3) 농산가공품은 사탕, 비스킷, 빵, 면류, 병과류 등임.

4) 축산가공품은 소시지, 꿀, 우유, 분류, 치즈 등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3.2. 대아시아 가공식품 무역구조

-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별 국별 수출 비중은 면류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중심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홍콩이나 필리핀의 아시아 국가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어 특정 국가 의존도는 심하지 않은 편임.

- 소스류는 러시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이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이들 국가가 전체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 80%대에 비하면 낮아진 상황임.
- 주류는 대일 수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가공식품 중 특정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며, 홍콩시장으로는 10% 내외가 수출되었으나, 최근 7%대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과자류의 경우 대일 수출 비중이 3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은 최근 제2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음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주요 수출시장으로 이들 시장 점유율이 2012년 61.9%를 나타내고 있으며, 홍콩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음료의 최대 수출국이었던지, 최근 수출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 커피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임.
- 연초는 가공식품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타 가공식품과는 달리 아랍에미레이트, 아프가니스탄의 수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 미국, 이라크,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수출국이 상당히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아시아와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표 2-8. 주요 가공식품의 국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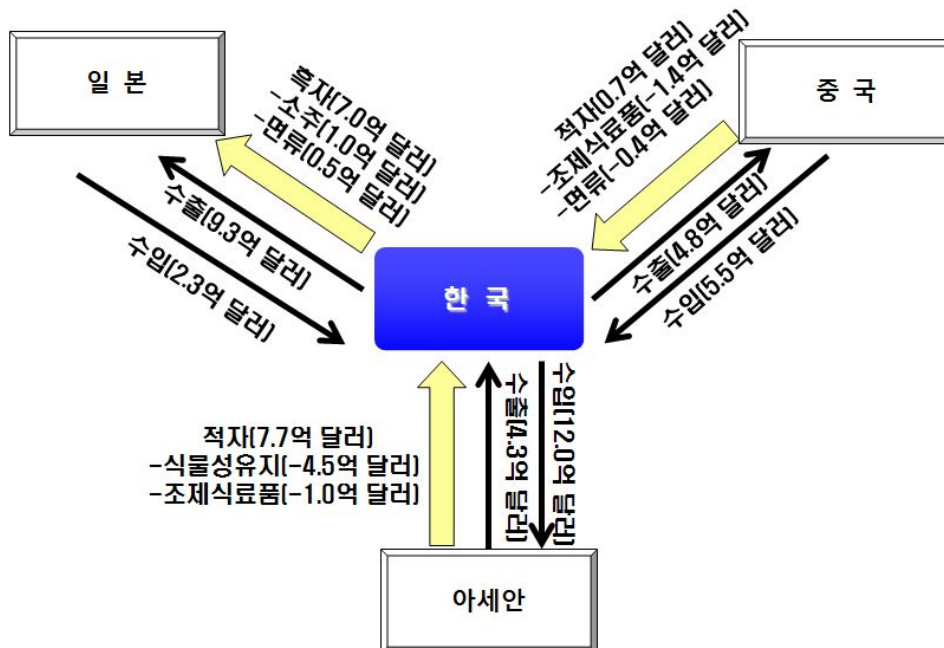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류	미국	28.0	29.1	26.4	25.4	24.1	21.1	19.2	17.5	17.8
	일본	22.6	15.5	15.8	12.1	12.3	16.6	19.1	21.5	17.1
	중국	3.0	7.9	14.0	16.8	18.0	19.1	16.5	14.4	11.9
소스류	러시아	27.8	39.7	37.5	36.2	42.1	32.7	28.1	23.3	21.8
	중국	8.9	13.8	13.9	17.3	15.9	16.8	20.0	20.7	19.0
	미국	29.4	21.2	23.6	20.0	17.9	20.4	19.3	19.5	18.2
	일본	14.1	11.2	8.7	7.5	6.4	9.6	10.9	11.2	11.2
주류	일본	72.1	66.4	63.2	62.2	61.9	68.4	71.1	74.3	74.0
	홍콩	9.1	9.7	11.4	10.6	10.7	10.8	8.3	7.4	7.2
	미국	4.7	9.2	10.1	10.6	8.4	6.7	5.9	5.3	4.7
	중국	5.8	3.5	4.5	6.7	6.8	4.4	4.5	3.9	4.4
과자류	일본	23.5	29.1	28.2	26.6	31.7	31.2	29.7	33.1	32.6
	중국	4.2	20.1	18.7	17.1	13.7	14.6	15.0	20.3	21.5
	미국	12.3	12.8	14.9	16.2	15.0	13.2	13.0	12.0	11.6
음료	미국	21.1	23.5	29.9	28.4	29.2	25.7	24.4	18.3	22.3
	일본	18.7	27.3	17.2	10.7	7.0	10.0	14.8	27.4	14.2
	중국	2.9	7.4	10.4	17.3	16.8	26.5	20.1	11.7	13.9
	러시아	3.9	10.7	13.7	15.6	17.9	11.8	13.9	10.6	11.5
	홍콩	34.3	4.7	3.4	2.8	2.2	2.7	3.5	2.3	1.6
커피	중국	4.4	13.5	11.9	11.0	8.1	14.6	20.8	15.8	17.8
	러시아	27.1	36.6	31.1	35.0	26.9	25.7	22.0	14.8	17.2
	인도네시아	8.3	13.1	14.0	8.8	13.6	10.1	9.3	10.4	11.1
	일본	0.7	2.1	1.9	1.6	1.0	2.0	8.0	10.4	9.3
	호주	2.5	6.7	9.9	13.1	12.0	13.2	4.0	3.4	2.9
연초	아랍에미레이트	17.6	40.1	34.2	28.3	23.9	29.4	37.2	27.8	31.5
	아프가니스탄	11.2	0.2	6.4	16.2	9.6	13.7	4.2	15.7	14.0
	베트남	0.0	0.1	0.1	0.1	0.1	0.1	1.7	7.7	11.4
	미국	13.8	13.2	7.2	6.9	6.3	5.9	5.8	5.1	6.2
	이라크	-	0.0	6.8	11.6	22.6	14.9	20.6	12.5	4.8
	러시아	0.5	8.1	14.3	9.8	12.4	11.1	8.8	6.8	4.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무역구조는 중국과 아세안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일본은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은 2007년 이후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2012년은 0.7억 달러의 적자에 불과하며, 주요 적자 품목은 과일·채소 등의 조제식품, 면류 등임.
  - 아세안과의 무역수지는 2012년 7.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식물성유지(팜유 등), 조제식품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일본과는 7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주와 면류 등이 주요 흑자 품목임.

그림 2-4. 가공식품의 대아시아 무역구조(2012년)



자료: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작성.



## 제 3 장

### 농식품 수출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최근의 수출 정세

#### 1. 국내외 수출여건 변화와 농식품 수출 정세

##### 1.1. 농업부문 축소와 기상이변 하의 수출물량 확보 여건

- 우리나라 채소 재배면적은 농업부문 축소와 농가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 39만ha에서 2005년 30만ha, 2012년에는 25만ha로 연평균 3.6% 감소하는 추세이며, 과일도 2000년 17만ha에서 2012년 16만ha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화훼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7~8천ha 내외는 유지하다가 최근 감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표 3-1. 원예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

단위: 천ha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채소	386	298	292	278	275	262	245	261	252
과일	173	155	152	154	154	157	162	161	160
화훼	6	8	8	8	7	7	7	7	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 이처럼 주요 수출품목인 원예작물의 경우 채소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일과 화훼는 최근 들어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파프리카, 토마토, 사과, 단감, 육계는 대체로 재배면적(사육두수)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삼, 딸기, 장미, 백합, 배, 버섯, 배추, 고추 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파프리카는 정부의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에 의해 유리온실 등의 시설이 보급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채소나 화훼로부터 작목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은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sup>9</sup>
  - 토마토는 이른바 웰빙붐에 의한 국내 소비 증가로 2004년부터 재배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7,353ha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6천ha 내외 수준은 유지하고 있음.<sup>10</sup>
  - 사과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3만ha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 삼계탕의 주재료인 육계 사육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sup>11</sup>, 2012년에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감축 과정을 거치면서

9 파프리카의 10a당 소득은 1,386만 원으로 토마토(반축성) 962만 원, 수박(반축성) 361만 원, 딸기(반축성) 1,175만 원, 오이(반축성) 843만 원에 비해 높아 고소득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10 토마토는 몸에 유익하다는 지속적인 광고와 웰빙붐 영향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음. 일반토마토의 경우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이 2000년 15,968원에서 2004년 30,649원, 2005년 27,175원, 2007년 29,839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로 수출되고 있는 방울토마토도 상품 5kg당 도매가격이 2000년 7,758원에서 2004년 13,169원, 2007년 14,433원으로 2배 정도 상승하였음.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4.8% 감소하였음.<sup>12</sup>

- 상기 품목(축종)들은 생산이 적어도 일정 수준은 유지되거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기상이변 등의 영향이 없었다면, 수출물량 조달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2.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동향

단위: ha, 천 수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요 수출품목	인삼	12,445	14,153	16,405	17,831	19,408	19,702	19,010	17,601	16,174
	파프리카	110	249	335	320	367	410	424	429	n.a.
	딸기	7,090	6,969	6,813	6,665	6,394	6,313	7,049	5,816	6,290
	토마토	4,916	6,749	6,613	7,353	6,144	6,188	5,270	5,850	6,344
	장미	766	751	864	658	579	518	456	418	377
	백합	245	227	208	219	221	212	204	215	192
	사과	29,063	26,907	28,312	29,358	30,006	30,451	30,992	31,167	30,734
	배	26,142	21,735	20,656	19,888	18,277	17,090	16,239	15,081	14,353
	단감	23,816	17,199	17,304	16,309	16,259	14,785	15,244	14,299	13,390
	버섯	1,002	1,361	931	918	953	810	764	750	724
팽이버섯	61	84	49	49	54	42	45	31	28	
주요 수출품목 원재료	육계	46,893	64,283	65,325	66,720	63,725	75,998	80,881	81,882	77,952
	배추	51,801	37,203	42,034	34,265	37,285	34,321	28,270	35,513	35,199
	고추	74,471	61,299	53,097	54,876	48,825	44,187	44,584	42,574	45,459

주: 주요 수출품목 원재료에서 육계는 삼계탕, 배추와 고추는 김치의 주재료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및 「화훼재배현황」,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 2013., 통계청(KOSIS).

- 11 육계에는 삼계탕의 주재료인 삼계 외에 산란노계, 육용종계, 산란종계, 겸용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삼계의 사육두수를 별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육계 사육두수를 활용하였음.
- 12 하림, 마니커, 동우 등 업체가 육계 사육두수 증가에 의해 가격 하락이 우려되자 2012년 도태나 입식 감축 등 종계 자율 감축을 실시하여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게 되었음.

- 인삼 재배면적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은 2009년 대비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산 원료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신규 경작면적은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로 돌아섰는데, 이는 수삼 판매와 안정적 소득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딸기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농지 리모델링 지역의 신규재배로 작년에 비해 8.4% 증가하였음.
  - 배 재배면적은 신고 품종 등장과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음.
  - 단감은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어 재배면적이 증가하다가 가격하락 등으로 대봉, 블루베리, 유자 등으로 작목전환하는 농가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장미와 백합은 화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서 그동안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영비 증가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장미의 생산 축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sup>13</sup>
  - 버섯 재배면적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로 전환되어 연평균 4.1%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수출품목인 팽이버섯의 경우도 대농 위주의 구조개편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추의 경우 국민의 식생활 변화와 타 소득 작목으로의 전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매년 재배면적이

<sup>13</sup> 장미의 경우 2012년 농가의 본당 명목 판매가격은 1995년보다 83.8% 상승하여 조수입은 66.8% 증가하였지만, 경영비는 같은 연도 대비 2.1배나 증가하여 소득은 오히려 25.9% 감소하였음. 이 때문에 장미의 소득률은 1995년 60.2%에서 2012년에는 26.7%로 크게 낮아져 작목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최근 들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감소하고 있어 배추의 2012년 재배면적은 2000년 대비 32.1%, 고추는 같은 연도 대비 39.0%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주요 수출품목이거나 수출품목의 원재료인 이들 작목들은 생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기상이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태풍 곤파스<sup>14</sup>와 2012년 태풍 블라벤·덴빈의 영향으로 인한 낙과 피해 발생으로 배 생산량이 급감하여 수출이 감소한 경우를 들 수 있음.<sup>15</sup>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매년 40만 톤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던 2010년에는 전년보다 26.3%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도 40.3%나 감소한 17만 톤에 불과하였음.

표 3-3. 기상악화 영향으로 인한 배 생산량 변화

단위: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량	443	431	467	471	418	<b>308</b>	290	<b>173</b>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14 태풍 곤파스는 2010년 8월말에 발생한 제7호 태풍으로 9월초 서해안을 거쳐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관통하였으며, 배를 비롯한 과수와 벼, 고랭지배추와 무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15 태풍 블라벤은 2012년 8월말에 발생한 제15호 태풍이자 중심기압이 910hPa에 도달한 정도의 슈퍼태풍으로 제주도와 서해안을 거쳐가면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 특히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였음.

- 태풍 피해로 배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2010년 생산된 배 수출량은 전년보다 10.4%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27.7%나 감소하여 기상악화로 인해 수출물량 확보에 많은 곤란을 겪었음.

표 3-4. 기상악화 영향으로 인한 배 수출 감소

단위: 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소계	증감률 (%)
2009	1,177	3,795	3,570	4,631	8,355	1,121	446	1,156	24,251	-
2010	1,474	2,120	4,606	3,747	7,977	621	145	1,044	21,733	△10.4
2011	1,618	2,070	3,340	3,975	4,804	1,125	672	1,226	18,831	△13.4
2012	1,647	1,792	3,256	3,351	2,215	535	209	618	13,623	△27.7

주: 연산 기준으로 1~3월은 각각 해당연도의 익년도 수출물량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경우도 2010년 지속적인 고온과 태풍 영향으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줄어들어 김치 제조를 위한 물량 조달은 물론, 가격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sup>16</sup>

표 3-5. 기상악화 시 배추 가격 급등 현황

단위: 원/10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	2,383	2,637	4,747	9,568	7,145	2,542	2,770	4,189	3,949	2,124	2,166	2,460
2010	3,773	5,622	7,707	9,501	6,289	3,263	5,799	4,331	11,731	8,881	6,608	7,290
증감률(%)	58.3	113.2	62.4	△0.7	△12.0	28.4	109.4	3.4	197.1	318.1	205.1	196.3

주: 가격은 중품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sup>16</sup> 2010년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136천 톤으로 2009년에 비해 35.5%나 감소하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배추 1포기당 소비자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배추 파동을 겪었음.



- 고랭지배추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자 도매가격도 급등하였는데, 고랭지배추의 주출하 시기인 9~11월의 2010년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3배 이상 높게 거래되었음.
- 이처럼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생산량 감소는 김치 제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악화 등으로 고랭지배추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2010년 9~11월의 김치 수출량은 전년보다 9~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 기상악화 시 배추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김치수출 감소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	2,142	2,268	2,169	2,588	2,080	2,424	2,406	2,027	2,426	2,409	2,449	3,119
2010	2,098	2,625	2,744	2,670	2,460	2,457	2,429	2,287	2,098	2,204	2,238	3,362
증감률(%)	△2.0	15.7	26.5	3.2	18.3	1.4	1.0	12.8	△13.5	△8.5	△8.6	7.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이와 같이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파프리카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생산이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의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수출물량의 지속적·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1.2. 세계 경기침체와 환율 변동

-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2013년 3/4분기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4분기까지는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었음.

- 중국은 2011년 9.3%의 실질 GDP 증가율을 보여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지만, 2012년부터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7~8%대를 나타내고 있음.
  - 소비의 경우 소매판매 증가율이 2011년 17.1%에 달하였으나, 2012년에는 14.3%, 2013년에는 12~13% 수준으로 낮아졌음.
  - 최근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핫머니 규제나 해외 수요 침체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실질 GDP가 2011년 0.5% 감소하였지만, 2012년 이른바 아베노믹스 이후 1.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들어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여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이며, 10월에도 산업생산이나 소매판매 등 지표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표 3-7. 세계의 주요 국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1.8	3.7	1.2	2.8	0.1	2.8	1.1	2.5	3.6
중국	9.3	8.1	7.6	7.4	7.9	7.7	7.7	7.5	7.8
일본	△0.5	0.9	△0.5	△0.8	0.1	1.4	1.1	0.9	0.3
유로	1.4	0.0	△0.3	△0.2	△0.5	△0.5	△0.2	0.3	0.1

자료: 기획재정부.

- 유로 경제는 2012년부터 악화되어 실질 GDP 증가율이 -0.5%였으나, 2013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불황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음.
  - 최근 독일 등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태이지만,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실업률이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음.<sup>17</sup>

- 특히,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변화 등에 따라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대적인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엔저를 유도하여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려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음.
  - 그 결과, 2012년 11월 중순까지 달러 당 엔화의 평균 환율은 78~80엔 수준이었으나, 3개월 사이에 92~96엔 내외로 급상승하였음.

그림 3-1. 일본 아베노믹스의 예상 파급효과 개념도



자료: 구분관,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부활의 신호탄인가?”, 「SERI 경제포커스」 41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엔저 추진 정책으로 인해 엔화 환율은 그동안 1,300~1,400원대 수준에서 2012년 12월 1,200원대로 하락하다가 2013년 1월에는 1,100원대, 최근에는 1,100원선도 무너지는 등 급락한 상황임.

17 유로의 2013년 실업률은 1월에 12.0%, 3월 12.1%, 6월 12.1%, 10월 12.1% 등 12% 이상이 지속되고 있음(기획재정부).

그림 3-2. 엔화 환율의 변화 추이



주: 엔화 환율은 매매기준을 기준임.

자료: 외환은행.

### 1.3. 최근의 여건변화에 따른 수출 정체 상황

- 국내 주요 수출품목의 전반적인 생산 위축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불안정 요인 상존, 대외적인 경제 침체 현상 지속, 가장 중요한 농식품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정책 추진 등 농식품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수출 부진은 농식품 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수출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가 전체 수출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3.9%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침체 시기인 2012년에도 1.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은 1.7% 증가율에 그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은 2007~2008년 14~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8.2%로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세계경제 침체 상황이

있던 2012년은 증가율이 4.9% 정도였음.

- 국가 전체 수출은 대외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감소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농식품의 경우 증가율이 둔화되더라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2013년에도 국내 생산의 불안정성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웠으며, 국제 경제침체와 엔화 환율 급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현재까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전체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 3-8. 국가 전체 및 농식품의 최근 수출 증감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 전체 수출	14.1	13.6	△13.9	28.3	19.0	△1.3	1.7
이중 농식품	14.3	20.4	8.2	23.8	31.9	4.9	4.6

주: 2013년은 1~11월 누계의 전년(1~11월 누계)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2013년 1~11월의 국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국가 전체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은 작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대미

표 3-9. 국가 전체의 최근 국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2012년 1~11월		2013년 1~11월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중국	122,328	△0.1	132,862	8.6
미국	53,969	4.6	56,902	5.4
일본	35,749	△0.6	31,996	△10.5
홍콩	30,005	5.3	25,537	△14.9
싱가포르	20,914	10.0	20,950	0.2
계	502,994	△0.9	511,669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도 5.4% 증가한 반면, 대일 수출은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sup>18</sup>

- 농식품의 국별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대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3년 1~11월의 일본 수출은 엔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8.1% 감소한 반면, 대중 및 대미 수출은 각각 7.4%, 1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농식품의 경우도 국가 전체 수출과 마찬가지로 최근 대일 수출은 줄었지만, 대중 및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등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엔저 현상은 농식품 수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3-10. 농식품의 최근 국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1~11월		2013년 1~11월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일본	1,260	2.6	1,188	△8.1
중국	828	0.4	889	7.4
미국	386	12.9	481	11.6
홍콩	222	0.7	304	24.6
러시아	210	5.6	235	△1.2
계	5,159	6.1	5,399	4.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농식품의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2013년 1~11월 수출실적이 전년에 비해 2.7% 증가에 그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10.8%,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 전체 수출이 최근 4.6% 증가한 것은 주로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

<sup>18</sup> 국가 전체의 국별 수출 비중(2012년 기준)은 중국이 전체의 24.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미국 10.7%, 일본 7.1% 등의 순임.

- 채소류와 화훼, 주류는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엔화 환율 하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전년보다 적게는 7~9%, 많게는 15~30% 정도 감소하였음.

표 3-11. 주요 농식품의 수출품목별 최근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2011년 1~11월		2012년 1~11월		2013년 1~11월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농산물	4,451,667	36.2	4,364,007	△ 2.0	4,482,059	2.7
채소류	247,667	5.3	302,426	22.1	278,660	△ 7.9
파프리카	59,324	18.5	82,051	38.3	76,667	△ 6.6
딸기	15,231	6.7	19,486	27.9	24,254	24.5
토마토	8,695	52.5	11,545	32.8	12,732	10.3
김치	94,711	8.8	97,674	3.1	82,825	△ 15.2
인삼	175,750	81.8	135,144	△ 23.1	146,024	8.1
화훼	74,435	△ 7.6	71,854	△ 3.5	50,258	△ 30.1
장미	23,333	△ 17.4	25,757	10.4	13,741	△ 46.7
국화	9,425	△ 11.6	8,611	△ 8.6	5,862	△ 31.9
백합	27,558	26.3	26,145	△ 5.1	16,543	△ 36.7
과실류	168,745	10.3	198,755	17.8	199,458	0.4
사과	7,139	△ 33.0	5,315	△ 25.5	5,241	△ 1.4
배	34,837	0.8	42,113	20.9	41,198	△ 2.2
단감	7,634	18.6	11,423	49.6	9,309	△ 18.5
유자	34,495	38.7	35,925	4.1	36,287	1.0
과자류	340,970	30.0	367,342	7.7	394,802	7.5
면류	264,325	21.1	292,383	10.6	295,744	1.1
소스류	142,213	21.9	158,048	11.1	166,406	5.3
주류	374,304	31.9	387,231	3.5	350,706	△ 9.4
음료	171,619	79.2	211,242	23.1	228,523	8.2
커피	299,951	51.9	286,614	△ 5.4	283,523	0.1
연초	487,061	1.5	566,992	16.4	486,899	△ 14.1
축산물	158,200	24.7	358,115	126.4	396,742	10.8
임산물	252,456	28.6	437,248	73.2	519,941	18.9
계	4,862,323	35.3	5,159,370	6.1	5,398,742	4.6

주: 수출실적은 각 연도별 1~11월 누계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특히, 거의 전량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화훼의 경우 장미는 46.7%, 국화 31.9%, 백합 36.7% 감소하여 엔저 지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김치도 15.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과자류, 면류, 소스류, 음료 등 가공식품은 비교적 수출국이 다양하고 대일 수출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엔저 영향을 적게 받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국내 생산 위축으로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특정 시장 의존도 심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시장 중심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2.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 2.1. 국내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 전망

-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을 위한 원재료 농산물의 국내 생산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함.
- 파프리카는 생산이 확대되는 품목으로 향후에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딸기 재배면적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에도 딸기 재배면적 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만, 기술 향상으로 인한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2017년 17만 4천 톤, 2022년에는 17만 3천 톤으로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 등으로 수출물량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음.
- 토마토 재배면적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2000년대 중반과 같은 급격한 면적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3-12. 주요 채소 수출품목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단위: ha, 천 톤

		2012	2017	2022
파프리카	재배면적	440	558	663
	생산량	43	55	67
딸기	재배면적	6,290	5,688	5,208
	생산량	179	174	173
토마토	재배면적	6,344	6,570	6,906
	생산량	402	420	455

주: 파프리카는 추세치를 이용하여 추정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 2013 및 자체 추정.

- 사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량은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 향상으로 단수가 증가하여 47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당분간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물량 확보 곤란 문제는 크게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도시개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까지 지속되겠으나, 이후 다소 늘어 2022년에는 1만 4천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 생산량은 재배면적 축소의 영향으로 2017년까지 감소하겠지만, 이후 신규식재로 인해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여 2022년에는 30만 8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배는 과일 가운데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나, 생산량이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출전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출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감은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어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다 감소로 전환된 품목이며, 향후에도 면적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단수 증가로 현 수준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단감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생산량이 정체하게 될 경우 수출 적기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표 3-13. 주요 과일 수출품목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단위: 천ha, 천 톤

		2012	2017	2022
사과	재배면적	30.7	29.9	28.0
	생산량	395	472	479
배	재배면적	14.4	13.5	14.3
	생산량	173	289	308
단감	재배면적	13.4	13.0	12.7
	생산량	175	177	18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 2013.

- 장미의 경우 소득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면적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2년에는 2012년보다 42.5% 줄 것으로 전망됨.<sup>19)</sup>

- 국화와 백합 재배면적도 2022년에는 2012년에 비해 각각 15.3%, 17.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장미, 국화, 백합은 대표적인 화훼 수출품목으로 2010년에는 1억 달러 이상의 화훼가 수출되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주요 화훼 수출품목의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2012	2017	2022
장미	377	271	217
국화	527	458	446
백합	192	171	158

자료: 박기환 외, 「소비안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화훼산업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은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의한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평균 2%씩 감소하여 2022년 재배면적은 30,483ha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도 2017년 232만 8천 톤, 2022년은 219만 1천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의 주재료인 고추도 농가 고령화, 수입 급증 등의 원인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면적과 생산량 감소가 전망됨.
  - 이와 같이 배추와 고추 생산량 감소는 김치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19 장미의 소득율은 1995년 60.2%에서 2000년 35.3%, 2010년 32.5%, 2012년 26.7%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최근 유가 상승 등 경영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장미농가가 확대되는 추세임.

게 되므로 주요한 수출품목인 김치 제조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품목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삼계탕의 주재료인 육계(삼계 포함)는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닭고기 생산량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물량 확보에는 큰 곤란을 겪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5. 김치 및 삼계탕 주재료인 배추·고추·육계의 생산 전망

단위: ha, 만 마리, 천 톤

		2012	2017	2022
배추	재배면적	35	33.1	30.5
	생산량	2,445	2,328	2,191
고추	재배면적	44	37.2	31.4
	생산량	102	90	80
육계	사육두수	7,795	9,095	9,372
	생산량	476	512	53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 2013.

## 2.2. 세계 및 주요 수출시장 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약세로 하방위험이 존재하지만, 최근 경제지표들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를 원동력으로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2014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OECD도 전 세계적 경제활동 증가와 교역 확대로 2014년 3.6%, 2015년 3.9%의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은 미국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와 유럽 경기 둔화폭 감소로 IMF는 2014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OECD는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14년 2.3%, 2015년 2.7%로 예측하고 있음.
  - 신흥개도국은 여전히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기 성장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되었음.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무역도 2014년 5%대, 2015년 6%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6. 세계 경제 전망

	IMF 전망치			OECD 전망치			
	2013	2014		2013	2014	2015	
세계	2.9	3.6	실질 GDP 성장률	세계	2.7	3.6	3.9
선진국	1.2	2.0		OECD 국가	1.2	2.3	2.7
미국	1.6	2.6		미국	1.7	2.9	3.4
유로존	△0.4	1.0		유로 지역	△0.4	1.0	1.6
일본	2.0	1.2		일본	1.8	1.5	1.0
영국	1.4	1.9		비 OECD 국가	4.8	5.3	5.4
캐나다	1.6	2.2		중국	7.7	8.2	7.5
기타	2.3	3.1		총산출 갭(Out gap)	△2.6	△2.3	△1.8
신흥개도국	4.5	5.1		실업률	8.0	7.8	7.5
중동부유럽	2.3	2.7		인플레이션	1.5	1.9	2.0
개도국	6.3	6.5		재정 수지	△4.8	△4.0	△3.2
중국	7.6	7.3		세계 실질 교역 증가율	3.0	4.8	5.9
인도	3.8	5.1					
아세안 5	5.0	5.4					
세계 무역	2.9	4.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3.

- 미국 경제는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은 회복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은 3%대로 금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재정 긴축 지속과 금융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자 신뢰 및 기업 경기지수가 여전히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남아있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함.<sup>20</sup>
- 주택시장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여건, 소비자심리, 고용시장도 개선되는 추세로 향후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갈 듯함.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연방준비위원회의 추가 양적완화도 경기회복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표 3-17. 미국의 경제 전망

	IMF 전망치		OECD 전망치		
	2013	2014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1.6	2.6	1.7	2.9	3.4
소비자가격지수	1.4	1.8	1.5	1.8	1.9
경상수지	△2.7	△2.8	△2.5	△2.9	△3.1
실업률	7.6	7.4	7.5	6.9	6.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3.

- IMF는 중국이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7.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4년에는 7.3%로 성장세의 다소 감소 추세를 예상하였으나, OECD는 안정적인 물가 동향과 정부의 소규모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함.<sup>21</sup>
  -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외형 성장 중심에서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균형 성장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OECD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3년 7.7%에서 2014년 8.2%로 확대된 후 2015년에는 7.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sup>20</sup> OECD(2013), p.92.

<sup>21</sup> OECD(2013), p.208.

- 중국 정책당국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은 지양하고, 경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과거의 초고도 성장세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3-18. 중국의 경제 전망

	IMF 전망치		OECD 전망치		
	2013	2014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7.6	7.3	7.7	8.2	7.5
소비자가격지수	2.7	3.0	2.5	2.4	2.4
경상수지	2.5	2.7	2.3	1.5	1.5
실업률	4.1	4.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3.

-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높게는 2014년 1.8%, 2015년 1.9%, 낮게는 1.5%, 1.0% 등으로 예상되어 소폭이기는 하지만<sup>22</sup>, 이전에 비해 다소 경기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단행될 경우 추가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엔저와 주가 상승으로 기업이나 소비자 마인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적자폭이 계속 감소하여 2013년 8조 7천억엔 적자에서 2014년 7조 5천억엔, 2015년에는 6조엔으로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sup>22</sup> OECD(2013)는 2014년과 2015년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하여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일본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3-19. 일본의 경제 전망

		노무라 증권 전망치				IMF 전망치		OECD 전망치		
		2013	2014	2015		2013	2014	2013	2014	2015
국내 총생산	실질국내총지출	2.5	1.8	1.9	실질 GDP 성장률	2.0	1.2	1.8	1.5	1.0
	정부소비	1.7	1.2	1.4	소비자가격지수	0.0	2.9	0.2	2.3	1.8
	명목국내총지출	2.4	4.1	3.2	경상수지	1.2	1.7	0.9	1.2	1.5
	GDP디플레이터	Δ0.1	2.2	1.2	실업률	4.2	4.3	4.0	3.9	3.8
생산· 물가	소비자물가	0.3	2.9	1.8						
	완전실업율(%)	3.9	3.8	3.5						
대외 수지	무역수지(조엔)	Δ8.7	Δ7.5	Δ6.0						

자료: 日本 (株)野村證券, 「2013年度~2015年度の經濟見通し」, 20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3.

- 일본의 1달러당 엔화는 현재 100엔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6엔 정도로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3-3. 일본의 1달러당 엔화 전망



자료: 日本 (株)野村證券, 「2013年度~2015年度の經濟見通し」, 2013.



- 이 때문에 대일 수출은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엔저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농식품 수출의 SWOT 분석

- 농식품 수출 현황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강점으로는 정부의 농업부문 수출산업화 추진 의지가 강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제도 운영으로 농업부문 수출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조직화 진전으로 거래교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평균적인 수출 단가가 상승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이 수출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수출조직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제고시킨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수출업체간 자율협력기구를 구성·지원하여 수출품목의 안전·품질관리, 공동마케팅, 수출 질서 확립 등을 도모하고자 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김치, 단감, 딸기, 막걸리, 밤, 배, 버섯, 사과, 식품, 쌀, 양란, 유자차, 인삼, 전통주, 채소종자, 파프리카와 수산물의 김을 포함하여 총 17품목의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농산물 수출단가는 2000년 kg당 1.09달러에서 2005년 1.47달러, 2010년 1.79달러, 2012년에는 2.05달러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평균적으로는 수출단가가 2000년 1.14달러에서 2012년 1.76달러로 54.4% 상승하였음.

표 3-20. 농식품 수출단가 변화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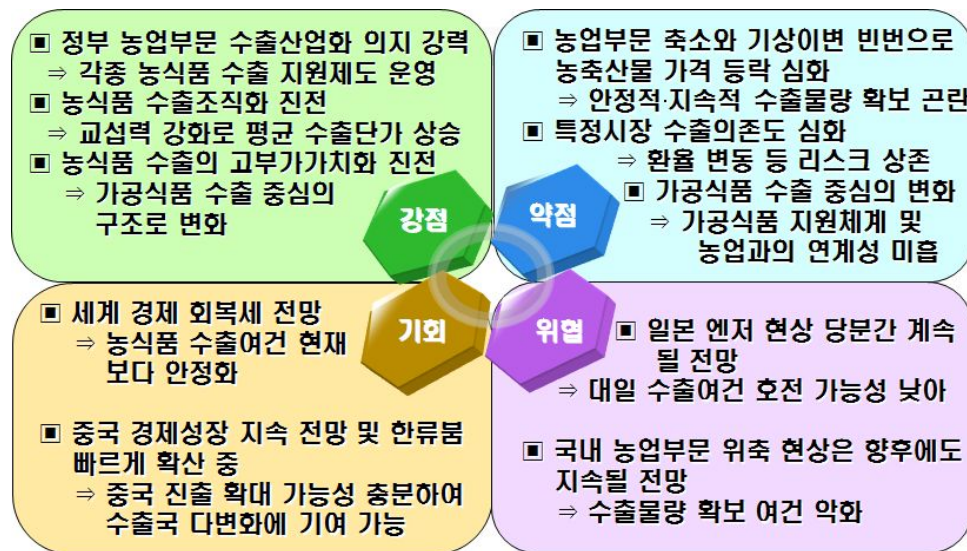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산물	1.09	1.47	1.59	1.66	1.87	1.71	1.79	1.94	2.05
축산물	1.40	1.80	1.98	1.95	2.19	2.34	2.47	2.74	4.14
임산물	1.29	1.63	1.50	1.52	1.53	0.99	1.24	1.42	0.60
평균	1.14	1.50	1.61	1.67	1.87	1.66	1.77	1.93	1.76

주: 수출단가는 수출금액을 수출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

- 농식품 수출은 그동안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가공식품 중심의 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음.
  - 신선농산물의 직접적인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를 1~2차 가공함으로써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수출하게 되어 농업부문 수출산업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됨.
- 더욱이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여건이 현재보다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은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확대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한류 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한국 농식품 수출 여건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식품 수출의 기회요인도 존재함.

그림 3-4. 농식품 수출의 SWOT 분석



○ 이와 같은 강점과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의 약점과 위협 요인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부문 축소와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격 등락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가격 급등 시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어 안정적·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수출국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여전히 특정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 부담이 상존하고 있음.
- 가공식품 수출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어 수출의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수출 지원체계도 미흡한 수준임.
- 이러한 약점 이외에도 일본의 엔저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므로 대일 수출여건이 급격히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위축 현상이 계속되어 수출물량 확보 여건이 악화되는 등 위협 요인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농식품 수출의 강점과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면서 약점과 위협 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수출물량의 안정적·지속적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의 지원체계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특정시장의 의존도 심화로 인한 리스크 부담 등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농식품 수출진흥의 한계 요인과 실태 분석

#### 1. 신선농산물 수출진흥의 주요 저해 요인과 실태

##### 1.1.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 곤란

##### 1.1.1. 수출업체의 수출물량 확보 실태와 애로사항

- 농식품 수출은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 56억 달러로 연평균 1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국내가격 상승 시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즉,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급등하게 되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흉수 출하로 국내 시세가 하락할 때에는 수출물량이 급증하여 수출단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는 일본 바이어가 수요가 많은 1~3월에 많은 물량이 수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국내 가격도 높아 수

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23</sup>

- 화훼의 경우 일본의 성수기인 3월, 5월, 9월, 12월에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지만, 국내 성수기와도 겹쳐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까다로운 수출대신 내수 판매에 치중하게 됨.<sup>24</sup>

-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과거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며,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가 상당수 존재함.<sup>25</sup>
-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수출농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후조건이나 성수기 등으로 상승하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출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을 지적한 업체가 13.1%로 나타나고 있음.

23 파프리카의 월별 국내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2010~2012년 평균 1월 가격은 5kg 상품 기준으로 36,049원, 2월은 40,035원, 3월은 34,081원으로 연평균가격 32,182원보다 높음(KAMIS). 즉, 연평균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1월은 112.0, 2월은 124.4, 3월은 105.9로 이 시기에 파프리카 국내가격은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음.

24 일본은 3월이 졸업시즌과 피안, 5월은 어머니의 날, 9월은 피안,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수요 등의 특수기가 있어 화훼 소비가 많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3월 입학시즌, 5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수요 등의 화훼 소비 특수기가 있어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음.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장미의 1992~2012년 평균 도매가격(연평균=100)은 3월이 123.4, 5월 90.0, 12월 147.2이며, 국화는 동월 184.7, 130.3, 95.8, 백합은 136.6, 79.0, 117.6으로 이들 시기가 비교적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2013).

25 과거(1997년)의 화훼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내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품종은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두순 외(1997), pp.115).

표 4-1.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단위: %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	전문적인 수출농가 (제조업체) 부족	고품질 제품 확보 곤란	재배 작기와 소비시기 미일치	까다 로운 수출 절차	수출 물류비 상승	업체간 과당 경쟁	수출국 정보 미흡	안정적인 바이어 부족	정부 지원 부족	계
평균	13.1	6.9	3.7	3.7	6.6	20.3	15.4	5.4	9.7	15.1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를 제정리.

○ 수출업체 가운데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업체 비중은 평균 47.6%로 거의 절반 정도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부류별로 수출업체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채소나 과일은 기상여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수출업체의 약속 불이행 경험은 각각 62.5%, 79.5%로 상당히 높아 상당수의 수출업체가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으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4-2.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애로 경험 여부

단위: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채소 수출업체	62.5	37.5	100.0
과일 수출업체	79.5	20.5	100.0
화훼 수출업체	53.8	46.2	100.0
가공품 수출업체	36.2	63.8	100.0
평균	47.6	52.4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수출농가 조사결과에서도 당초 수출 계약 물량이 기상이변 등으로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시장으로 판매한 경험이 있는 농가 비중은 7.9%,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 판매한 비중 15.1%, 수출단가를 인상해 주어 수출한 농가 비중은 4.8%로 27.8%의 수출농가가 어떠한 형태

로든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음.<sup>26</sup>

표 4-3. 수출농가의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내수전환 비중

단위: %

	수출물량의 전량 내수판매	수출단가를 인상해주어 일부는 수출, 일부는 내수판매	수출단가를 인상해주어 전량 수출	당초 계약대로 전량 수출	기타	계
비중	7.9	15.1	4.8	64.3	7.9	100.0

자료: 2012년 수출농가조사결과.

- 수출약속 불이행은 국내 수출업체와 수입국 바이어들 간의 계약 이행 곤란으로 수출시장에서 신뢰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반면 국내 시세 하락 시 밀어내기 식 수출로 수출물량이 급증하여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함.
  - 예컨대 최근 태풍 피해로 배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내 가격이 상승하자 대만 수출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였음.
  - 화훼도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성수기와 국내 성수기가 겹쳐 수출물량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 국내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비수기에는 저품위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한국산의 이미지가 크게 악화됨.
- 수입업체는 농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농가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농가에 위약금 등을 청구한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오히려 수출업체의 72.5%는 당초 약정했던 수출단가보다 올려주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6.3% 수출단가를 인상해 주었음.<sup>27</sup>

26 본 조사는 2012년도에 과제(박기환 외, 2012)를 수행하면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항목이나, 해당 과제 보고서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음.

27 수출업체의 계약단가 인상률은 부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채소 수출업체의 경우 20.0%, 과일 수출업체는 14.6%, 화훼 수출업체 22.3%, 가공 수출업체 10.3%로 화훼 수출업체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박기환 외, 2012).



표 4-4.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 시 수출업체의 계약단가 인상 경험

단위: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채소 수출업체	77.8	22.2	100.0
과일 수출업체	72.2	27.8	100.0
화훼 수출업체	71.4	28.6	100.0
가공품 수출업체	66.7	33.3	100.0
평균	72.5	27.5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농가 입장에서 국내 시세가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 내수 판매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는 물론, 정작 수출 시 수출단가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문제점은 농식품 수출의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 시점에서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국내 가격 급등 시에도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1.1.2. 수출과 국내가격 간 상관관계 분석

- 농식품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국내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규명하도록 함.
-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994~2012), 상관계수가 0.470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표 4-5. 농식품 수출과 농가판매가격지수와 상관계(1994~2012년)

		농산물 수출액	농가판매가격지수
농산물 수출액	Pearson 상관계수	1	0.470*
	유의 확률(양쪽)		0.042
	N	19	19
농가판매가격지수	Pearson 상관계수	0.470*	1
	유의 확률(양쪽)	0.042	
	N	19	19

주: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그렇지만 최근(2000~2012년)의 두 관계를 계측해 본 결과, 상관계수가 0.840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최근 들어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에 더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농식품 수출과 농가판매가격지수와 상관계(2000~2012년)

		농산물 수출액	농가판매가격지수
농산물 수출액	Pearson 상관계수	1	0.840**
	유의 확률(양쪽)		0.000
	N	13	13
농가판매가격지수	Pearson 상관계수	0.840**	1
	유의 확률(양쪽)	0.000	
	N	13	13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운용을 통해 농식품 수출은 크게 신장되었으나<sup>28</sup>, 최

28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는 크게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3가지로 대별됨.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농축산물판매촉

근 들어 농식품 수출과 국내 판매가격과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이는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수출물량 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게 되는 정도가 최근 더 심화된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국내 농산물 가격변화에 따른 농식품 수출물량 변화의 반응 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공급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물량은 환율과 농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 후 對세계 농식품 수출 공급반응함수식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국내 농가판매가격이 1% 상승하면 對세계 농산물 수출물량은 0.1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log(World_{Ag}) = 18.21 + 4.08 \log(1 + (Exch_{Japan}/Exch_{USA})) \quad (1)$$

$$\begin{array}{ccc} (26.03)^{***} & & (13.15)^{***} \\ -0.16 \log(NP_{fruit-vege}) & - & 0.03 \log(Ag - export) \\ (-1.96)^{**} & & (0.26) \end{array}$$

$R^2$ : 0.803

추정기간: 2000년 4/4분기~2012년 4/4분기

$World_{Ag}$ : 對세계 농산물 수출량(톤)

$1 + (Exch_{Japan}/Exch_{USA})$ : 엔화 환율혜택 지수<sup>29</sup>

$NP_{fruit-vege}$ : 농가판매가격(청과물) 지수(2005=100)

$Ag - export$ : 농산물 수출물가지수 (2010=100)

진사업의 목적은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농식품 운영·수매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음.

- 29 엔화 환율(원/엔)/대미 환율(원/달러)의 비(比)를 지수화한 것으로 엔화 환율이 대미 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농산물 수출 증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동시에 엔화 환율과 대미 환율을 모형에 고려하기 위함임.

- 상관관계와 수출 공급반응함수를 통해 수출물량과 국내가격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가격 불안정으로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가격 등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2. 수출농가의 소득안정 미흡

-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애로를 겪게 되는 또 다른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까다로운 수출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에 비해 수출 시 농가소득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수출 장애 요인의 실증적 실태 파악을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딸기가 85.1%로 가장 높은 가운데, 파프리카, 배, 단감, 장미, 백합은 50~66% 정도인 반면, 방울토마토(29.4%)와 사과(6.3%)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sup>30</sup>
  -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비중은 딸기와 파프리카를 제외하면, 50% 이하로 나타나 원예전문생산단지를 통한 수출물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sup>30</sup> 정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은 평균 35.4%(2011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4-7.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주요 품목별 생산 대비 수출 비중(2012년 기준)  
단위: %

	채소류			과일류			화훼류			
	파프리카	딸기	방울 토마토	사과	배	단감	장미	국화	백합	심비디움
비중	66.0	85.1	29.4	6.3	53.1	50.1	58.3	47.2	51.1	44.2

자료: 2013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결과.

○ 원예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출단가는 국내 출하용 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품목도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낮게 형성되고 있어 품목별로 편차가 존재함.

- 2012년 기준 국내 출하 가격 대비 수출단가 비중이 더 높은 품목은 파프리카, 딸기, 단감, 장미, 백합, 심비디움이며, 낮은 품목은 방울토마토, 사과, 배, 국화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배의 경우 2012년 태풍 피해로 낙과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국내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수출단가가 낮았던 것으로 보임.
- 방울토마토도 재배면적이 최근 감소하면서 국내 판매가격이 2009년 5kg 당 상품 14,591원에서 2011년 20,450원, 2012년 20,259원으로 40% 내외 높게 거래되고 있어 수출단가가 국내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표 4-8. 원예전문생산단지의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출가격 비중(2012년 기준)  
단위: %

	채소류			과일류			화훼류			
	파프리카	딸기	방울 토마토	사과	배	단감	장미	국화	백합	심비디움
비중	141.7	120.9	95.7	77.4	93.0	109.5	125.0	99.7	135.4	133.0

주 1) 채소류와 과일류는 kg당, 화훼류의 경우 장미·국화·백합은 분당, 심비디움은 분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음.

2) 비중은 (수출가격/국내판매가격×100)임.

자료: 2013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결과.

- 수출단가와 국내가격과의 차이에서 품목에 따라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내수 가격보다는 수출단가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수출단가는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수출에 따른 추가 물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 시 경영비가 상승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낮게는 11%에서 높은 경우 45%까지 추가 경영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품목별로는 장미가 45.0%로 가장 높은 가운데, 파프리카와 백합, 단감은 30~32% 내외, 딸기와 심비디움은 23~29%, 사과, 국화, 배의 경우 11~20%로 조사되었으며, 방울토마토는 10.0%로 가장 낮았음.

표 4-9.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시 추가 경영비 상승 정도(2012년 기준)

단위: %

	채소류			과일류			화훼류			
	파프리카	딸기	방울 토마토	사과	배	단감	장미	국화	백합	심비디움
비중	32.4	29.0	10.0	11.0	19.9	30.8	45.0	15.0	30.3	22.9

자료: 2013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결과.

- 단가와 경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국내판매와 수출 시의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수출단가도 낮고 물류비 부담으로 추가 경영비가 소요되는 방울토마토, 사과, 배, 국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이 국내판매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sup>31</sup>
  - 특히, 파프리카와 단감의 경우 국내판매 대비 수출 시 소득이 6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수출에 따른 추가 경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높았기 때문임.

31 소득 분석 시 내수용과 수출용 농산물의 품질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내수와 수출의 선호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품위 농산물이 수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판매와 수출의 소득 격차가 정확하지 않은 한계는 존재함.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는 국내가격이 수출단가보다 높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비교를 통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4-10.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 시 국내판매 소득 대비 비중(2012년 기준)  
단위: %

	채소류			과일류			화훼류			
	파프리카	딸기	방울 토마토	사과	배	단감	장미	국화	백합	심비디움
비중	164.4	101.5	89.0	62.5	74.1	160.4	101.7	96.5	136.3	143.3

주 1) 품목별 조수입은 평당 생산량에 국내판매단가와 수출단가를 적용하여 국내판매 조수입 및 수출 시 조수입을 산정하였음.

2) 국내판매 및 수출 시의 소득은 국내판매 경영비와 수출 시 추가 소요 경영비를 추정하여 각각의 조수입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였음.

3) 비중은 (수출 시 소득/국내판매 소득×100)임.

자료: 2013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결과.

○ 소득 비교는 단기연도를 기준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서 수출 여건 변화에 따라 소득의 유리성 여부는 변화하게 됨.

- 2012년 수출농가 조사에서는 수출단가가 국내가격보다 높아 수출 시 소득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비중이 16.9%로 불리하다는 농가(29.6%)보다 적었으나, 2013년 조사는 각각 29.5%, 25.3%로 유리하다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1. 수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향상 정도

단위: %

	수출단가가 국내가격보다 높아 수출 시 소득 유리	수출단가 높으나, 추가비용 발생으로 소득 비슷	수출단가 낮아 수출 시 소득 불리	잘 모름	계
2012년 조사	16.9	46.5	29.6	7.0	100.0
2013년 조사	29.5	38.9	25.3	6.3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013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결과.

○ 이와 같이 수출은 수출국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생산량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수출단가나 비용 등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에게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가들이 수출을 통해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가공식품 수출진흥의 현안 문제

### 2.1. 농업과 가공식품 수출의 연계 부족

#### 2.1.1.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추정<sup>32</sup>

- 농식품 전체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1.5%에서 2000년 65.0%, 2012년 80.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공식품이 농업부문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가공식품이 농업부문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선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은 부가가치가 높아 가공식품 수출확대는 국가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했을 경우를 가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 그 결과, 가공식품 수출이 10% 증대되면, 전체 산업 생산은 20.2% 늘어나 국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sup>33</sup>

32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추정은 최지현 외(2013)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재정리하여 활용하였음.

33 GTAP에서 제공하는 기본 closure를 조정한 후, 각 산업부문의 수출변수를 외생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가공식품 수출의 10% 증가는 GDP를 0.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공식품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GDP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가공식품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산업연관분석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12. 가공식품 수출 증대 시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

	10% 증대	20% 증대	30% 증대
전체 산업 계	20.189	40.379	60.568
낙농가공품	3.401	6.802	10.202
일반가공식품	3.548	7.095	10.643
기타가공식품	1.497	2.994	4.491
채소 및 과실	0.106	0.212	0.317
기타 식용작물	0.275	0.551	0.826
비식용작물	0.186	0.372	0.559
축산물	1.310	2.621	3.931
임산물	0.067	0.134	0.201
농림어업서비스	0.039	0.078	0.117
화학제품	0.972	1.943	2.915
운수 및 보관	0.520	1.040	1.559
금융 및 보험	0.316	0.633	0.949

- 이처럼 가공식품은 농업부문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전체 산업 생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즉,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축산물은 국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여도 농업부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음.
  - 위의 산업연관분석에서도 가공식품 수출 확대는 국가 전체 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채소 및 과실(0.1%), 기타 식용작물(0.3%), 축산물(1.3%) 등 농업부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보이고 있음.
- 이 때문에 가공식품이 국산 농축산물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가공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이용률 분석은 산업연관표(2011년 기준)를 활

용하여 산업연관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계측이 가능함.

-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한 국산 중간투입재 이용률은 국내 농산물 이용률이 과대평가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남.
  - 즉, 산업연관표에서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한 농식품(예컨대 수입밀로 생산한 밀가루나 수입육으로 가공한 육가공품 등)은 국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입 원료의 국내 가공을 고려하여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간의 연계구조는 산업연관표의 국산 투입산출계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국산 중간투입재의 생산을 위해 이용된 수입 농식품 원재료를 제외한 실제 국산 이용률 추정을 위해서는 수입산 투입산출계수나 수입 유발계수를 활용한 조정이 필요함.
- 수입산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한 수정 국산 투입산출계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된 중간투입재에 이용된 수입 원재료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정된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라고 할 수 있음.

$${}^P a_{ij}^d = a_{ij}^d - \sum_{k=1}^N a_{ki}^m a_{ij}^d \quad (2)$$

- 이러한 부분적 보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용된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 예를 들어 빵 생산에 투입된 밀가루 생산을 위한 수입 밀 투입액을 제외한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를 추정할 수 있음.
- 투입된 중간재의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입유발계수를 적용한 ‘수입유발효과를 고려한 국내산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하고자 함.

$${}^T a_{ij}^d = a_{ij}^d - \sum_{k=1}^N m_{kj} a_{ij}^d \quad (3)$$

- 이러한 수입유발효과 보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용된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용된 원재료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까지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하여 추정된 농식품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살펴보면,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제분(3.8%), 맥주(11.7%), 기타 주류(22.9%), 국수류(29.0%)의 국산 이용률은 낮은 반면, 장류(51.4%)와 소주(53.2%)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13. 가공식품의 산업별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단위: %

	국산 이용률		국산 이용률
육가공품	34.1	장류	51.4
유제품	32.0	과실 및 채소가공품	45.5
제분	3.8	소주	53.2
빵 및 곡분과자	34.3	맥주	11.7
국수류	29.0	기타 주류	22.9

자료: 최지현 외,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5/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에서 재정리.

## 2.1.2.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 현황<sup>34</sup>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의 5인 이상 식료품·음료제조업 7,371업체를 대상으로 층화 후 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으로 2,500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sup>34</sup>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 현황은 국가승인통계(승인(협의)번호 제11447호)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 식품제조업체의 업종별 비중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2.1%,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14.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7.5%, 발효주 제조업 3.3% 등임.
- 수산식품 관련 업종 비중은 21.1%이나, 본 연구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이후의 자료 활용에서는 수산부문을 제외하였음.

표 4-14. 식품제조업체 조사 표본의 특징

단위: 업체, %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297	12.1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348	14.2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264	10.8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66	2.7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251	10.3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83	7.5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248	10.1	기타 식료품 제조업	391	16.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41	1.7	발효주 제조업	80	3.3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63	2.6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3	1.3
곡물 가공품 제조업	117	4.8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40	1.6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6	1.1	계	2,44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2.

- 식품제조업체의 품목별 국산 이용률을 살펴보면, 곡류·두류의 경우 쌀은 81.9%로 매우 높은 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밀가루는 전량 외국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sup>35</sup>

- 식품제조업체의 농축산물 국산 이용률은 자급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

35 2010년 자료에는 밀과 밀가루의 국산 이용률이 40.7%, 14.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한 식품제조업체가 수입 밀을 가공한 국내 제품을 국산으로 간주하여 답변한 것으로 추정됨.

이 있는데,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은 쌀 86.1%, 밀 1.6%, 콩 30.7% 등이며<sup>36</sup>, 특히 밀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이 1.6%에 불과하여 업체의 국산 이용률도 낮을 수밖에 없음.

- 서류의 자급률은 106.3%인 가운데, 식품제조업체의 감자의 국산 이용률도 95.9%로 대부분 국산이 이용되고 있으며, 근채류인 무와 당근의 국산 이용률은 각각 94.5%, 82.5%로 높은 편임.
  - 그러나 당근의 경우 국내 공급량의 50% 이상이 중국산 세척당근임을 감안할 때 이용률이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sup>37</sup>
- 배추와 양파, 파는 각각 98.1%, 92.6%, 91.1%의 높은 국산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추는 44.9%, 마늘 60.1%로 상대적으로 국산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추는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 중심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총 공급량 대비 수입량 비중은 2003년 30.3%에서 2011년 59.7%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임.<sup>38</sup>
- 마늘도 최근 수입 증가로 자급률이 2003년 88.3%에서 2011년 76.8%로 하락하고 있어 업체의 국산 이용률도 60%대에 머물고 있음.

3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37 당근은 중국산 세척당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급률이 2000년 94%에서 2007년 47%, 2012년 44% 내외(농업전망 201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38 신선·냉장건고추/건고추의 관세는 270%의 고율관세인 반면, 냉동고추는 27%로 낮아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건고추로 환산한 고추 수입실적(연산 8월~익년 7월 기준)은 2003년 65,119톤에서 2011년 120,25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표 4-15. 식품제조업체의 품목별 국산 이용률

단위: %

		2010	2011
곡류·두류	쌀	86.7	81.9
	밀	40.7	0.0
	밀가루	14.1	0.0
	옥수수	32.2	32.3
	콩(대두)	56.4	46.9
서류·근채류	감자	94.7	95.9
	무	98.3	94.5
	당근	82.9	82.5
엽채·조미채소류	배추	99.1	98.1
	고추	74.4	44.9
	마늘	77.8	60.1
	양파	95.6	92.6
	파	92.0	91.1
과채류	수박	100.0	100.0
	참외	100.0	100.0
	딸기	96.5	90.9
	토마토	90.3	84.8
과실류	사과	97.3	97.2
	배	98.1	99.4
	포도	87.6	83.9
	감귤	100.0	97.3
축산물	쇠고기	27.9	22.2
	돼지고기	85.8	64.8
	닭고기	82.8	79.6
	계란	99.5	100.0
	우유	99.2	100.0
기타	인삼	98.3	100.0
	참깨	29.1	18.7
	땅콩	36.9	33.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1 및 2012.

- 과실류와 과채류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산 이용률이 80~100%로 상당히 높은 편임.
  - 과실 가운데 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로 인해 시기별로는 칠레산 포도 수입이 늘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이용률인 사과 97.2%, 배 99.4%, 감귤 9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83.9%를 나타내고 있음.<sup>39</sup>
  - 그러나 과채류 가운데 토마토는 상당량 페이스트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토마토 가공제품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토마토 이용률은 조사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됨.<sup>40</sup>
  - 딸기의 경우도 냉동딸기가 상당량 수입되어 케이크 등의 데코레이션으로 활용되므로 조사결과인 90.9%보다는 국산 이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sup>41</sup>
- 축산물의 경우 계란과 우유는 국산 이용률이 100%, 닭고기는 79.6%로 높은 반면, 돼지고기는 64.8%, 쇠고기는 22.2% 낮음.
  - 쇠고기는 자급률이 과거 100%였으나, 시장개방으로 미국산 등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2012년 자급률은 48.2%까지 떨어진 상황임.<sup>42</sup>
  - 돼지고기도 미국, 독일, 칠레, 캐나다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자급률은 2012년 74.4%로 추정되고 있음.<sup>43</sup>
- 인삼은 식품제조업체가 전량 국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참깨와 땅콩은 각각 18.7%, 33.9%로 낮은 상황임.

39 포도 수입량은 2001년 6,656톤에서 한·칠레 FTA 발표시점인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4,192톤으로 2001년 대비 8.1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칠레산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40 2012년 토마토 수입액은 49,178천 달러인데, 이중 토마토 페이스트가 50.7%인 24,946천 달러로 나타났음.

41 딸기의 2012년 수입액(18,161천 달러) 중 냉동딸기는 8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43 돼지고기 자급률은 총 공급량(전년이월+생산+수입)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 식품제조업체가 제품 생산 시 원료 농축산물로 외국산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이유는 국산 원료의 원가가 높아 가격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1%로 압도적으로 높음.

표 4-16.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농축산물 외국산 이용 이유

단위: %

		국산의 맛/품질/ 규격 미일정	국산의 일시 대량 납품받기 곤란	국산 보다 안전	국산의 높은 가격	국내 미생산 품목	외국산과 국산 선호도 차이 크지 않아	기타	계
곡류· 두류	쌀	0.5	8.0	-	76.2	5.3	4.2	5.9	100.0
	보리	5.9	-	-	73.2	-	20.9	-	100.0
	밀	-	26.5	-	73.5	-	-	-	100.0
	밀가루	2.1	7.7	1.4	68.8	16.2	2.1	1.8	100.0
	옥수수	4.4	13.9	3.0	64.2	9.8	3.3	1.4	100.0
	콩(대두)	2.8	9.2	0.3	81.4	2.7	2.8	0.8	100.0
서류· 근채류	감자	-	-	-	70.6	6.4	-	23.0	100.0
	무	-	7.0	-	69.8	-	-	23.2	100.0
	당근	-	3.1	0.9	85.4	2.0	-	8.6	100.0
엽채· 조미 채소류	배추	-	-	-	100.0	-	-	-	100.0
	고추	1.7	2.9	0.4	90.9	-	2.1	1.4	100.0
	마늘	2.0	6.1	0.2	85.8	0.7	0.7	3.9	100.0
	양파	-	10.4	-	77.7	-	-	11.9	100.0
	파	-	2.9	-	89.6	-	-	7.4	100.0
과채류	딸기	-	-	-	78.7	-	-	21.3	100.0
	토마토	14.9	23.1	-	61.9	-	-	-	100.0
과실류	사과	32.8	-	-	67.2	-	-	-	100.0
	배	-	-	-	-	-	-	100.0	100.0
	포도	16.9	-	-	49.4	-	-	33.8	100.0
	감귤	-	34.2	-	65.8	-	-	-	100.0
축산물	쇠고기	1.9	5.4	0.5	87.0	0.9	2.4	1.9	100.0
	돼지고기	2.0	3.9	-	91.2	1.2	1.1	0.6	100.0
	닭고기	-	2.1	-	97.9	-	-	-	100.0
기타	참깨	2.6	3.6	0.1	89.0	0.5	2.7	1.4	100.0
	땅콩	1.6	4.7	1.9	86.0	1.5	1.3	3.1	100.0
	천일엽	3.9	4.3	1.1	88.1	-	0.7	1.9	100.0
평균		2.3	5.6	0.9	75.1	11.6	1.9	2.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2012.



- 특히, 조미채소류와 축산물의 경우 국산 원료의 원가가 높아 외국산을 구매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을 구매한다는 응답 비중이 11.6%로 높아 이들 두 가지 이유가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음.
  - 밀가루는 국내에서 생산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2%로 타 품목에 비해 높아 낮은 자급률(사료용 제외 1.6%)을 반영하고 있음.

## 2.1.2. 수출용 가공식품 국산 원재료 활용 실태의 사례분석

- 수출용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 농산물의 1차 가공비중이 높은 품목은 국내 원재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김치는 배추와 마늘은 거의 대부분 국산을 이용하지만, 고춧가루는 국산 이용률이 38.8%로 중국산 냉동고추나 다대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됨.<sup>44</sup>
  - 유자차의 유자는 100% 국산이며, 꿀도 국산 이용률이 94.0%로 높음.

표 4-17.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국산 이용률

단위: %

	김치			유자차		삼계탕			막걸리
	배추	고추	마늘	유자	꿀	계육	참쌀	인삼	쌀
비중	100.0	38.8	99.3	100.0	94.0	100.0	90.0	100.0	97.5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44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이용률에서도 고추는 44.9%로 타 품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4-14 참조).

- 삼계탕의 경우 계육과 인삼은 전량 국산이지만, 찹쌀은 90.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막걸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산 쌀을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었음.
- 수출 통계상 신선농축산물로 분류되는 김치, 유자차, 삼계탕은 완전 가공식품이라기 보다는 원료 농축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신선농식품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원재료의 국산 이용률은 높은 편임.
- 그렇지만 완전한 가공식품이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과자류, 면류, 소스류, 음료, 커피류 등은 원재료가 국산 농축산물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수출 실적은 크게 확대되어도 국산 농산물 이용률이 낮아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상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수입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여 가공업체가 국산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수출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방안과 함께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2. 가공식품의 수출진흥 체계 미구축

### 2.2.1.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업체 간 과당경쟁(20.0%)과 함께 수출물류비 상승(18.2%), 정부지원 부족(13.3%) 등을 들고 있음.

- 채소·과일·화훼 등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대체로 수출물류비 상승,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 정부지원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공식품 수출업체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음.<sup>45</sup>
-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간 차이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류비는 현재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어 정부지원 부분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정부지원에 대한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불만사항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18.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단위: %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	전문적인 수출농가 (제조업체 부족)	고품질 제품 확보 곤란	재배 작기와 소비시기 미일치	까다 로운 수출 절차	수출 물류비 상승	업체간 과당 경쟁	수출국 정보 미흡	안정적인 바이어 부족	정부 지원 부족	계
비중	9.7	4.2	5.5	2.4	6.7	18.2	20.0	7.3	12.7	13.3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정리.

- 이 때문에 현행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2.2.2. 가공식품 관련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 가공식품은 농업부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80.9%에 달할 정도로 농식품 수출의 주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sup>45</sup> 채소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은 정부지원 부족(19.3%),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9.7%), 수출물류비 상승(18.2%) 등의 순이며, 과일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물류비 상승(23.0%),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19.7%), 정부지원 부족(16.4%), 화훼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 상승(24.3%),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13.5%), 정부지원 부족(13.5%) 등으로 조사되었음(박기환 외, 2012).

정부의 지원제도 미흡을 수출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정부의 농식품 수출관련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등이 있음.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농산물의 안전성·검역 관리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보조 사업임.<sup>46</sup>

표 4-19.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관련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

	2012		2013 (B)	증감 (B-A)	주요사업목적	지원 형태
	예산액 (A)	비중				
우수농수산물 구매지원사업	365,200	83.4	387,052	21,852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	용자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40,972	9.4	41,150	178	수출물류비지원 및 안전성·검역통관 등 인프라 강화	보조
해외시장개척사업	31,420	7.2	28,000	△3,420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출관련 기관 간 공조 활성화	
계	437,592	100.0	456,202	46,168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가운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업체 조사에서 인지도가 평균 89.3%로 가장 높은 정부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수출지원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sup>47</sup>

46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하며,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10%/수출업체)와 지자체(25%/수출업체+농가분)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7 정부지원사업 가운데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한 수출업체의 인지도는 77.6%, 바이어거래알선 71.3%, 수출선도조직 63.8%, 공동브랜드휘모리관리 53.1% 등으로 조사되어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박기환 외, 2012).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경우도 인지도는 85.4%로 평균에 비해 약간 낮지만 비교적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인지도는 높은 편임.

표 4-20.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인지도 평가

단위: %

	전혀 모른다	자세히 모른다	보통	대체로 안다	매우 잘안다	계
채소 수출업체	2.3	2.3	7.0	18.6	69.8	100.0
과일 수출업체	2.3	-	2.3	15.9	79.5	100.0
화훼 수출업체	-	-	-	15.4	84.6	100.0
가공식품 수출업체	4.8	3.2	6.5	17.7	67.7	100.0
평균	3.1	2.3	5.4	16.2	73.1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정리.

-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수출업체에게 주는 직접적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수출업체 비중은 9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 기여도 평가

단위: %

	전혀 도움안됨	별 도움 안됨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
채소 수출업체	2.3	-	7.0	14.0	76.7	100.0
과일 수출업체	-	-	-	13.6	86.4	100.0
화훼 수출업체	-	-	7.7	7.7	84.6	100.0
가공식품 수출업체	3.3	-	6.7	21.7	68.3	100.0
평균	1.6	-	6.3	15.6	76.6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정리.

- 또한,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인지도와 기여도뿐만 아니라 이용도도 높아 전체 평균이 93.8%로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렇지만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경우 채소나 과일, 화훼 수출업체에 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받아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는데(88.7%), 이는 이 지원사업의 조건과 관련이 있음.
  -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25만 달러 이상인 업체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품목은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 가공품, 녹차 등임.
  - 즉,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수출의 주도 품목인 면류, 소주나 맥주 등의 주류, 과자류, 음료, 커피류, 연초류 등은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가공식품은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고추장 등의 장류, 쌀 가공품 정도이므로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지원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2.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이용도 평가

단위: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채소 수출업체	97.7	2.3	100.0
과일 수출업체	100.0	-	100.0
화훼 수출업체	100.0	-	100.0
가공식품 수출업체	88.7	11.3	100.0
평균	93.8	6.2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정리.

- 가공식품 수출지원제도와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총 재정지원규모의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음.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한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에 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을 용자 지원하고 있음.<sup>48</sup>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이용도는 평균 43.8%이며,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평균보다 낮은 35.5% 정도가 이 사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sup>49</sup>

표 4-23. 수출업체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이용도 평가

단위: %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채소 수출업체	51.2	48.8	100.0
과일 수출업체	59.1	40.9	100.0
화훼 수출업체	23.1	76.9	100.0
가공식품 수출업체	35.5	64.5	100.0
평균	43.8	56.2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정리.

- 이와 같이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우수농식품구매지원을 들 수 있는데, 수출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일부 가공식품을 제외하면 해당 품목이 거의 없는 실정임.

48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용자 80%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4%로 1년 상환임.

49 10만 달러 이상의 농식품을 수출한 2,517개 수출업체 가운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는 2012년 190업체로 전체 농식품 수출업체의 7.5%가 실제 자금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국회예산정책처(2013), p.19) 조사결과가 과대평가되었음. 이는 조사대상 수출업체가 전체 수출업체가 아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 가능한 255업체(이중 130업체가 응답)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임.

- 또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대상품목으로 가공식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담보 설정 능력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결국, 가공식품이 농업부문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출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3. 농식품 수출의 특정국가 의존도 심화와 영향

#### 3.1. 주요 수출품목의 특정시장 의존도 현황

##### 3.1.1. 농산물 전체의 수출시장 의존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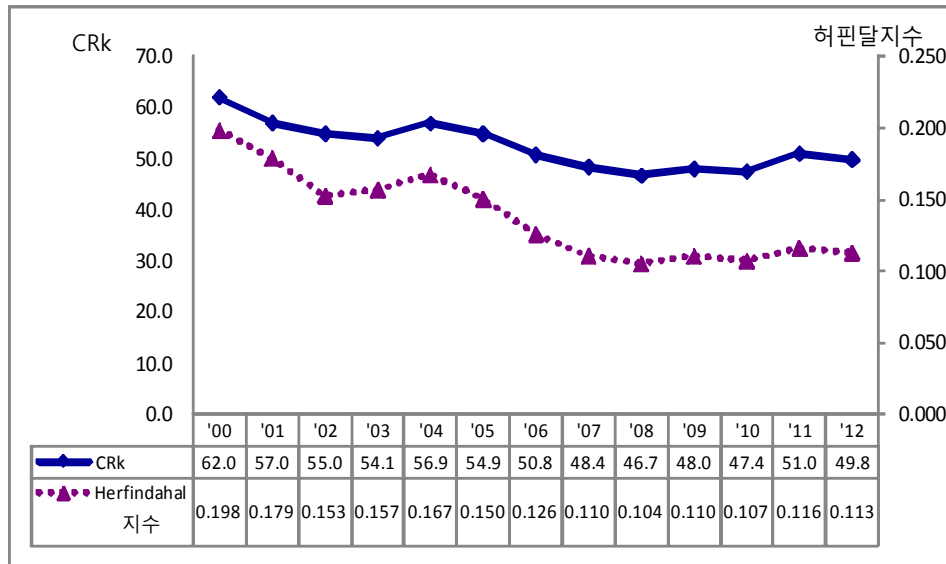
- 농산물 전체의 수출시장은 과거 특정시장 중심에서 관련 주체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져 왔음.
- 농산물 전체의 수출시장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위 3개국 집중도(CR<sub>3</sub>)는 2000년 62.0%로 크게 높았지만, 이후 집중도가 약화되면서 2012년은 49.8%로 낮아지게 되었음.
  -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Herfindahal Index)도 2000년 0.198에서 2012년 0.113으로 계속 하락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불균등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sup>50</sup>

---

<sup>50</sup> 허핀달지수는  $H = \sum_{k=1}^n S_k^2$  ( $S_k$ : 시장 웨어)로 정의되며, 전체 비중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그림 4-1. 농산물 전체 수출국가의 상위집중도 및 허핀달지수 변화 추이



주: 상위집중도(CR<sub>k</sub>)는 상위3개국 수출 집중도임.

- 이와 같이 수출시장 상위집중도와 불균등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국 다변화 진전의 결과임.
  - 정부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과 물류비지원 등으로 특정 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시장 다변화가 상당부분 진전될 수 있었음.
  - 이는 특정시장 의존도가 완화될 수 있어 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처럼 농산물 전체의 수출시장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수출국 다변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별로 여전히 특정시장 의존도가 높아 특정시장 경제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제3장의 1절에서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출이 부진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산물 전체가 아닌 각각의 주요 수출품목별로 수출시장 집중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3.1.2. 주요 품목별 수출국 집중도 추이

- 신선농산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상위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김치, 딸기, 단감, 인삼, 버섯의 경우 집중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인 반면, 파프리카와 백합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의 상위집중도는 상당수의 품목이 80% 이상으로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의 허핀달지수는 0.7~1.0으로 매우 높아 수출시장 불균등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신선농산물 가운데에서는 인삼과 버섯의 불균등도가 타 품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비교적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나, 상위집중도는 50~60%대로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면서도 몇몇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시장 상위집중도를 살펴보면, 주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0~50%대로 신선농산물에 비해 크게 낮으며, 상당수의 가공식품 수출품목의 수출국 상위집중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허핀달지수는 대부분 0.1~0.2로 신선농산물보다 상당히 낮아 많은 가공식품 수출품목은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수 또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가공식품의 수출국 다변화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4. 신선농산물의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국가 상위집중도 및 허핀달지수 변화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김치	CR <sub>k</sub>	98.1	95.9	93.9	93.4	92.7	91.6	89.6	88.0	86.1
	H-Index	0.941	0.865	0.795	0.773	0.776	0.756	0.711	0.692	0.633
파프리카	CR <sub>k</sub>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H-Index	-	0.999	0.996	0.997	0.997	0.996	0.999	0.995	0.999
딸기	CR <sub>k</sub>	99.9	95.5	96.2	90.9	91.0	89.9	84.3	80.2	80.3
	H-Index	0.950	0.616	0.405	0.333	0.283	0.291	0.207	0.231	0.249
백합	CR <sub>k</su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H-Index	0.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999
단감	CR <sub>k</sub>	84.0	74.5	71.4	68.1	74.0	73.2	68.3	74.7	69.7
	H-Index	0.301	0.249	0.228	0.292	0.298	0.255	0.235	0.250	0.232
유자차	CR <sub>k</sub>	-	-	-	76.8	78.2	78.7	81.1	84.3	84.2
	H-Index	-	-	-	0.251	0.244	0.248	0.286	0.288	0.294
인삼	CR <sub>k</sub>	78.8	72.6	70.6	72.9	71.7	72.1	65.3	64.6	63.3
	H-Index	0.225	0.223	0.199	0.197	0.206	0.202	0.170	0.177	0.166
버섯	CR <sub>k</sub>	96.9	70.1	68.1	71.4	58.9	65.9	57.4	42.4	47.4
	H-Index	0.734	0.192	0.209	0.236	0.147	0.169	0.133	0.103	0.113

주: 상위집중도(CR<sub>k</sub>)는 상위3개국 수출 집중도임.

표 4-25.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국가 상위집중도 및 허핀달지수 변화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류	CR <sub>k</sub>	60.4	55.6	56.2	54.3	54.4	56.8	54.8	53.3	46.9
	H-Index	0.152	0.137	0.125	0.118	0.117	0.118	0.112	0.108	0.090
소스류	CR <sub>k</sub>	71.3	74.7	74.9	73.5	76.0	69.8	67.3	63.5	59.0
	H-Index	0.195	0.235	0.225	0.209	0.241	0.188	0.171	0.152	0.135
주류	CR <sub>k</sub>	86.9	85.3	84.7	83.4	81.0	85.9	85.3	87.0	86.0
	H-Index	0.534	0.462	0.426	0.415	0.408	0.487	0.520	0.563	0.559
과자류	CR <sub>k</sub>	52.4	62.0	61.8	59.9	60.3	59.0	57.7	65.4	65.7
	H-Index	0.115	0.156	0.150	0.143	0.155	0.149	0.141	0.173	0.175
음료	CR <sub>k</sub>	74.1	61.5	60.8	61.3	63.8	64.1	59.3	57.5	50.4
	H-Index	0.204	0.155	0.155	0.153	0.156	0.165	0.146	0.138	0.111
커피류	CR <sub>k</sub>	63.4	63.2	57.0	59.1	52.4	53.6	52.1	41.0	46.1
	H-Index	0.176	0.184	0.153	0.170	0.124	0.126	0.119	0.084	0.095
연초류	CR <sub>k</sub>	46.1	64.6	58.0	56.1	59.0	58.0	66.7	55.9	57.0
	H-Index	0.110	0.204	0.164	0.140	0.142	0.148	0.198	0.135	0.146

주: 상위집중도(CR<sub>k</sub>)는 상위3개국 수출 집중도임.

### 3.2. 농식품 수출과 특정국가 의존도 심화의 영향 분석

- 농산물 전체적으로는 수출시장의 특정국가 집중도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선농산물의 경우 여전히 특정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특정시장 의존도 심화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변화, 특히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특정국가의 환율 변동이 농식품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후, 일정한 관계성이 나타날 경우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2.1. 농식품 수출과 환율과의 상관관계 분석

- 농식품 수출은 환율 변동과도 연관성이 있는 가운데, 농식품 전체 수출시장은 다변화되고 있으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대일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엔화 환율 변동에 민감히 반응하게 됨.
- 이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신선농산물의 수출과 엔화 환율(1992~2012년)과의 상관계수는 0.513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6. 농식품 수출과 엔화 환율과의 상관관계(1992~2012년)

		농산물 수출액	엔화 환율
농산물 수출액	Pearson 상관계수	1	0.513*
	유의확률(양쪽)		0.017
	N	21	21
엔화 환율	Pearson 상관계수	0.513*	1
	유의확률(양쪽)	0.017	
	N	21	21

주: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이러한 관계를 최근(2000~2012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상관계수가 0.647로 높아져 농식품 수출이 엔화 환율에 최근 들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여전히 농산물 수출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엔화 변동에 민감히 반응하며,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써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4-27. 농식품 수출과 엔화 환율과의 상관관계(2000~2012년)

		농산물 수출액	엔화 환율
농산물 수출액	Pearson 상관계수	1	0.647*
	유의확률(양쪽)		0.017
	N	13	13
엔화 환율	Pearson 상관계수	0.647*	1
	유의확률(양쪽)	0.017	
	N	13	13

주: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수출 공급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대일 농식품 수출과 엔화 환율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엔화 환율헤택이 1% 상승하면 대일 농식품 수출물량은 2.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log(Japan_{Ag}) = 17.59 + 2.97 \log(1 + (Exch_{Japan} / Exch_{USA})) - 0.20 \log(NP_{fruit-vege}) - 0.13 \log(Ag - export) \quad (4)$$

(30.51)<sup>\*\*\*</sup>
(13.15)<sup>\*\*\*</sup>
(-2.19)<sup>\*\*</sup>
(1.55)

$R^2$ : 0.787

추정기간: 2000년 4/4분기~2012년 4/4분기

$Japan_{Ag}$ : 對일본 농산물 수출량(톤)

$1 + (Exch_{Japan}/Exch_{USA})$ : 엔화 환율혜택 지수

$NP_{fruit-vege}$ : 농가판매가격(청과물) 지수(2005=100)

$Ag-export$ : 농산물 수출물가지수 (2010=100)

### 3.2.2.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엔화환율 영향 분석<sup>51</sup>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엔화 환율과 농산물 수출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로 구분한 후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가. 분석모형 및 자료

- 모형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과 오차수정모형(VEC,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에는 종속변수의 시차항과 엔화 환율의 현재 및 시차항, 국내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평균 가격지수의 현재 및 시차항을 포함하였음.
- 임의보행(random walk)을 하는 경제변수에 임의의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어 불안정(nonstationary) 시계열의 형태가 나타날 경우 그 경제변수는 단위근(unit root)을 갖게 됨.
  - 이 경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 가성적 또는 허구적(spurious)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분석의 신뢰도 저하와 시사점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Augmented Dickey-Fuller(ADF)(Dickey and Fuller, 1981)를 이용하고자 함.

<sup>51</sup> 영향 분석의 모형 설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 ARDL모형은 현 시점의 종속변수에 설명변수로서 종속변수의 시차항, 즉 자기회귀항과 독립변수의 현재항과 시차항을 포함하는 모형이며, 다음 식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

$$Y_t = \alpha + \beta_0 X_t + \dots + \beta_p X_{t-p} + \delta_1 Y_{t-1} + \dots + \delta_q Y_{t-q} + \varepsilon_t \quad (5)$$

$Y_t$ ; t기 종속변수

$Y_{t-q}$ ; t-q기의 종속변수 시차항

$X_t$ ; 현재시기의 독립변수

$X_{t-p}$ ; t-p기의 독립변수 시차항

$\varepsilon_t$ ; 오차항

- 불안정 시계열 사이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형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계열들이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의 검정은 벡터자기회귀 모형(VAR, vector autogression model)을 이용한 Johansen의 최우도검정법을 활용함.
- VAR모형은 내생변수의 배열순서에 따라 분석결과가 예민하게 변화하고 상이한 충격반응분석 결과가 도출된다는 중대한 결점이 있으며, 비교적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변수들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VEC)을 이용하고자 함.
- 모형분석을 위한 수출실적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66개를 관측치를 확보하였음.
  - 신선농산물의 경우 채소류, 인삼류, 화훼류, 과일/견과류, 버섯류, 축산물(육류), 가금육의 수출량을 합산하여 신선농산물의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가공식품은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음료, 커피류의 수출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 가격지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기준년도 2010년)로부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해당 품목에 대한 가중평균가격지수를 추출하여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평균 자료를 산출하였으며, 엔화 환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매월 100엔당 원화 평균 자료를 이용함.

#### 나. 분석결과

- 설정된 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신선농산물의 경우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는 엔화 환율 하락시 수출이 감소함을 의미함.
  - 또한, t-1시점과 t-2시점의 엔화 환율은 현 시점(t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t-1)와 전전기(t-2) 엔화 환율의 상승은 생산 및 수출업자들을 자극하여 수출이 늘어나도록 작용하게 됨.

표 4-28.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 신선농산물

항목	계수	t-통계량
종속변수 DFEX <sub>t</sub>	공적분향	-0.0053**
	DFEX <sub>t-1</sub>	-0.9344**
	DFEX <sub>t-2</sub>	-0.4935**
	DFFP <sub>t-1</sub>	-1.3630**
	DFFP <sub>t-2</sub>	-0.9715**
	DYEN <sub>t-1</sub>	0.0635**
	DYEN <sub>t-2</sub>	0.0566*
	상수항	0.3214
공적분 관계식	$FEX_t = 146.93 - 472.04^{**} FFP_t + 6.77^{**} YEN_t$ (-11.81) (2.83)	
Log-likelihood		-674.68
AIC		8.428
SIC		8.581

- 주 1) DFEX<sub>t</sub>는 신선농산물 수출액, DFFPI는 신선농산물 국내평균가격지수, DYEN<sub>t</sub>는 엔화 환율임.  
 2) 공적분향 식 아래의 ( ) 내는 공적분관계식의 설명변수 계수의 t값을 나타냄.  
 3)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의미함.



- 가공식품 수출의 공적분 관계식을 보면, 가공식품 수출액에 가공식품 국내 평균가격지수와 엔화 환율 모두 장기 공적분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할 수 없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VAR모형을 적용하였음.
  -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공식품의 국내 가격과 엔화 환율의 변화는 가공식품 수출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함.

표 4-29. 공적분과 벡터자기회귀모형 적용 결과: 가공식품

항목		계수	t-통계량
종속변수: PEX <sub>t</sub>	공적분항	-	-
	DPEX <sub>t-1</sub>	-0.5583**	-7.39
	DPEX <sub>t-2</sub>	-0.3713**	-4.90
	DPFPI <sub>t-1</sub>	-3.7260	-1.31
	DPFPI <sub>t-2</sub>	-0.0082	-0.00
	DYEN <sub>t-1</sub>	-0.0227	-0.58
	DYEN <sub>t-2</sub>	0.0371	0.95
	상수항	3.1413	
공적분 관계식	$PEX_t = -0.2033 - 2.8186PFPI_t - 0.0018YEN_t$ (-1.45)                      (-0.07)		
Log-likelihood		-702.04	
AIC		10.096	
SIC		10.229	

- 주 1) PEX<sub>t</sub>는 가공식품 수출액, DPFPI<sub>t</sub>는 가공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 DYEN<sub>t</sub>는 엔화 환율임.
- 2) 공적분항 식 아래의 ( ) 내는 공적분관계식의 설명변수 계수의 t값을 나타냄.
- 3)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의미함.

- 결국, 신선농산물의 경우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며, 전기와 전전기 엔화 환율은 현 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농산물 수출과 엔화 환율 변동은 상당히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었음.

- 반면, 가공식품 수출액은 국내가격지수와 엔화환율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즉, 신선농산물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특정국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엔화 환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가공식품은 수출국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일본시장 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중국 등과 같은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일정 정도 수출국 다변화를 도모하여 환율 변화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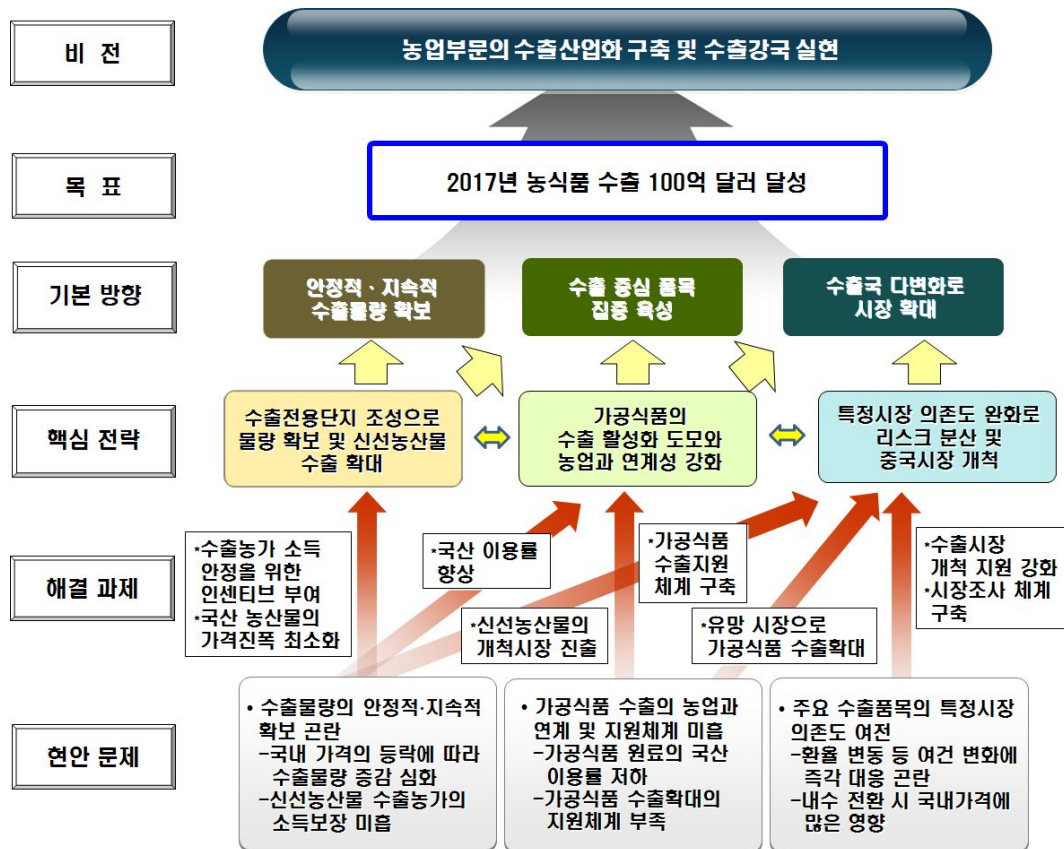
###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 1. 농식품 수출진흥의 비전과 기본방향

- 2~4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농식품 수출 진흥의 최종 비전은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 및 수출강국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7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목표로 정하도록 함.
- 현재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앞의 2~4장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파악된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국내가격 상승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출물량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임.
  - 둘째, 가공식품 수출이 농업부문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체제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셋째, 수출 다변화가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목의 대일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 회피에 취약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지속적 수출물량 확보 기반 조성, 수출 중심 품목의 집중 육성, 수출국 다변화로 시장 확대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목표 달성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설정된 기본 방향의 핵심 전략으로는 우선, 농식품 수출전용단지 조성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된 농가가 전량 수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국산 농산물 가격진폭을 최소화하여 국산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가공식품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 수출품목의 특정시장 의존도 존재 문제는 수출시장 개척 지원의 강화와 시장조사 체계 구축, 수출유망 해외시장 개척(특히, 중국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상기 각각의 해결 과제는 공통된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수출농가 소득 안정 보장, 국산 농산물 가격진폭 최소화로 국산 이용률 향상, 신선농산물의 해외개척 시장 진출 확대는 수출전용단지 조성의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국산 이용률 향상과 가공식품 수출지원 체계 구축은 가공식품 수출활성화의 추진 전략이 될 것이며, 수출시장 개척 지원의 강화와 시장조사 체계 구축, 유망 해외시장으로써 중국시장을 개척한다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식품 수출진흥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수출전용단지 조성,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중국시장 개척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림 5-1. 농식품 수출 진흥의 비전과 기본 방향



## 2. 농식품 수출진흥의 중장기 세부 추진 과제

### 2.1.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전용단지 조성

#### 2.1.1. 조성의 필요성과 수출농가 의향

○ 정부는 안정적 수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지정 개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원예전문생산단지수는 2007년 183개소에서 2008년 159개소, 2010년 155개소, 2012년 154개소 감소하고 있음.
- 또한, 단지 내 소속 농가 가운데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수 비중은 2007년 52.3%, 2008년 46.4%, 2010년 44.5%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1년 57.1%로 일시 증가하였음.
-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있으나, 단지 생산물량 가운데 수출물량 비중은 2009년 25.0%에서 2010년 25.9%, 2011년 35.4%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농가 당 수출물량은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만으로는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더욱이 신규 유망 수출품목 발굴 시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확보되어야 하나, 기존의 원예전문단지는 수출 중심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재배지 확보가 곤란하게 됨.
- 한편, 현재 원예전문생산단지는 단지규모 및 수출물량 확대, 계약재배, 공동선별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표준물류비의 7~10%)하고 있으며, 생산단계 안전지도·품질관리 등을 위해 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안전지킴이 채용을 지원(인건비의 60%)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원으로는 수출확대의 유인책이 되기는 미약한 상황으로 수출과 내수 판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수출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물량의 안정적·지속적 확보는 물론,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특히,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수출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전용단지’를 지정하여 출하되는 농산물을 전량 수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출전용단지 구성에 대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수출농가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수출 중심의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한 후 여러 가지 정부지원을 추가해줄 경우 도입에 찬성하는 농가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94.4%로 조사되었음.<sup>52</sup>

표 5-1. 수출농가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의향

단위: %

	찬성	반대	계
비중	94.4	5.6	100.0

자료: 2012년 수출농가조사결과.

- 금년(2013년) 원예전문단지 조사에서는 75.7%가 수출전용단지 조성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도입되더라도 지정 받을 의향이 없는 단지는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지정에 찬성하는 원예전문단지의 경우 현재 원예전문단지의 지원 수준에서도 지정받을 의향이 있는 비중이 10.1%인데 비해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보장해주는 등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수출전용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향은 65.7%로 상당히 높음.

<sup>52</sup> 본 조사는 2012년도에 과제(박기환 외, 2012)를 수행하면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항목이나, 해당 과제 보고서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음.

표 5-2.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식품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의향

단위: %

	비중
어느 정도까지 소득수준을 보장해 주는 등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출전용단지로 지정받을 의향이 있음	65.7
현재 원예전문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수준(물류비 인센티브 지급, 안전지킴이 채용 지원, 해외선진농업기관 현장 교육 지원 등) 하에서 수출전용단지로 지정받을 의향 있음	10.1
수출전용단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음	14.1
지정받을 의향이 없음	5.1
잘 모르겠음	4.0
기타	1.0
계	100.0

자료: 2013년 원예전문단지 조사결과.

-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40.0%로 반대(30.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3. 수출업체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의향

단위: %

	찬성	반대	잘 모름	계
비중	40.0	30.0	30.0	100.0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결국, 현재 운영 중인 원예전문단지로는 지속적·안정적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해당 단지조차 인정하고 있어 수출전용단지 지정 제도는 도입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대비 수출단가의 저위 문제, 까다로운 수출 절차, 추가 물류비 부담 등 전량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전량 수출에 의한 일정 수입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함.



## 2.1.2. 선정 조건 및 단계별 운영 방향

### 가. 지정대상 및 품목

- 지정대상은 원예전문단지, 수출품목 개별 생산농가,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생산농가, 유망 수출품목 신규 재배농가 등이 다양할 수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원예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일반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출품목의 안전성 관리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원예전문단지 조사결과에서는 정부의 수출전용단지 지정 방식에 대해 원예전문단지 소속농가의 전체 동의를 얻어 단지 자체를 수출전용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38.6%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원예전문단지의 소속농가의 의견을 물어 찬성하는 농가를 개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23.8%로 많았음.

표 5-4.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전용단지 대상 지정 방식에 대한 의향

단위: %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가의 전체 동의로 단지 자체를 지정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가의 의향에 따라 개별 농가로 지정	단지 전체 혹은 개별 농가로 지정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 수출농가 포함하여 희망농가 지정	잘 모르겠음	계
비중	38.6	23.8	16.8	13.9	6.9	100.0

자료: 2013년 원예전문단지 조사결과.

- 그렇지만 농가 전체의 동의를 얻어 단지 자체를 수출전용단지로 지정하는 방식은 전체농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찬성하는 농가들만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경우 수출전용단지의 의미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수출전용단지에 구성되는 수출농가들에게 수출전용단지 운영의

취지와 참여자의 인센티브 및 지원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수출전용단지 지정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야 함.

-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품목으로는 현재 수출되고 있는 신선농산물, 향후 수출 유망 농식품,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농산물 등 다양한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음.
- 우선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되는 품목이 다양하나, 이중 실적이 적은 품목도 많아 전체 수출품목을 지정 대상품목으로 할 경우 효율적 관리가 곤란해져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려움.
  - 이 때문에 지정 대상품목은 기존의 수출 농산물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최근 3년간 수출실적 25만 달러 이상(현행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조건은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 달러 이상)이면서 원예전문단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생산자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을 선정할 경우 보다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농산물은 직접적인 수출이 아닌 가공을 통한 간접적 수출로써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신선농산물보다는 가공식품 수출비중이 크게 높은 상황에서도 수출전용단지 지정 대상품목으로 설정을 고려해야 함.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경우도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품목으로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출용 가공식품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국산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김치나 유자차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과자나 음료, 커피 등의 경우 대부분 수입 이용률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대상품목에 수출용 가공식품 원재료를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제도 확장 시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표 5-5. 수출업체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품목 의향

단위: %

	현재 수출이 많은 신선농산물 중심	현재 수출이 많은 신선농산물 + 수출용 가공식품 원재료	현재 수출이 많은 신선농산물 + 수출용 가공식품 원재료 + 향후 수출유망품목	계
비중	19.0	42.9	38.1	100.0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따라서 위의 선정 대상과 대상품목의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정 지표로는 원예전문단지 지정 등 집단화 정도(물류의 효율성), 해당 품목의 생산자 협의회 등의 구성 여부(조직화), 품질 제고(안전성 관리 의무 여부) 등이 될 수 있음.

#### 나. 운영 방식

- 원예전문단지 조사결과, 수출전용단지 도입방식에 대해 1~2개 품목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69.1%로 크게 높음.
- 수출전용단지 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며 생산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전용단지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것임.

표 5-6.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전용단지 운영 방식에 대한 의향

단위: %

	우선 1~2품목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후 보완을 통해 점차 확대	지정을 희망하는 품목을 전체 선정	운영 방식은 상관 없음	기타	계
비중	66.7	30.3	1.0	2.0	100.0

자료: 2013년 원예전문단지 조사결과.

- 따라서 수출전용단지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후 단계별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 이에 따라 수출전용단지 지정 운영 방식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이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함.
  - 1단계: 시범 도입 단계로 선정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
  - 2단계: 1단계 시범 품목+주요 수출품목 확대+발굴된 유망수출 품목
  - 3단계: 2단계 품목+수출용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 농산물(예컨대 김치의 원재료 배추, 고추장의 원재료 고추)로 확대
- 수출전용단지 지정의 1단계(시범 도입 단계) 대상품목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 2개 이상 공통분모를 포함하는 품목으로 함.
  - 각 선정 조건에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첫째, 원예전문단지 대상품목으로 비교적 집산화 되어 있는 장미, 백합, 국화, 딸기 등을 들 수 있음.
  - 둘째, 관련 생산자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으로 백합, 파프리카, 사과, 배, 버섯 등이 있음.
  - 셋째, 일본의 ID 관리나 대만 안전성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사과, 배임.
  - 이 가운데 2개 이상 공통분모가 있는 품목은 백합, 파프리카, 사과, 배이며, 이 가운데 1~2품목을 선정하도록 함.
-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대상품목을 선정하게 되면, 이를 운영하게 될 주체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장 바람직함.
  -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현재 정부의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를 거의 대부분 대행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원활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 참 고 >

- 수출전용단지 운영품목을 선정할 때 원예전문단지 내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원예전문단지 조사결과, 수출경험이 있는 원예전문단지(혹은 농가)에서 생산한 품목 가운데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과채류 중 딸기(81.2.0%)와 파프리카임(64.2%).
  - 과실류 중에서는 배(52.6%), 단감(50.6%), 핵류 중에서 백합(57.0%), 심비디움(51.7%)이었음.
  - 수출품목의 생산단지 및 수출 집적도 측면에서 품목 부류별 1차 대상 품목은 딸기, 파프리카, 배, 단감, 백합, 심비디움을 고려할 수도 있음.

### 2.1.3. 정부지원 방향

- 수출전용단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정 품목의 수출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원예전문단지 설문조사에서도 단지 지정의 전제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았음.<sup>53</sup>
  - 수출농가나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도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 ‘정부지원 부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sup>54</sup>

<sup>53</sup> 표 5-2 참조.

<sup>54</sup> 표 4-1 및 표 4-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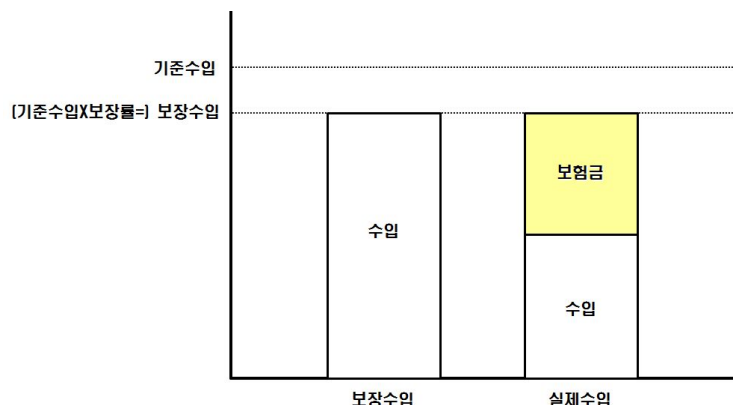
- 농식품은 수출 시 농가소득이 내수 판매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생산량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수출단가나 비용 등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안정적 소득확보가 곤란한 단점이 있음.
  - 이 때문에 농가에게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출을 통해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정부는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산자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농업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현재 몇몇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시행 중에 있음.
  - 수입보험제도 도입 시 도상연습 대상품목의 평균 수입은 증대하고, 변동계수는 하락하여 수입이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수입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므로 해당 농산물 품목의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촉진 효과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 수준은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sup>55</sup>
- 따라서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이 되는 품목이 수입보험제도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수출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의 수출의욕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sup>55</sup> 정원호(2012), pp.8-9.

### < 수입보험제도 개요 ><sup>56</sup>

- 수입보험은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산자의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손해보험임.
  - 가격변동과 수량변동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의 변동만을 고려하는 가격보험이나 수량(재해)보험과 달리 농업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음.
- 수입보험은 농식품부가 2012년 7월 ‘수입보험 도입방안 검토 TF’를 운영한 이후 수입보험 상품설계 등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으며, 2013년 3월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1차 수입보험 도상연습이 실시되고 있음.
  - 대상농가는 40개 지역 800여 농가이며, 대상품목은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이상 수입보험), 배추(가격보험)임.
- 수입보험의 가입방식은 개별농가의 품목단위 임의가입이며, 설계방식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격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임.
  - 지급보험금은 보장수입에서 실제수입을 뺀 금액으로 보장수입 = 개별농가의 기준수확량 × 기준시장가격 × 보상율, 실제수입 = 개별농가의 수확기 실제수확량 × 실제시장가격임.



<sup>56</sup> 농업수입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정원호(2012)를 참조하였음.

- 수출전용단지 제도 시행 시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지원책 가운데 농업수입보험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업체들의 수출 시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기상이변 등의 원인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가격안정보험제도의 재도입 요구가 많음.<sup>57</sup>
- 따라서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혹은 기금 형태)제도 도입으로 국내 가격 급등 시 지원을 통해 일정부분 수출단가를 인상해 줌으로써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적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sup>58</sup>

표 5-7.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 의향

단위: %

	찬성	반대	계
수출농가	89.7	10.3	100.0
수출업체	83.7	16.3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정리.

57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농식품의 수출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가격상승보상보험을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당시 보험의 가입대상품목은 배추, 무, 파프리카, 파리고추, 감귤, 배, 딸기, 토마토, 장미, 백합, 국화, 팽이버섯, 김, 굴 등 품목 및 그 가공품이었으며,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1천만 원~1억 원)으로 보험료의 90%는 정부지원(자기부담 10%)으로 이루어졌음(박기환 외(2012), p.147).

58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기환 외(2012)를 참조.



- 또한, 품목에 따라서는 연중 생산이 필요하거나 수출시장의 주요 소비시기에 맞추기 위해 난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유류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밖에도 수출 유망품목의 경우 신규 재배 시 종자(종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하며, 정부의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수출전용단지 지정에 한해서는 첨단온실 설치 시 보조를 일부 포함시키는 등의 지원조건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5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4년 이후
계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용자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 사업대상자: 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국고 용자 100%
  - 일반유형: 2ha 이하(금리 1%, 철골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 3년거치 7년상환), 2~3ha(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 3ha 초과(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이와 같이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농가의 수출 의욕 고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써 수입보험제도와의 연계,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기금) 제도 도입, 유류비나 종묘비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정부 예산의 제약이나 수출하지 않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한 지원 방안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지원 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장 중요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원예전문단지 및 수출업체 조사결과, 정부가 수출전용단지 제도를 운영할 경우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농가 소득보장에 대해 우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5-8. 수출전용단지 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원 항목 우선순위

단위: %

	원예전문단지		수출업체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전량 수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수출전용단지 지정 농가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입(매출액)보험제도' 도입	1순위	34.4	1순위	27.6
국내가격과 수출단가의 차이 발생 시 일정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해 주는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	2순위	27.7	3순위	22.8
수출물류비의 추가 지원	3순위	10.6	2순위	23.6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4순위	9.6	4순위	6.3
수출시장의 성수기에 맞추기 위해 작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난방이 필요하게 될 경우 유류비 일부 지원	5순위	8.2	5순위	5.5
수출시장의 선호에 맞는 품종 식재 시 종묘비 일부 지원	6순위	4.1	7순위	4.7
수출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기술, 경영, 수출전략 등) 비용 지원	7순위	3.5	9순위	1.6
수출국가의 검역 기준에 맞는 농약이나 천적 등 사용 시 비용의 일부 지원	8순위	2.0	5순위	5.5
기타	-	-	8순위	2.4
계	-	100.0	-	100.0

자료: 2013년 원예전문단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국내가격과 수출단가의 차이 발생 시 일정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해주는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은 원예전문단지는 2순위로 선택한 반면,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의 추가 지원을 2순위로 선택하였음.
  - 그러나 수출업체가 선택한 2순위와 3순위(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의 비중 차이는 크지 않으며, 원예전문단지의 3순위는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으로 나타났음.
  - 수출전용단지 농산물의 가격 및 소득보장 등의 지원 이외에 개보수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유류비나 종묘비 일부 지원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음.
- 따라서 수출전용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농가들의 출하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1.4. 페널티 제도

- 수출전용단지 도입은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지정 받는 생산자가 전량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전환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페널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원예전문단지 및 수출업체 조사에서는 수출전용단지 참여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수출전용단지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페널티 제도도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수출전용단지제도 운영을 통해 여러 가지 정부지원을 받은 지정농가(단지)가 수출전용단지 운영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일부물량을 판매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벌칙(페널티)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
  - 그러나 페널티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원예전문단지와 수출업체 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원예전문단지는 운영규정 위반 시 지원받았던 연도의 정부지원금을 반환하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6.0%로 가장 높은 반면, 수출업체는 1차 적발 시 지원받았던 당해 연도의 정부지원금을 반환하고 추후 2차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5.0%로 가장 높았음.

표 5-9. 수출전용단지 운영규정 위반 시 페널티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

단위: %

	원예전문 단지	수출업체
적발 시 지원 받았던 당해 연도의 정부지원금을 반환하고, 지정을 취소해야 함	26.0	35.0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추후 2차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22.0	10.0
1차 적발 시 지원 받았던 당해 연도의 정부지원금을 반환하고, 추후 2차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21.0	45.0
1차 적발 시 정부지원금을 삭감하고, 추후 2차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14.0	-
적발 시 지원 받았던 당해 연도의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정만 취소해야 함	1.0	5.0
벌칙(페널티)제도는 필요 없음	6.0	-
잘 모르겠음	6.0	5.0
기타	4.0	-
계	100.0	100.0

자료: 2013년 원예전문단지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원예전문단지의 의향은 수출업체에 비해 보다 엄격한 페널티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출전용단지는 수출물량의 안정적·지속적 확보 차원에서 운영하려는 제도이므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음.
- 따라서 수출전용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정부 지원 각종 인센티브를 삭감하고, 2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전용단지 도입 및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1.5. 예상되는 문제

- 기상이변,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국내 농산물 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안정 차원에서 긴급히 내수용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경우 수출전용단지 지정 농산물의 내수 출하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가격이 너무 높아 국내 출하가 필요할 경우 수출물량의 일정 부분을 국내시장으로 출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출물량의 국내 출하 가능여부 등은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협의회(생산자, 수출업자, 학계, 정책담당자로 구성)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2.2.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와 수출활성화 방안

### 2.2.1.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국산 원재료 사용 상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산 원재료 가격이 높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국산 원재료의 연중 안정적 확보 곤란이 40.0%로 나타나 가격과 물량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 때문에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가급적 국산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5-10.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용 가공식품 국산 원재료 사용 상 애로사항  
단위: %

	국산 원재료의 연중 안정적 확보 곤란	국산 원재료 가격 높아 이용 한계	국산 원재료 품질 저하	수출시장에 부적합한 품종	기타	계
비중	40.0	57.8	-	-	2.2	100.0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는 국산의 경우 외국산에 비해 높아 국산 원재료 사용 시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함.
  - 우선 국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한 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되는 수출물류비의 추가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해 줌으로써 국내 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필요에 따라서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11.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국산 원재료와 외국산간 가격 축소를 위한 지원  
단위: %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 우선 배정	우수농식품구 매지원 자금 신용대출 전환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 이자율 인하	국산 원재료 이용 업체의 물류비지원 확대	국산 원재료 이용 가공식품의 해외관측비 지원	계
비중	20.5	6.8	11.4	54.5	6.8	100.0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원재료 이용률 향상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산과 외국산 간의 가격차를 보전해 주는 수출용 농식품 가격안정보험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에 있어 또 다른 장애요인은 국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곤란하다는 것임.
  - 이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자와 계약 재배 시 농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으로 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속 파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또한,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을 업체에 배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12.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  
단위: %

	수출업체 일정물량 우선 배정	국산 원재료 생산자와 계약재배 시 농가에 세제 혜택	지역별 생산자 정보 제공 및 소개 알선	수출업체에 농지 장기 임대료 생산 직접 참여	기타	계
비중	34.9	53.5	7.0	-	4.7	100.0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정부가 농식품 수출전용단지 조성 시 이들 단지와 계약 재배하여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이용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수출전용단지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함.

표 5-13.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원재료 활용 의향  
단위: %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
비중	89.5	10.5	100.0

자료: 2013년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

## 2.2.2. 수출활성화 지원 방안

- 가공식품 수출은 국가 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 주체에 대기업과 중견기

업이 포함되어 있어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가공식품 수출의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보조)과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용자)이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인데, 국회예산정책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지원 수혜 업체 가운데 35% 내외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지원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반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공고를 통해 전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지원요건(수출증빙, 담보능력 등)만 충족하면 어떤 업체든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축소하고, 수출 의무액 또한 대출자금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 지원을 제한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여 실행 중임을 설명함.

표 5-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지원내역

단위: 개소, 백만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업체 수	지원액
대기업	3	21,415 (7.2)	3	22,039 (7.1)	3	27,647 (8.6)	3	27,647 (8.6)	4	28,747 (8.6)
중견기업	10	80,705 (27.0)	10	86,020 (27.5)	11	88,692 (27.6)	12	93,007 (28.9)	11	91,707 (27.4)
중소기업	141	197,085 (65.8)	151	204,096 (65.4)	167	204,753 (63.8)	173	201,546 (62.5)	175	213,746 (64.0)
계	154	299,155 (100.0)	164	312,155 (100.0)	181	321,092 (100.0)	188	322,200 (100.0)	190	334,200 (100.0)

주: ( ) 내는 지원액 계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자료: 조윤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3.



- 이처럼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수출농가 지원에 비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이 오히려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검토해야 함.
- 우선, 기존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김치, 홍삼, 전통주, 장류 등 비교적 국산 원재료 이용률이 높은 가공식품이 중심이며, DDA 협상 타결 여하에 따라 향후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선도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출유망품목의 시장개척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가공식품 수출증대와 국내 원료농산물 구매·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표 5-15.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유형별 기업 지원내역

단위: 억 원, %, 개수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중소기업	수출액	3,445 (59.8)	24	3,870 (62.4)	25	4,268 (64.7)	25	5,211 (60.6)	30	5,648 (57.3)	33
	업체수	141		151		167		173		170	
중견기업	수출액	1,508 (14.0)	150	1,430 (23.1)	143	1,166 (17.7)	106	2,119 (24.7)	176	2,074 (21.6)	188
	업체수	10		10		11		12		11	
대기업	수출액	808 (26.2)	269	900 (17.6)	300	1,166 (17.6)	388	1,261 (14.7)	420	2,132 (21.6)	533
	업체수	3		3		3		3		4	
계	수출액	5,762 (100)	37	6,201 (100)	37	6,598 (100)	36	8,591 (100)	45	9,855 (100)	53
	업체수	154		164		181		188		185	

주: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자금을 배정 후 잔여예산에 대해 대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우선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렇지만 중소기업 우선지원 제도 도입에도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원금리가 높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담보조달비용 감안 시 시중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현재의 지원 금리를 중소 수출기업에 한하여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한정된 자원 내에서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축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한편, 현행 지원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 형태로 추진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기술 자문과 수출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인프라 정비사업을 통해 인재확보사업, 푸드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sup>59</sup>
  -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수출시장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출용 가공식품 공동물류 시설을 국내외에 설치하는 수출물류 인프라 강화 사업의 전개를 고려해야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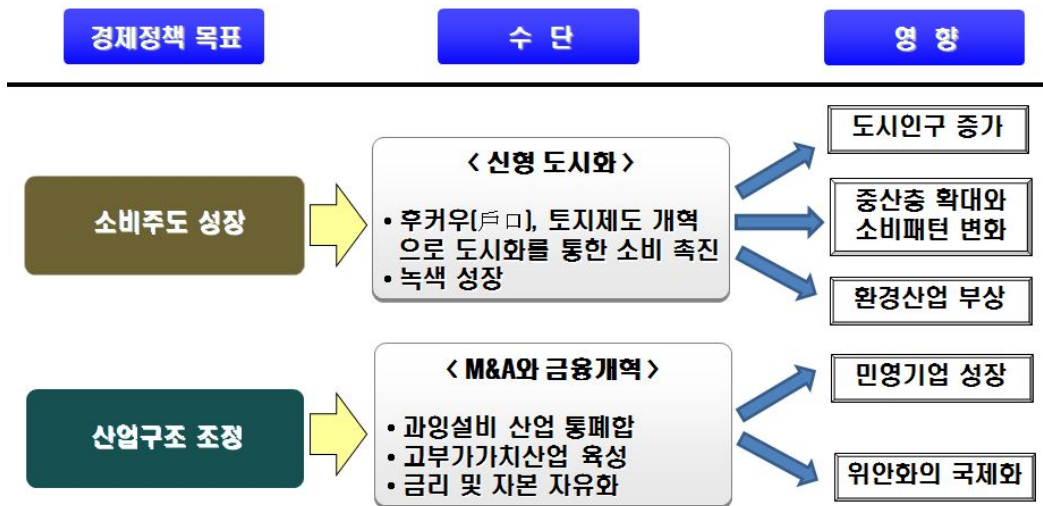
<sup>59</sup> 일본과 미국의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를 참조.

## 2.3. 수출시장 확대 방안으로서의 대중국 진출 전략

### 2.3.1. 중국시장 공략의 배경

- 농식품 수출시장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관계자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다변화되었으나, 주요 수출 농식품의 경우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이 때문에 특정국가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변화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수출시장 다변화는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거나 많지 않았던 국가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수출이 확대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를 적극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일 것임.
-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서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거대한 잠재 시장임.
- 더욱이 최근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리코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소비 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 중국 리코노믹스 경제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도시화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는 것임.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신형 도시화를 위해 40조 위안(약 6.5조 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신형 도시화는 스마트 시티, 녹색성장,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도시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도시화를 의미함.

그림 5-2. 중국의 리코노믹스 경제정책의 영향



자료: 엄정명,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SERI 경제 포커스」 제426호, 2013.

- 또한, 후커우(戶口) 및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 인구의 증가로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함.<sup>60</sup>
  - 현재 일부 도시 주민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후커우 제도를 도시 이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저축의 소비 전환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소유인 토지 경작권을 개인화하고 개인 경작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도시 이전을 촉진하는 계획도 수립 중임.
- 도시 수는 현재의 860개에서 2020년 60개가 증가한 92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수는 2020년 250개에 달하여 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sup>60</sup> 후커우(戶口)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나, 후커우는 사회보장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후커우가 이전이 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엄정명(2013), p.5).

표 5-16. 중국의 도시 수 증가 전망

	50만 이하	50만~150만	150만~500만	500만~1,000만	1,000만 이상	계
2012년(A)	597	168	69	12	14	860
2020년(B)	501	270	108	20	21	920
B-A	△96	102	39	8	7	60

자료: 임정명,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SERI 경제 포커스」 제426호, 2013.

- 도시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고부가가치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도시 주민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 연소득 11만~23만 위안의 중산층 가구는 2010년 1,400만 가구에서 2020년 1억 7,0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산층의 빠른 성장으로 2020년 중산층 소비 시장 규모는 4.5조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의 4.3조 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sup>61</sup>
- 이처럼 중국은 소비 주도의 질적 성장 정책 추진, 도시화의 빠른 진전,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한 중산층의 빠른 확산 등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상대적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타 국가에 비해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 측면에서 유리하며, 수송 시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선도 유지에도 강점이 있음.

61 임정명(2013), p.7.

- 최근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중국인들이 확대되는 이른바 한류 붐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이루어져 수출이 확대되는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sup>62</sup>
  - 현재 중국 소비자의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별 만족도는 프랑스 제품이 평균 4.22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한국 4.21점, 이탈리아 4.18점, 미국 4.18점 등의 순으로 이탈리아와 미국에 비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5-17. 중국 소비자의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별 만족도

단위: 점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미국	태국	일본
평균	4.22	4.21	4.18	4.18	4.10	4.06

자료: 농촌진흥청, 「한·중 FTA 대비 중국 소비자 농식품 시장 세분화」, 2012.

- 최근 중국과 FTA 협상이 추진 중에 있는데, 협상개시 선언 이후 7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제7차 협상에서 한·중 FTA 1단계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농수산협력, SPS)의 모델리티 협상이 타결되었음.
  - 상품분야에서 품목군은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일반 품목군은 ‘10년 이내 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하는데 합의하였다. 일반 및 민감 품목군의 자유화 수준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sup>62</sup> 한류와 같은 문화상품 수출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상품 수출은 가공식품 > 의류 > IT제품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문화상품 수출이 1% 증가하면, 가공식품은 0.07% 증가하며, 의류는 0.051%, IT제품이 0.03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한국수출입은행(2012), p.23).

- 2013년말 현 단계까지 한·중 FTA는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향후 2단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그림 5-3. 한·중 FTA 1단계 합의 품목군별 정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중 FTA는 농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큰 위협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기도 함.
- 이 때문에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국에 비해 고품질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는 대응책도 준비해야 함.
- 이와 같이 중국은 소득 향상과 정부의 소비 주도 정책 전환,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인접성, 한류 붐, 한·중 FTA 협상 추진 등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중국에 비해 고품질의 안전한 한국산 농식품을 적극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농식품 수출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3.2.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 가. 주요 표적시장(Target Market) 설정 및 시장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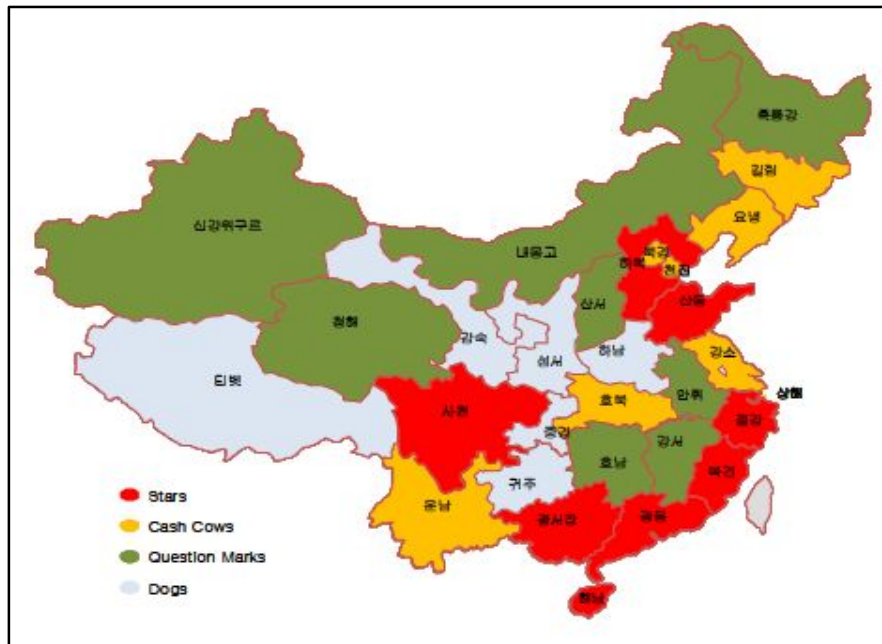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 지역 간 유통 장벽, 지역 간 기후·문화 차이 등으로 지역별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이 상이한 ‘단절된 분할시장’임.
  - 이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한 후 각 권역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재 수입규모와 증가율을 기준으로 BCG 매트릭스 모델을 활용하여<sup>63</sup>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은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64</sup>
  - 스타(Star) 권역은 수입 규모도 많고 증가율도 높은 지역으로 광둥, 산둥, 절강, 복건, 사천, 광서, 하북, 해남 등임.
  - 캐시카우(Cash Cow) 권역은 수입규모는 많으나 증가율이 낮은 지역으로 쑤 북경, 상해, 강소, 요녕, 천진, 길림, 호북, 운남 등임.
  - 퀘스천(Question Mark) 권역의 경우 수입 규모는 작으나 증가율은 높은 지역이 해당되며, 호남, 안휘, 흑룡강, 산서, 내몽고, 강서, 청해, 신장 등을 들 수 있음.
  - 도그(Dog)는 수입규모도 작고 증가율도 낮은 권역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남, 중경, 귀주, 티벳, 섬서, 감숙, 영하 등임.

63 BCG 매트릭스는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임. 상대적 시장점유율과 시장성장률을 기준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을 물음표(Question Mark), 점유율과 성장성이 모두 좋은 사업은 스타(Star),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이 낮은 사업을 캐시카우(Cash Cow), 점유율과 성장률이 둘 다 낮은 사업을 도그(Dog)로 구분함(국제무역연구원(2009), p.22).

64 BCG 매트릭스에 의한 중국시장의 권역별 구분은 국제무역연구원(2009)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그림 5-4. 중국의 성별 소비시장 구분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소비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수출 전략」, 2009.

- 스타 권역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최우선 공략시장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캐시카우는 시장 규모가 커 중국시장 진출의 안정적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임.
  - 물음표 권역은 적기에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며, 도그 권역은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진출위험이 매우 큰 시장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은 자연·지리적 차이, 경제발전의 수준과 식문화 차이 등이 있어 이러한 특성과 소비지출 데이터를 고려하여 5개 권역(동부연해 권역, 산둥 및 동북 3성 권역, 중부 신흥 성장권역, 서남부 성장잠재 권역, 서북부 경제 낙후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권역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5-18. 중국 5개 권역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해당 시·성
동부연해 권역	•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아 시장규모가 크며, 고소득 계층이 밀집하여 수입 농식품의 흡수력이 강한 지역	북경, 상해, 천진, 광둥, 절강, 강소, 복건, 허북
산동성 및 동북 3성 권역	•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조선족의 최대 거주 지역으로 한국 농식품의 신규 진입에 유리	산동, 요녕, 길림, 흑룡강
중부 신흥성장 권역	• 내수 확대 중심의 신성장전략에 따라 거점도시군을 육성하는 지역으로 최근 소비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지역	섬서, 호남, 호북, 강서, 한회, 산서, 하남
서남부 성장잠재 권역	• 서부대개발정책 추진의 거점도시군(중경시, 사천성)을 포함하며, 매운 맛을 선호하고 다양한 식문화, 특히 차문화가 발전한 지역	중경, 광서, 귀주, 사천, 운남, 해남
서북부 낙후 권역	•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낙후하여 소비확대 잠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이슬람문화권)이며, 물류비 부담이 큰 지역	감숙, 청해, 내몽골, 위구르, 영하, 티벳자치구

자료: 전형진 외,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 및 확대 전략”,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에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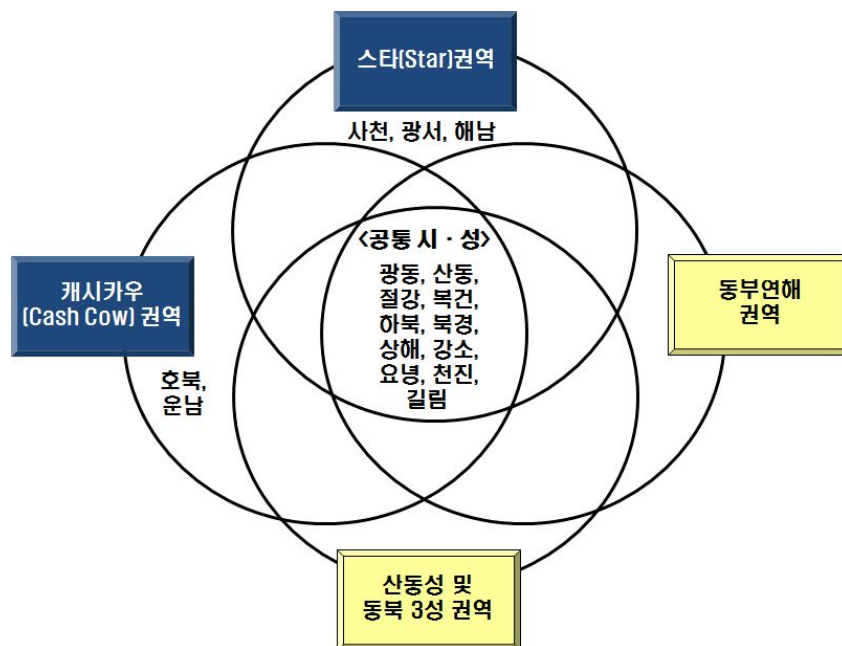
그림 5-5. 중국의 5대 권역별 농식품 수출시장 구분



자료: 전형진 외,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 및 확대 전략”,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BCG 매트릭스 모델에 의한 중국 소비시장 구분 및 지역별 특성과 소비지출 데이터를 고려한 5개 권역시장을 검토한 결과, 세부시장 가운데 주요 표적 시장을 설정할 수 있음.
- 즉,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스타(Star) 권역 및 캐시카우(Cash Cow) 권역과 경제수준이 높은 동부연해 권역 및 산동성·동북 3성 권역에 해당하는 시·성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설정 가능함.
  - 북경, 상해, 천진, 광둥, 산둥, 절강, 복건, 하북, 강소, 요녕, 길림성이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 지역임.

그림 5-6.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 지역 설정



- 수출확대 가능 지역은 주로 화동지방, 화남지방, 화북·동북지방에 속한 시·성인데<sup>65</sup>, 중국 가공식품 판매액 중에서 화동지방은 28.4%, 화북·동북지방

<sup>65</sup> 중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화북지방(북경, 천진, 하북, 내몽고자치구), 화동지방(상해, 안휘, 복건, 강소, 강서, 산둥, 절강), 화중지방(하남, 호북, 호남), 동북지방(흑룡강,

이 21.2%, 화남지방은 18.7%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방의 연평균 가공식품 판매액 증가율은 타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9. 중국의 행정구역별 가공식품 판매액 추이

단위: 10억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화동지방	184.1	204.5	221.8	250.0	285.4	327.7	12.2
화중지방	107.2	118.1	127.6	142.8	161.4	183.9	11.4
화북/동북지방	138.8	153.8	166.3	187.1	212.6	243.3	11.9
서북지방	34.0	37.3	40.2	44.8	50.6	57.5	11.1
화남지방	120.4	133.7	145.8	164.4	187.6	215.5	12.3
서남지방	76.1	83.6	89.7	99.8	112.4	127.3	10.8
계	660.1	731.0	791.5	888.9	1,010.0	1,155.2	11.8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이 때문에 이들 지방을 대상으로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이나 전망 등 관련 정보를 수입하여 파악한 후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중국 최대 소비시장인 상해가 포함된 화동지방은 수입식품 선호도가 높고 고품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육류제품이나 냉장·냉동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후가 타 지역보다 더운 화남지방은 아이스크림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소스류 등도 수출유망 품목으로 판단됨.
- 화북/동북지방은 중국 최대 도시인 북경과 조선족이 많은 동북3성이 포함되어 있어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장류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길림, 요녕), 화남지방(광둥, 해남, 광서장족자치구, 홍콩, 마카오), 서북지방(감숙, 청해, 섬서, 산서, 영하회족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서남지방(중경, 귀주, 사천, 운남, 티베트자치구)의 7개로 구분되고 있음.

표 5-20. 대중국 수출확대 타겟 시장의 특징과 전망

	시장 특징	향후 전망
화동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높은 구매력으로 수입식품 선호도가 높으며, 고품질과 세계적 트렌드 추종 경향이 강함.</li> <li>• 사무직 근로자와 국외 거주자들의 수요 증가로 건강과 웰빙 제품군들이 인기가 높음.</li> <li>• 가공육류와 육류제품, 냉동식품 등이 인기가 있는데 주로 여행객들에게 소비됨.</li> <li>• 가공식품의 온라인 유통 잠재력은 크나,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 등 점포기반 채널에 비해 뒤쳐져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안전성 및 원재료에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건강·웰빙 가공식품의 인기도 높아질 것임.</li> <li>• 인터넷 소매는 가장 유망한 유통경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간식류·충동구매 제품군의 가공식품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li> <li>• 가공식품산업은 고령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고칼슘 제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li> </ul>
화남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역보다 더워 아이스크림 소비가 팽창하였으며, 바나나 모양으로 디자인한 네슬레의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음.</li> <li>• 화남지방 소비자는 달고 달매운 양념류 소비를 즐기며, 광둥 지역 등 해안지역은 생선과 해산물 선호로 굴소스나 해산물 사용 스낵제품의 판매가 호조임.</li> <li>• 경제 성장으로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의 수가 타 지역보다 비교적 많으며, 가공식품 판매의 상당수는 이들 채널에 의해 이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건강·웰빙 가공식품이나 프리미엄 가공식품이 활발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li> <li>• 엄격한 식품안전정책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보이나, 선도업체들은 M&amp;A를 통해 집중화될 전망이다.</li> <li>• 화남지방 소비자들은 미디어와 정부정책 영향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에 민감한 트렌드로 변화할 것임.</li> </ul>
화북/동북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칼로리, 저설탕 제품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에 건강식 음식 코너가 신설됨.</li> <li>• 식습관 차이로 화북지방과 동북지방은 비스킷, 제빵류의 선호도가 높는데, 로컬 브랜드가 인기 있는 반면, 분유제품과 제과의 경우 수입브랜드 인기가 높음.</li> <li>• 북경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급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필수식품의 가격 인상이 심화되고 있음.</li> <li>•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터넷 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li> <li>• 스낵류는 이 지방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제품군 중 하나이며, 냉동가공식품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저지방 유제품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li> <li>• 인터넷 거래도 매우 빠른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낮은 가격과 배송 서비스로 인해 이유식과 초콜릿 제과제품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li> <li>•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므로 새로운 제품의 수용성이 높고 건강에 좋은 고품질 가공식품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될 것임.</li> <li>• 제빵류와 비스킷, 제과류, 유제품은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빈번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도기업들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li> </ul>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에서 재정리.

## 나. 수출 품목의 단계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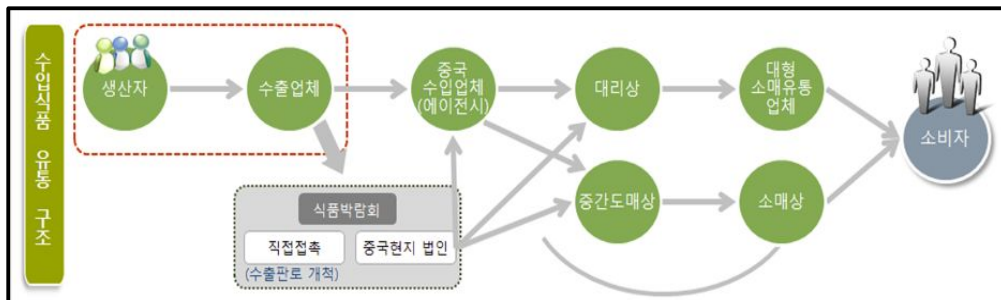
- 과채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은 중국의 검역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제한적임.
  - 만약, 대중국 수출을 위해 우리측이 요구한 특정 품목의 신선농산물의 검역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우리도 중국이 요청하는 품목의 검역을 해제해 주어야 함.<sup>66</sup>
  - 이때 국내 농업에서 중요한 품목의 검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출을 위해 국내 농업 기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중국 수출 확대는 수출이 가능한 신선농산물(예컨대 화훼류, 구근·종자류, 유자 등)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한·중간 검역 협상 결과에 따라 신선농산물로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의 가공식품 시장은 계속 신장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8.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가공식품 가운데는 유아용 식품이 14.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냉장식품 11.3%, 유제품은 9.2% 성장할 것으로 보여 이들 품목도 중국 진출의 전략품목이 될 수 있음.
  - 다만, 가공식품 중에서 대중국 전략 수출품목을 설정할 경우 농업과의 연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전용단지 지정 대상품목이 원재료로 활용되는 등 국산 이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6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파프리카(5단계), 참외, 단감, 딸기, 포도(5단계), 감귤, 토마토, 쌀의 검역 해제를 요청 중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여지(5단계), 용안, 사과, 배, 단호박(4단계), 소나무제재목을 요청하여 검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다. 중국시장 내 물류·유통인프라 확충

- 중국시장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시장 내 물류·유통망을 확보해야 함.
- 중국의 수입식품 유통경로는 대리상이나 중간도매상을 거쳐 소매유통업체·소매상, 최종소비자로 유통되고 있음.
  - 그러나 시간·비용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중국 내 대형유통망을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는 수입에이전시(벤더)를 통한 유통망 확보 추진이 효율적임.
  - 정부는 농식품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유통망 개척비용 및 대규모 유통망 입점 비용을 용자 또는 보조해 주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림 5-7. 중국 내 수입식품의 유통구조



자료: 농촌진흥청, 「중국 소비자 소비행태 분석 결과」, 2012.

-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신선도 유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국내 주요 권역별로 수출전진기지를 건립하고,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라. 비관세 무역장벽 해결 방안 마련

- 중국은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에 추가하여 수입통관 시 자국의 위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입국이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함.

- 즉, 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발급시일이 더 연장되고 있음.
  - 중국은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중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특성상 위생증명서 발급에 5일~2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예컨대 차 제품을 중국 대형매장에 납품하는 A사는 위생증 발급에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유통기한이 14일인 신선우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B사는 위생증 발급에 5일이 소요되어 수출에 애로를 겪었음.<sup>67</sup>
- 또한,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로 간주하여 100g당 대장균 수 30마리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김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특정 식품에 대한 과도한 검역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22개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sup>68</sup>
- 더욱이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따름.
  - 특히, 홍삼은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 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67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2013), p.30.

68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2013), p.31.



- 따라서 중국의 식품 수입통관 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 기준, 보건(기능)식품의 위생허가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은 대 중국 수출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중국 정부 간 협의로 이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 현재 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비관세장벽 포탈(<http://tradenavi.or.kr>)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를 접수시킨 후 해결 가능한 부분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함.
  
- 한편, 2013년 12월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협정문이 각료결정으로 채택되었는데,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은 국제시장에서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전반적인 거래비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식품의 교역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임.
  - 이 때문에 무역원활화의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중국시장 진출 확대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됨.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농식품 수출액은 2012년 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크게 신장되어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정부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농업부문 수출은 정부, 관련 기관, 농가 등의 노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수출물량의 지속적·안정적 확보가 곤란하여 수출단가 하락은 물론, 수출시장에서의 신뢰저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둘째, 농업부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등도 미흡함.
  - 셋째, 수출국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엔화 변동 등에 의해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수출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음.
  - 수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농식품 수출 동향과 부류별 구조 변화

- 농업부문 수출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나, 연평균 성장률은 농업부문(11.6%)이 국가 전체(10.1%)에 비해 높아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액은 2012년 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대비 3.7배나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부류별 수출은 신선농산물의 비중이 2012년 19.1%인 반면, 가공식품은 80.9%로 나타나 농업부문 수출의 상당부분은 가공식품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이는 수출구조가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단순히 수출하던 구조에서 가공을 거친 농식품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농업부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인 가운데, 대일 수출 비중은 1999년 56.2%에서 2012년 24.9%, 대미 수출 비중도 2004년 13.7%에서 2012년 8.4%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신선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가격 등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 때문에 IMF 관리체제 시기였던 1997~1999년간 수출은 11.9%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안정되자 수출은 다시 침체하여 2000~2004년간 연평균 1% 성장하는데 그쳤음.
  - 2008년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수출 100억 불 달성 대책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8~2011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4.6%로 어느 시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 신선농산물의 수출 주도 품목인 김치,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백합 등의 국별 수출 비중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일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임.
- 가공식품 수출은 2000년 5.6억 달러에서 2012년 25.8억 달러로 4.6배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공식품의 부류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농산가공품이 전체의 44.8%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기호식품 비중이 53.9%로 크게 확대되었음.
-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별 국별 수출 비중은 면류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중심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홍콩이나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특정 국가 의존도는 심하지 않은 편임.

#### ▣ 농식품 수출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최근의 수출 정체

- 주요 수출품목인 원예작물의 경우 채소 생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일과 화훼는 최근 들어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파프리카, 토마토, 사과, 단감, 육계는 대체로 재배 면적(사육두수)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기상이변 등의 영향이 없었다면, 수출물량 조달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인삼, 딸기, 장미, 백합, 배, 버섯, 배추, 고추 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수출품목이거나 수출품목의 원재료인 이들 작목들은 생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기상이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발생으로 2010년과 2012년 배 생산량이 급감하여 수출이 감소한 경우를 들 수 있음.
  -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경우도 2010년 기온이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김치 수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바 있음.
- 파프리카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이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어 수출물량의 지속적·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변화 등에 따라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적극적인 엔저 추진 정책으로 인해 엔화 환율은 그동안 1,300~1,400원대 수준에서 최근에는 1,100원선도 무너지는 등 급락한 상황임.
- 이와 같이 국내 주요 수출품목의 전반적인 생산 위축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불안정 요인 상존, 대외적인 경제 침체 현상 지속, 가장 중요한 농식품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정책 추진 등 농식품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내 생산 위축으로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특정 시장 의존도 심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시장 중심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 상황을 전망해 보면,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 내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전용단지 조성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출 영향의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주요 수출국의 경제 전망인데, 미국의 경우 201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은 3%대로 금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2014년 7.3%, 일본도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1달러당 엔화는 2014년에도 106엔 정도로 엔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엔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 현황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강점과 기회요인으로는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제도 운영, 농식품 수출 조직화 진전으로 인한 거래교섭력 강화로 평균적인 수출단가 상승 추세, 농식품 수출의 가공식품 중심 구조 변모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망, 특히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수출 여건 호전 등임.
  - 반면, 안정적·지속적 수출물량 확보 기반 미약, 특정시장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 부담 상존,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 일본 엔저 현상 지속 및 농업부문 생산 축소로 인한 수출물량 확보 여건 악화 전망 등의 약점·위협 요인도 있음.
  
- 따라서 농식품 수출의 강점과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면서 약점과 위협 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수출물량의 안정적·지속적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특정시장의 의존도 심화로 인한 리스크 부담 등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농식품 수출진흥의 한계 요인과 실태 분석

- 농식품 수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상관관계와 공급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 변동과의 상관계수는 1994~2012년 0.470, 2000~2012년은 0.840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산물 수출 공급반응함수 추정에서도 국내 농가판매가격이 1% 상승하면 對세계 농산물 수출물량은 0.1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출약속 불이행은 계약 이행 곤란으로 수출시장에서 신뢰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반면 국내 시세 하락 시 밀어내기 식 수출로 수출물량이 급증하여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 때문에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가격 등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애로를 겪게 되는 또 다른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까다로운 수출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에 비해 수출 시 농가소득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원예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출단가는 국내 출하용 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품목(파프리카, 딸기, 단감, 장미, 백합, 심비디움)도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낮게(방울토마토, 사과, 배, 국화) 형성되고 있어 품목별로 편차가 존재함.
  - 수출단가는 비교적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출에 따른 추



- 가 물류비가 소요(11~45%)되기 때문에 수출 시 경영비가 상승하게 됨.
  - 단가와 경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국내판매와 수출 시의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방울토마토, 사과, 배, 국화는 수출이 국내판매에 비해 소득이 낮은 반면, 나머지 품목들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소득 비교는 단기연도를 기준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서 수출 여건 변화에 따라 소득의 유리성 여부는 변화하게 됨.
  - 즉, 2012년 수출농가 조사에서는 수출 시 소득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비중이 16.9%로 불리하다는 농가(29.6%)보다 적었으나, 2013년 조사는 각각 29.5%, 25.3%로 유리하다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와 같이 수출은 수출국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생산량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수출단가나 비용 등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에게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가들이 수출을 통해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 전체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1.5%에서 2000년 65.0%, 2012년 80.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공식품이 농업부문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었음.
  - 가공식품이 농업부문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과자류, 면류, 소스류, 음료, 커피류 등은 원재료의 수입 의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도 농업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상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우수농식품구매지원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수출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일부 가공식품을 제외하면 해당 품목이 거의 없으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담보 설정 능력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가공식품의 수출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농산물 전체의 수출시장은 과거 특정시장 중심에서 관련 주체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상당부분 수출국 다변화가 이루어져 상위 3개국 집중도(CR<sub>3</sub>)는 2000년 62.0%에서 2012년 49.8%로 낮아졌으며, 허핀달지수도 동년 0.198에서 0.113으로 하락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국의 상위집중도는 상당수 품목이 80% 이상으로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 이러한 특정시장 의존도 심화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변화, 특히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농식품 수출과 환율 변동과도 연관성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92~2012년의 상관계수는 0.513, 2000~2012년은 0.647로 나타나 농산물 수출은 엔화 변동에 민감히 반응함을 알 수 있음.
  - 수출 공급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엔화 환율혜택이 1% 상승하면 대일 농식품 수출물량은 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엔화 환율과 농산물 수출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로 구분한 후 시계열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계측하였음.
  - 분석 결과, 신선농산물의 경우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며, 전기와 전전기 엔화 환율은 현 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공식품 수출액은 국내가격지수와 엔화환율 사이에 안정적·장기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일본시장 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중국 등과 같은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농식품 수출 진흥의 최종 비전은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 및 수출강국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2017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으로 정함.
  - 농식품 수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지속적 수출물량 확보 기반 조성, 수출 중심 품목의 집중 육성, 수출국 다변화로 시장 확대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목표 달성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책정된 정책 과제로는 첫째,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전용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원예전문생산단지는 생산물량 가운데 수출 비중이 2011년 35.4% 정도에 불과하며, 소속농가 규모도 0.4~1ha 내외로 영세하여 수출물량의 규모화에 한계가 있음.
  - 특히, 단지 내 농가의 수출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며, 수출업체와의 사전 계약재배도 미흡하여 안정적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수출물량의 안정적·지속적 확보는 물론,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수출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전용단지’를 지정하여 출하되는 농산물을 전

량 수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출전용단지 지정대상은 원예전문단지, 수출품목 개별 생산농가,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생산농가, 유망 수출품목 신규 재배농가 등 다양할 수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원예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시 대상품목으로는 기존의 수출 농산물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최근 3년간 수출실적 25만 달러 이상(현행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조건은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 달러 이상)이면서 원예전문단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생산자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을 선정함.
- 또한, 지정 대상과 대상품목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정 지표로는 원예전문단지 지정 등 집단화 정도(물류의 효율성), 해당 품목의 생산자협의회 등의 구성 여부(조직화), 품질 제고(안전성 관리 의무 여부) 등이 될 수 있음.
- 수출전용단지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정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후 단계별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 수출전용단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정 품목의 수출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우선, 수출전용단지의 지정품목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보험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또한,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상해주

- 는 가격안정보험제도의 재도입도 고려해야 하며, 유류비나 종자(종묘) 구입비 일부 지원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부 예산의 제약이나 수출하지 않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원 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장 중요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한편, 수출전용단지 도입은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지정 받는 생산자가 전량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전환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패널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즉, 운영규정 위반이 1차 적발되면 정부 지원 각종 인센티브를 삭감하고, 2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두 번째 정책 과제로는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을 들 수 있음.
- 가공식품의 국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의 추가 지원 확대가 요구되며,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의 우선 배당으로 국내 농산물을 구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국산과 외국산과의 가격차를 보전해 주는 수출용 농식품 가격안정보험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자와 계약 재배 시 농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과 함께 일정 물량을 업체에 배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수출전용단지 조성 시 이들 단지와 계약 재배하여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함.

-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된 현행 지원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 형태로 추진해야 함.
  - 즉, 수출용 가공식품 공동물류 시설을 국내외에 설치하는 수출물류 인프라 강화 사업의 전개를 고려해야 함.
  
- 세 번째 정책 과제로는 농식품 수출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수출의존도를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서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거대한 잠재 시장임.
  -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타 국가에 비해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 측면에서 유리하며, 수송 시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선도 유지에도 강점이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 지역 간 유통 장벽, 지역 간 기후·문화 차이 등으로 지역별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이 상이한 ‘단절된 분할시장’이므로 시장을 세분화한 후 표적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BCG 매트릭스 모델에 의한 중국 소비시장 구분, 지역별 특성과 소비지출 데이터를 고려한 권역시장 등을 검토한 결과, 수출확대 가능 지역은 화동지방, 화남지방, 화북·동북지방에 속한 시·성이라 볼 수 있음.
  - 이 때문에 이들 지방을 대상으로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이나 전망 등 관련 정보를 수입하여 파악한 후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과채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은 중국의 검역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대중국 수출 확대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한·중간 검역 협상 결과에 따라 신선농산물로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중국시장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시장 내 물류·유통망을 확보해야 함.
  - 중국은 아직까지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신선도 유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국내 주요 권역별로 수출전진기지를 건립하고,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식품 수입통관 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 기준, 보건(기능)식품의 위생허가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은 대중국 수출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중국 정부 간 협의로 이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 또한, 현재 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비관세장벽 포탈(<http://tradenavi.or.kr>)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사례를 접수시킨 후 해결 가능한 부분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함.
- 농식품 수출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안정적·지속적 수출물량 확보 곤란, 핵심 수출품목인 가공식품의 농업과 연계성 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 특정시장의 수출의존도 심화 등의 현안 문제 발생으로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분석한 문제 이외에도 수출진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이들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업부문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부록 1

---

#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의 엔화 환율 영향 분석

## 1. 분석 모형

### 1.1. 단위근 검정

- 임의보행(random walk)을 하는 경제변수에 임의의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어 불안정(nonstationary) 시계열의 형태가 나타날 경우 그 경제변수는 단위근(unit root)을 갖게 됨.
  - 이 경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 가성적 또는 허구적(spurious)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분석의 신뢰도 저하와 시사점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Augmented Dickey-Fuller(ADF)(Dickey and Fuller, 1981)를 이용하고자 함.
  - 이 방식은 단위근의 유무를 검정하고자 하는 시계열을 그 시차항(lagged term)과 일정 수의 시차차분변수(lagged differenced variable)에 회귀시킨 다음, 시차변수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단위근과 유의하게 다른지를 t-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하는 방법으로 이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단위근

이 존재한다”임.

## 1.2. ARDL모형

- 이 모형은 현 시점의 종속변수에 설명변수로서 종속변수의 시차항 즉, 자기회귀항과 독립변수의 현재항과 시차항을 포함하는 모형임.
  - 이에 따라 자기회귀를 이용하여 시계열의 자기상관을 모형에 접목하는 한편, 독립변수들의 시차항도 포함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현 시점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난 시점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또한 파악할 수 있음.
  - ARDL모형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Y_t = \alpha + \beta_0 X_t + \dots + \beta_p X_{t-p} + \delta_1 Y_{t-1} + \dots + \delta_q Y_{t-q} + \varepsilon_t$$

$Y_t$ ; t기 종속변수

$Y_{t-q}$ ; t-q기의 종속변수 시차항

$X_t$ ; 현재시기의 독립변수

$X_{t-p}$ ; t-p기의 독립변수 시차항

$\varepsilon_t$ ; 오차항

## 1.3. 공적분(cointegration)

- 불안정 시계열 사이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형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계열들이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시계열들이 단기적으로는 상호 괴리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함.
  - 만일 어떤 시계열자료변수가 수준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고, 이를 차분화하는 경우 단위근이 사라짐과 동시에 정상성(stationary)을 갖추게 되

는 경우 이를 적분계열,  $I(1)$  이라고 칭함.

- Engle-Granger 공적분 검정이 개념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써, 이는  $I(1)$  계열 변수들을 회귀에 적합시킨 후 잔차항이 정상성을 보이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임.
- 최근에는 불안정 시계열자료에 대한 분포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공적분 검정에 있어서 검정력(power of test)을 보다 향상시킨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들 중의 하나가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Johansen의 최우도검정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Johansen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불안정시계열들 사이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고자 함.

#### 1.4. 오차수정모형

-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이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현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른 변수들의 과거 관측치를 설명변수로 구성된 선형 방정식으로 구성되는 모형을 의미함.
- 이 모형은 경제변수들의 상호의존성 혹은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여 모형화하는데 적절한 도구임.
  - 특히, VAR모형은 간단한 구조를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시계열의 AR보다 훨씬 신축적으로 대상 변수들의 자기상관 구조를 모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변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적 이론과 지식이 없이도 순전히 변수들의 시계열적 형태에 기초하여 간단한 예측을 실행할 수 있는 유용한 시계열 모형임.
- VAR모형은 변수들 간 일방적 영향과 상호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한 변수의 단위당 충격에 따른 각 변수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충격반응

함수와 분산분해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널리 쓰이고 있는 분석방법임.

- 그러나 VAR모형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생변수의 배열순서에 따라 분석결과가 예민하게 변화하고 상이한 충격반응분석 결과가 도출된다는 중대한 결점이 있음.
  - 즉, 상호 연관되어 있는 충격들을 구조적 충격들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오차항들을 직교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수의 배열순서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VAR모형은 비교적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변수들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 오차수정모형(VEC)인데, 이는 불안정시계열 사이에 존재하는 공적분 관계를 모형에 포함한 제한된 형태의 VAR 모형임.
- 이 경우 공적분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항은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나타내며, 변수들의 시차항들은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냄.
- 불안정시계열들을 차분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든 후 VAR을 적용하게 되면 변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성적 결과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경우 차분화된 변수를 이용하면 이는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경우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VAR 모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임.
  - 예를 들어 두 개의 I(1)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변수들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
- $$y_t = \beta_0 x_t$$
-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고 시차항들이 모형에 포

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됨.

$$\Delta y_t = \alpha_0(y_{t-1} - \beta_0 x_{t-1}) + \varepsilon_{0t}$$

$$\Delta x_t = \alpha_1(y_{t-1} - \beta_0 x_{t-1}) + \varepsilon_{1t}$$

여기서  $\alpha$ 는 장기균형점에서 이탈했을 때 장기 균형점으로의 복귀 속도 즉 조정계수를 의미함.

## 2. 분석 자료

- 분석에 사용된 수출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http://www.kati.net))의 수출입통계자료를 이용함.<sup>69</sup>
  - 자료의 주기는 월별이며, 200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66개를 관측치로 확보함.<sup>70</sup>
  - 신선농산물의 경우 채소류, 인삼류, 화훼류, 과일/견과류, 버섯류(전체), 축산물(육류), 가금육의 수출량을 합산하여 신선농산물 변수를 만들.
  - 가공식품은 면류, 소스류, 주류, 과자류, 음료, 커피류의 수출량을 합산하여 가공식품 변수를 만들.
- 가격지수는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앞에서 언급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각각 7개 품목에 대한 가중평균가격 지수를 추출하였으며, 신선농산물 평균과 가공식품 평균자료를 산출함(물가지수의 기준년도는 2010년).

69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월별 주기의 시계열자료를 일괄적으로 다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음.

70 사용된 월별 자료의 단위는 달러임.

○ 엔화 환율은 100엔당 원화 자료로 매월 평균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추출함.

○ 사용된 다섯 개 변수의 기본통계와 단위는 다음과 같음.

부표 1-1.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및 단위

항목	신선농산물 수출	신선농산물 가격지수	가공식품 수출	가공식품 가격지수	엔화 환율
평균	43.041	90.036	123.794	86.202	1,102.673
표준편차	15.550	15.418	57.431	15.374	207.789
최소값	111.571	122.882	256.135	111.517	1,546.110
최대값	18.539	60.636	40.859	65.992	755.570
왜도	0.91	0.11	0.60	0.27	0.34
첨도	4.33	2.37	2.22	1.58	2.10
Jarque-Bera 정규성 검정	35.01	3.06	14.27	15.98	8.85
유의확률	0.000	0.217	0.001	0.000	0.012
단위	백만 달러	지수 (2010=100)	백만 달러	지수 (2010=100)	원/100엔

주: Jarque-Bera 정규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정규분포이. 표의 마지막 줄의 유의확률은 J-B 정규성테스트 결과에 대응하는 유의확률임.

○ 분석에 사용된 5가지 변수명은 바와 같이 영어약어로 표시함.

부표 1-2. 분석 변수명

	수준자료	차분자료
신선식품 수출액	FEX <sub>t</sub>	DFEX <sub>t</sub>
신선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	FFPI <sub>t</sub>	DFPI <sub>t</sub>
가공식품 수출액	PEX <sub>t</sub>	DPEX <sub>t</sub>
가공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	PFPI <sub>t</sub>	DPFI <sub>t</sub>
엔화환율	YEN <sub>t</sub>	DYEN <sub>t</sub>

### 3. 분석결과

#### 3.1. 신선농산물

##### 3.1.1. 수준자료를 이용한 ARDL 분석

- 신선식품의 수출, 국내 가격지수, 엔화 환율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수준자료에 적합시켰음.
- 본 추정에서 상수항을 비롯한 자기회귀 시차항, 설명변수 시차항의 포함 여부는 AIC나 SIC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변수의 유의성을 바탕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함.
  - 여기서는 예상되는 시계열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ARDL에서 어느 설명변수들이 현재시기의 신선식품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험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하였음.
  -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는 일반선형회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계수( $R^2$ )나 F-통계치 대신 우도함수(log likelihood)값과 AIC, SIC를 제시함.<sup>71</sup>

---

71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경쟁적인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로서 모형 선정의 근거로서 활용됨. 기본적으로 AIC는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의 복잡성과의 상충관계를 제시함. 이 통계치는 주어진 모형 하에서 얼마나 정보를 잃어버리는가를 제시해주며, 귀무가설이 없기 때문에 특정 수치 하나로는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 모형의 결과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함. 따라서 경쟁적인 몇 가지 모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종속변수는 현재시기의 신선식품 수출액(FEX<sub>t</sub>)이며, 선정된 설명변수는 지난시기의 신선식품 수출액(FEX<sub>t-1</sub>), 현재시기의 신선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FFPI<sub>t</sub>), 현재시기의 엔화환율(YEN<sub>t</sub>)임.
- 한편, ARDL분석 결과는 수준자료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만일 시계열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정상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성적 또는 허구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분석 결과는 단지 탐색적 분석으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부표 1-3. 신선농산물 수출의 ARDL분석 결과

	계수	<i>t</i> -통계량	유의확률
FEX <sub>t-1</sub>	0.3931	5.39	0.000
FFPI <sub>t</sub>	0.1157	1.90	0.059
YEN <sub>t</sub>	0.0144	2.83	0.005
Log-likelihood	-645.58		
AIC	7.862		
SIC	7.918		

### 3.1.2. 단위근 검정

- 시계열자료들이 불안정 시계열자료라면 한 변수의 다른 변수에 대한 영향 분석에 있어서 가성적 또는 허구적(spurious)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들의 정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근(unit-root)검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분석에는 Augmented Dickey-Fuller (ADF) (Dickey and Fuller, 1981) 테스트를 이용함.



- ADF테스트에 있어서 차분된 자기회귀시차는 SIC에 의해 선정하였는데, 추정식 설정에 있어서 수준자료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고, 1차 차분자료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음.
  - 여기서 ADF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한다”임.
  - 분석 결과, 다섯 개 변수 모두 수준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상성에 문제가 있음이 제시되었고, 1차 차분자료는 모두 단위근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차분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차분자료에 대해서 KPSS(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테스트를 실시하였음.
  - 이 검정의 귀무가설은 자료의 정상성인데, 다섯 개 변수 차분자료 모두에 대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는 다섯 개 변수 모두 1차 차분을 통해 자료의 정상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함.

부표 1-4.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 검정

		<i>t</i> -통계량	유의확률
신선농산물 수출액	수준자료	-0.22	0.932
	1차차분자료	-5.32	0.000
신선농산물 국내평균가격지수	수준자료	-0.99	0.756
	1차차분자료	-2.31	0.021
엔화 환율	수준자료	-1.77	0.393
	1차차분자료	-8.90	0.000
가공식품 수출액	수준자료	0.77	0.993
	1차차분자료	-9.95	0.000
가공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	수준자료	0.98	0.996
	1차차분자료	-3.33	0.001

### 3.1.3. 오차수정모형(VEC) 분석

- ARDL모형 분석결과에서 세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선형관계가 있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여 공적분(cointegration)의 관계와 VAR관계를 동시에 살펴봄.
  - 이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수들의 시차항이 대칭이 되도록 포함하는데, 최적의 시차 선정은 AIC 값을 기준으로 함.
  - 세 변수의 차분자료에 대한 VEC 모형에 있어서 2차항까지 포함하는 경우 가장 최적의 시차로 나타남.
- 한편, 본 연구는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장기 및 단기적으로 엔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수출액(FEX<sub>t</sub>)이 종속변수인 첫 번째 식의 결과만 제시함.
- 먼저 세 변수의 장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cointegration) 결과를 보면, 하나의 공적분 관계가 제시되었음.
  -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신선농산물 국내평균가격 지수는 음의 영향, 엔화 환율은 양의 영향을 미침을 의미함.
  - 즉, 신선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는 수출에 대한 노력이나 의지를 다소 약화시켜 수출을 줄어들게 만들음을 의미함.
  -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수출이 늘어남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이는 엔화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감소함을 의미함.
- 자료의 주기가 월별이기 때문에 t-1시점과 t-2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현 시점(t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자기회귀에서 음의 부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t-1시점과 t-2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t시점의 수출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이는 수출액이 단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다소 선형적인 모습보다는 단기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파도모양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함.
- t-1시점과 t-2시점의 신선농산물 국내평균가격지수는 현 시점(t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변수 모두 음의 부호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분 관계식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국내 신선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신선농산물 수출의 일부가 국내로 돌려져 전체 수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남을 의미함.
- 즉 장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전기(t-1)와 전전기(t-2)의 국내 신선농산물 가격 상승은 현재 시기의 신선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함.
- 엔화 환율의 영향을 보면, t-1시점과 t-2시점의 엔화 환율은 현 시점(t시점)의 신선농산물 수출액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즉, 장기적인 관계식에서도 나타났듯이 엔화 환율의 상승은 신선농산물 수출의 증가를 불러오며, 반대로 엔화 환율의 하락은 신선농산물 수출의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을 의미함.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기(t-1)와 전전기(t-2) 엔화 환율의 상승은 생산 및 수출업자들을 자극하여 수출이 늘어나도록 작용하며, 반대로 엔화 환율의 하락은 수출액의 국내 원화환산액이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생산 및 수출업자들의 수출 욕구가 저하됨.

부표 1-5.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 신선농산물

항목		계수	t-통계량
종속변수 DFEX <sub>t</sub>	공적분향	-0.0053**	- 3.41
	DFEX <sub>t-1</sub>	-0.9344**	-13.20
	DFEX <sub>t-2</sub>	-0.4935**	- 6.84
	DFFPI <sub>t-1</sub>	-1.3630**	- 2.52
	DFFPI <sub>t-2</sub>	-0.9715**	- 2.21
	DYEN <sub>t-1</sub>	0.0635**	2.00
	DYEN <sub>t-2</sub>	0.0566*	1.81
	상수항	0.3214	
공적분 관계식	$FEX_t = 146.93 - 472.04^{**} FFI_t + 6.77^{**} YEN_t$ (- 11.81) (2.83)		
Log-likelihood		-674.68	
AIC		8.428	
SIC		8.581	

주 1) DFEX<sub>t</sub>는 신선농산물 수출액, DFFPI<sub>t</sub>는 신선농산물 국내평균가격지수, DYEN<sub>t</sub>는 엔화 환율임.

2) 공적분향 식 아래의 ( ) 내는 공적분관계식의 설명변수 계수의 t값을 나타냄.

3)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의미함.

## 3.2. 가공식품

### 3.2.1. 수준자료를 이용한 ARDL 분석

○ 가공식품의 수출, 국내 가격지수, 엔화 환율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수준자료에 적합시켰음.

- 본 추정모형에서 상수항을 비롯한 자기회귀 시차항, 설명변수 시차항의 포함여부는 신선농산물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별변수의 유의성을 바탕으로 결정함.

- 여기서는 어느 설명변수들이 현재시기의 가공식품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험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시차항들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하였음.

-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는 우도함수(log likelihood)값과 AIC, SIC를 제시함.
- 종속변수는 현재시기의 가공식품 수출액(PEX<sub>t</sub>)이며, 선정된 설명변수는 지난시기의 가공식품 수출액(PEX<sub>t-1</sub>), 현재시기의 가공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PFPI<sub>t</sub>), 현재시기의 엔화 환율(YEN<sub>t</sub>)임.
- ARDL분석 결과는 수준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므로 만일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정상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성적 또는 허구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단지 탐색적 분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부표 1-6. 가공식품 수출의 ARDL분석 결과

항목	계수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항	-103.1476	-6.59	0.000
PEX <sub>t-1</sub>	0.4170	5.64	0.000
PFPI <sub>t</sub>	2.0827	7.30	0.000
YEN <sub>t</sub>	-0.0033	-0.37	0.715
Log-likelihood		-711.08	
AIC		8.668	
SIC		8.743	

### 3.2.2. VAR모형 분석

- 세 변수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적인 선형관계와 시차항들의 단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여 공적분(cointegration)의 관계와 VAR관계를 살펴봄.

- 먼저 세 변수의 장기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cointegration) 결과를 보면, 세 변수 사이에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가공식품 수출액에 가공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와 엔화 환율 모두 장기 공적분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공식품의 국내 가격과 엔화 환율의 변화는 가공식품 수출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함.
- 따라서 신선식품과는 달리 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VAR모형을 적용함.
- 최적의 시차 선정은 AIC 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차항까지 포함하는 경우 가장 최적의 시차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선농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공식품 수출액에 국내 가공식품가격지수와 엔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수출액(PEX<sub>t</sub>)이 종속변수인 첫 번째 식의 결과만 제시함.
- 변수들의 시차항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t-1시점과 t-2시점의 가공식품 수출액은 현 시점(t시점)의 가공식품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음의 부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t-1시점과 t-2시점의 가공식품 수출액이 t시점의 수출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수출액이 단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다소 선형적인 모습이기 보다는 단기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도모양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함.
- 한편, t-1시점과 t-2시점의 가공식품의 국내평균가격지수와 엔화 환율은 현재의 가공식품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1-7. 공적분과 백터자기회귀모형 적용 결과: 가공식품

항목		계수	t-통계량
종속변수: PEX <sub>t</sub>	공적분항	-	-
	DPEX <sub>t-1</sub>	-0.5583**	-7.39
	DPEX <sub>t-2</sub>	-0.3713**	-4.90
	DPFPI <sub>t-1</sub>	-3.7260	-1.31
	DPFPI <sub>t-2</sub>	-0.0082	-0.00
	DYEN <sub>t-1</sub>	-0.0227	-0.58
	DYEN <sub>t-2</sub>	0.0371	0.95
	상수항	3.1413	
공적분 관계식	$PEX_t = -0.2033 - 2.8186PFPI_t - 0.0018YEN_t$		
	(-1.45)	(-0.07)	
Log-likelihood		-702.04	
AIC		10.096	
SIC		10.229	

- 주 1) PEX<sub>t</sub>는 가공식품 수출액, DPFPI<sub>t</sub>는 가공식품 국내평균가격지수, DYEN<sub>t</sub>는 엔화 환율임.  
 2) 공적분항 식 아래의 ( ) 내는 공적분관계식의 설명변수 계수의 t값을 나타냄.  
 3) \*와 \*\*는 각각 5%, 10%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의미함.





## 부록 2

### 최근의 미국·일본·중국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 1.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sup>72</sup>

##### 1.1. FAS 수출촉진사업

- 미국 농무성 산하 해외농무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은 수출확대 프로그램을 총괄하는데, FAS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에서의 미국 농업 경쟁력 강화,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FAS 수출촉진사업은 마켓접근 프로그램,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품질샘플 프로그램, 특수작물 기술적 지원, 신흥시장 프로그램의 5종류로 구성됨.
-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은 미국 농업 상품 및 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개발, 확장 및 유지 보수를 위해 USDA의 상품 신용 공사(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자금을 사용함.

<sup>72</sup>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는 박기환 외(2012), pp.121-128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보완하였으며, 최근 2013년 자료로 업데이트하였음.

- MAP는 비영리 미국 농업 무역 협회, 비영리 미국 농업협동조합, 비영리 주 지역 무역 그룹, 중소기업 및 USDA CCC 간 협력, 해외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의 비용 공유 전시회, 시장 조사, 소비자 프로모션, 기술 지원, 무역 서비스 및 해외 고객에 대한 교육 세미나로 이루어짐.
- MAP 지원대상 품목은 쌀, 사과, 포도, 밀, 사료곡물, 쇠고기 등 약 35개 품목으로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임.

부표 2-1. 미국 시장접근프로그램(MAP) 참여단체 배정액(2013년)

단위: 달러

참여자(단체)	배정액	참여자(단체)	배정액
미국 경목 수출 위원회, 목재가공협회, 침엽수 수출 위원회, 나무 산림·제지 협회	8,848,831	애완동물 식품 연구소	1,216,247
알래스카 해산물 마케팅 연구소	3,846,657	건포도 관리 위원회	2,637,698
미국 땅콩 협의회	1,984,057	미국 남부 무역협회	4,813,336
미국 대두 협회	1,322,195	썬키스트 생산자단체	1,839,131
블루 다이아몬드 생산자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4,730,517	미국 낙농 수출협의회	4,688,104
캘리포니아 자두 협회	2,587,412	미국 건조 콩 협의회	1,257,472
캘리포니아 생포도 위원회	2,794,281	미국 곡물 협의회	7,155,338
캘리포니아 호두 위원회	3,722,211	미국 육류 수출 재단	14,745,842
국제 면화 협회	17,426,331	미국 밀 협회	5,859,064
크렌베리 마케팅 위원회	1,449,923	미국 가금류, 달걀 수출위원회	4,823,347
플로리다 밀감부	4,332,778	미국 쌀 연방/생산자협회	2,460,205
미국 중서부 식품 수출협회	10,484,368	워싱턴 사과위원회	4,554,909
미국 북동부 식품 수출협회	8,345,343	워싱턴주 과일위원회	1,395,839
국가 주립 농업협회	3,190,805	미국 서부 농업무역협회	8,184,708
국가 제과 협회	1,054,347	와인 연구소	6,973,231
국가 감자 프로모션 협회	4,749,666	기타	14,759,517
국가 해바라기 협회	996,298	계	172,732,770
북서부 배 사무소	3,502,762		

자료: USDA FAS(<http://www.fas.usda.gov>).

-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은 장기적인 수출시장의 유지, 창출, 확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USDA 상품신용공사(CCC)의 자금을 사용함.
- 이 프로그램은 USDA와 미국 농업 생산자, 가공업자 간의 비용 공유, 무역촉진을 육성해 왔으며, FAS는 비영리 무역단체와의 협력을 체결한 후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시장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함.
  - FMDP는 MAP와 유사한 제도이나 보다 장기적인 시장개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MAP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촉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FMDP는 주로 일반(bulk or generic) 농산물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목적은 소비자관측, 기술지원, 무역서비스, 시장조사와 같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임.
  - FMDP는 비영리 상품 및 농업무역협회가 미국의 무역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해외시장 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보조, 교역 서비스, 시장조사연구 등이 포함됨.

부표 2-2. 미국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FMDP)의 협력업체 배정액(2013년)

단위: 달러

협력업체	배정액	협력업체	배정액
미국 경목 수출 위원회, 목재가공협회, 침엽수수출 위원회, 나무산림·제지 협회	2,787,327	미국 밀 협회	4,146,134
미국 대두 협회	4,145,418	미국 가금류·달걀 수출 위원회	1,171,375
국제 면화 협의회	3,529,886	미국 쌀 협회	1,414,415
미국 곡물 협의회	3,277,058	기타	3,827,952
미국 육류 수출협회	1,106,364	계	25,405,929

자료: USDA FAS(<http://www.fas.usda.gov>).

- 품질샘플 프로그램(Quality Sample Program)은 미국 농업 무역 기관이 해외의 잠재적인 수입국에 제품 샘플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임.
- 특수작물 기술 지원 프로그램(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Program)은 미국 특수 작물의 수출을 위협하는 위생적·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특수작물(specialty crop)은 밀, 사료, 유채, 면화, 쌀, 땅콩, 설탕, 담배를 제외한 미국에서 재배된 모든 작물과 제품임.
  - TASC 보조금은 세미나와 워크숍, 학습 여행, 현장 조사, 해충과 질병 연구, 사전 통관 프로그램에 지원되며, 2008년 400만 달러, 2009년 710만 달러, 2010년 800만 달러,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 900만 달러를 제공하였음.
- 신흥시장 프로그램(Emerging Markets Program)은 미국 외교 정책과 함께 신흥 시장에 미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 활동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임.
  - 법률에서는 신흥시장을 국가경제의 식품, 농업, 농촌 사업부문을 통해 시장지향적인 경제를 향하여 가는 국가, 그리고 성장가능한 시장 미국의 제품과 농산품을 위한 성장 가능한 시장을 갖춘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정의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사업타당성 검토, 시장 연구, 산업 부문 이해, 특수한 기술과 비즈니스 워크숍 등이 포함됨.

## 1.2. 기타 수출관련 지원제도

- 미국은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 Credit Guarantees Program: ECGP)를 통한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ECGP는 미국 농산물 수입 국가를 대상으로 6개월~3년 이내의 단기시용 보증인 GSM-102와 3~10년까지의 장기신용보증인 GSM-103이 있으나, GSM-103은 2008년 폐지되었음.
  - GSM 프로그램은 미국 농산물 수출업자가 자국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 은행이 보낸 신용장을 통해 자국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우선 받게 되는데, 이 때 USDA의 상품신용공사(CCC)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우선 지불한 자국 민간은행에 대금상황을 보증해 주는 것임.
  - 또한, 미국 농산물 수입국은 미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제공받고,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이러한 수출신용보증제도로 인해 미국 농산물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시설보증 프로그램(Facilities Guarantee Program: FGP)은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설립하고 수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금은 CCC에서 2012년과 2013년에 1억 달러를 지원하였음.
-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지원 관련 정보는 USDA 해외농무국(FAS)의 무역지원계획실(Trade Assistance and Planning Office: TAPO)과 인터넷(<http://fas.usda.gov>)을 통해 수출업체와 생산자 등에 배포됨.
- 특히, TAPO는 FAS와 상품신용공사가 실시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농업무역관(ATO), 농무관 및 조사요원 등을 통해 수집된 국가별·품목별 해외시장동향 보고서를 정기간행물(AgExporter 등) 및 인터넷으로 수출업체와 생산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수입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무역장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정책 자료를 제공함.

-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자본금 3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기술 자문과 수출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US Export Assistance Center)와 수출법률구조 네트워크(Export Legal Assistance Network)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한편,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액은 2006년 총 18억 5,700만 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60억 3,700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해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표 2-3.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액 추이(2006~2013년)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FAS	246	268	163	170	187	192	183	183
MAP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FMDP	34	34	34	34	34	34	34	34
EMP	10	4	10	10	9	10	10	10
QSP	2	1	1	2	2	2	2	2
TASC	2	1	4	7	8	9	9	9
GSM-102	1,363	1,445	3,114	5,357	3,090	4,123	5,500	5,500
FGP	-	-	-	-	-	-	100	100
계	1,857	1,953	3,527	5,799	3,532	4,560	6,037	6,037

주 1) 수출지원제도 예산은 USDA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원액은 보조금, 보증 또는 대출, 비용분담, 전문 서비스, 현물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

2) 2012년 지원액은 추정치이며, 2013년은 재정절벽(fiscal cliff)법안에서 연장되었음.

3) GSM-102는 농업수출금액을 보증의 형태로 지원함.

4) FGP는 상품 및 서비스를 보증의 형태로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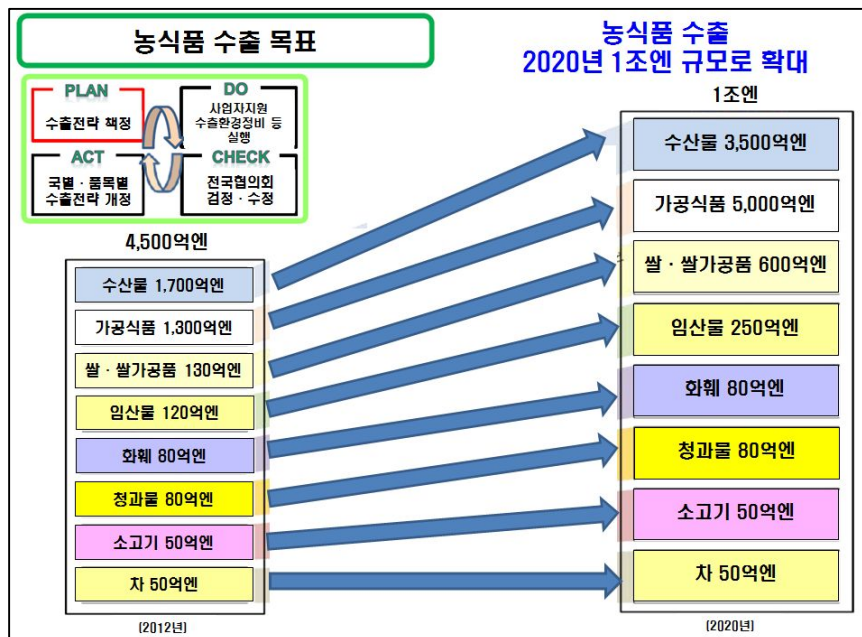
자료: USDA 예산 요약표(2006-2013년).

## 2. 일본의 2014년도 농식품 수출지원제도<sup>73</sup>

### 2.1. 농식품 수출목표와 품목별 전략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농식품 수출 1조엔 규모로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부그림 2-1. 일본의 농식품 수출목표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 일본 농식품 수출의 1조엔 달성을 위해 품목별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73 일본 농식품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기환 외(2012)에서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출목표와 품목별 전략, 2014년도 대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부표 2-4. 일본 농식품 수출의 품목별 전략

	수출목표 (억 엔)	수출확대 전략
수산물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마케팅</li> <li>-수출상대국의 움직임에 대응(원전폭발에 따른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위한 과학적 근거 설정 등)</li> <li>-양식생산물을 시작으로 일본 어류의 브랜드화 등</li> <li>▪ 품질관리수준 향상, 지원, 비즈니스모델 구축</li> </ul>
가공식품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료류(1,600억 엔)</li> <li>-미소, 간장 등 일본식품을 상징하는 콘텐츠 보급</li> <li>-신흥시장: EU,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브라질</li> <li>-안정시장: 미국, 대만, 한국, 홍콩, 호주</li> <li>▪ 과자류(쌀과자 이외), 청량음료수(1,400억 엔)</li> <li>-대형제조업체의 상품판매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 상품의 Japan Brand 확립 지원</li> <li>-신흥시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li> <li>-안정시장: 홍콩, 대만, 미국, 한국</li> <li>▪ 레토르트식품, 식물성유지, 면류, 건강식품, 우유·유제품, 알콜음료(日本酒 제외), 기타(2,000억 엔)</li> <li>▪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li> <li>-정부: 수출환경정비 추진</li> <li>-민간: 해외시장 니즈에 대응, 적극적인 시장 개척·시장전개 및 상품 개발·공급</li> <li>-JETRO: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강화</li> </ul>
쌀·쌀가공품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li> <li>-현지에서 정미, 외식 판매 등 일본쌀의 존재감 제고 추진</li> <li>-신흥시장: 대만, 호주, EU, 러시아 등</li> <li>-안정시장: 홍콩, 싱가포르</li> <li>▪ 쌀과자</li> <li>-상대국 니즈에 적합한 상품 개발, 스펙으로 프로모션 강화</li> <li>-신흥시장: 중동, 중국, EU</li> <li>-안정시장: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li> <li>▪ 일본 술</li> <li>-이벤트 사업 실시, 세미나 등을 통해 일본 술의 우수성 보급 및 술 제조에 적합한 쌀 증산 가능하도록 조치</li> <li>-신흥시장: EU, 대만, 중국, 브라질, 러시아, 한국</li> <li>-안정시장: 미국, 홍콩</li> </ul>
임산물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한국 목표시장 설정</li> <li>-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기술자 대상의 강연회 개최를 통해 인재육성, 일본산 목재 이용 촉진</li> <li>-산림조합이나 산지간 연휴로 공동 수출, 주년공급체계 구축</li> <li>-상설전시장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PR로 일본산 목재, 주택의 인지도 향상</li> </ul>



	수출목표 (억 엔)	수출확대 전략
화훼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목·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어 초청, 견본 시장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품목 개척</li> </ul> </li> <li>▪ 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간 연휴로 연간 안정적 공급 체계 정비, 품종식별 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li> </ul> </li> <li>▪ 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간 연휴로 연간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통일규격 및 로고로 Japan Brand 침투</li> <li>-전시회 개최 등으로 꽃문화의 효과적 발신, 장기간 수송에 견딜 수 있는 선도유지기술 개발·보급</li> </ul> </li> </ul>
청과물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전 사고로 인한 수입정지조치 해제, 검역 등 제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선도유지·장기보존기술 개발</li> <li>-신흥시장: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EU, 러시아, 중동</li> <li>-안정시장: 대만, 홍콩</li> </ul> </li> </ul>
소고기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해제를 위한 위생협약(러시아, 대만, 중국 등과 협의)</li> <li>-HACCP 등 시설정비 지원</li> <li>-할랄인증 취득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li> </ul> </li> </ul>
차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유기동등성 인증 취득</li> <li>-EU 지향의 GLOBAL GAP인증취득 지원</li> <li>-EU, 홍콩, 대만의 유기농약기준 대응</li> </ul> </li> </ul>
계	10,000	-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食品の國別·品目別輸出戰略」, 2013에서 재정리.

- 가공식품의 경우 조미료류나 과자류, 레토르트식품·면류·건강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출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들 품목별로 수출시장을 설정하여 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특히, 쌀은 쌀, 쌀과자, 일본술로 쌀 및 쌀가공품으로 분류하였으며, 신흥시장과 안정시장을 설정하여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화훼는 분재나 분화, 절화로 나누어 각 분류별 특성에 맞게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과물은 원전사고 이후의 수입정지 조치 해제를 중점 전략으로 선정하였음.

## 2.2. 2014년 수출촉진대책

### 2.2.1. 수출확대 등 글로벌한 식품 시장 획득

- 수출전략실시사업(신규)
  - 국별·품목별 수출전략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All Japan 수출촉진사령탑을 설치하고, 수출 관련 사업자의 참여 하에서 수출 전략 논의를 실시함.
  - 또한, 사령탑은 품목별 수출단체에 의한 수출확대 방침을 작성하고, 실효성 있는 산지간 조정이나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함.
  - 사업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며, 책정 금액은 1억 5,200만 엔임.
- 수출중대 프로젝트
  - JETRO와의 연휴강화를 통해 사업자 발굴부터 상담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비즈니스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농림어업자·식품사업자의 Japan Brand 확립과 산지간 연휴를 지원함.
  - 사업실시 주체는 JETRO, 민간단체 등이며, 17억 9,900만 엔의 위탁비가 산정되어 있음.
-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인프라 정비사업
  - 식품산업의 해외전개를 위해 각국의 식품 규격 기준·규제 등의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해외의 식품 비즈니스에 정통한 인재 확보·활용을 지원함.
  - 사업시행주체는 민간단체 등으로 예산은 1억 9,800만 엔임.
- 수출대응형 시설 정비
  - 식육·청과 관련 시설정비: 수출 청과물의 장기보존이 가능한 저온저장시설, 이슬람권 대응형 식육처리시설 정비 등을 지원함.
  - 국산 수산물 소비·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고도위생관리형 어항 정비를 지원함.

- 사업시행주체는 식육·청과 관련 시설정비의 경우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자 조직 단체이며, 어항 정비는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총 133억 9,000만 엔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일본식품·식문화 보급추진 종합대책
  - 요리학교, 해외급식사업자 등과 연휴하여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일본산 식재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1억 4,000만 엔임.
- 밀라노 국제박람회 정부출전 위탁사업
  - 2015년 밀라노 국제박람회의 정부출전을 위해 책정되었으며, 예산은 11억 엔임.
- 이밖에 수출촉진을 위한 식물방역대책, 가축위생종합대책 등이 있으며, 관련대책으로써 식품 품질관리체제 강화대책 사업도 있음.

## 2.2.2. 수출전략실행사업(신규) 및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

- 수출전략실행사업은 전략실행위원회 개최, 품목별 수출단체에 의한 수출확대 방침 작성 검토, 규제 담당자 초빙·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비용으로 1억 5,200만 엔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에는 사업자 지원 체계 강화, 해외 전시회 출전, 국내 상담회, 해외 매칭 상담회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은 10억 200만 엔임.

### 2.2.3. 수출 추진 사업자 대책사업 및 수출확대추진위탁사업

- 수출 추진 사업자 대책사업은 Japan Band 확립 대책, 수출진흥체제 구축 도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엔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수출확대추진위탁사업은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정비, 국별 마케팅 조사 등으로 예산은 9,700만 엔임.

### 2.2.4.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인프라 정비사업

- 주요한 사업으로는 글로벌 전개저해요인 해결지원사업(1억 6,500만 엔), 글로벌 전개를 위한 인재확보사업(2,200만 엔), 업종 연휴에 의한 푸드시스템 구축사업(1,200만 엔)이 있으며, 전체 예산은 1억 9,800만 엔임.

## 3. 중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 3.1.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정책<sup>74</sup>

- 중국의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기업 대상의 주요 지원정책은 크게 무역촉진과 무역정보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역촉진 정책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금융 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법률 서비스, 시장 서비스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sup>74</sup> 중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는 전형진(2012a)의 자료를 기초로 재정리하였음.

부표 2-5.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지원정책 개요

		지원 내용
무역 촉진	정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자금지원</li> <li>-중소기업국제시장개척자금: 2001년부터 시작, 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활동 지원, 2010년까지 10여만 개 중소기업에 500여억 위안 지원</li> <li>-농(農)·경(經)·방(紡) 산품 무역촉진자금: 2006년부터 시작, 주로 농식품 수출기업이나 업종조직(협회 등)의 제품인증이나 체체인증 및 유기인증 획득 지원, 품질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수출농식품의 표시 및 원산지표기 등록 비용 지원 등</li> <li>-농산물영쇄촉쇄(營鎖促鎖) 전용자금: 2002년부터 시작, 주로 농식품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전국규모의 직거래활동 지원, 농식품 전자상거래 지원 등</li> <li>▪ 지방정부 자금지원</li> <li>-농식품 수출을 선도하는 우수 수출기업에 재정지원: 흑룡강성, 하남성, 호북성, 광서자치구 등</li> <li>-자금용자 환경 개선: 사천성, 질강성, 강서서 등</li> <li>-농식품 수출에 대외무역발전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 광서자치구 등</li> <li>-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전용경비 편성: 광서자치구, 안휘성, 복건성, 청도시 등</li> </ul>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용대출</li> <li>-중국수출입은행이 2006년부터 농산물 수출기업에 신용대출 실시</li> <li>▪ 수출신용보험</li> <li>-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서 2001년부터 신용보험과 관련 서비스 제공</li> <li>-2009년 7월부터 상무부·재정부가 서부지역에서 농산물단기수출신용보험 가입 시 신용보험료 50%까지 지원(운남성은 2010년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li> </ul>
	교육훈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li> <li>-국내외에서 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실시</li> <li>▪ 농업부 향진기업국</li> <li>-2008년부터 농업부 향진기업국이 CCPIT 농업분회와 농업과학원 연구생원(대학원)과 공동으로 농산물 무역경리 및 관리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li> </ul>
	법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정부, CCPIT</li> <li>-농산물 수출기업에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li> </ul>
	시장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무역촉진중심</li> <li>-농업분 전문 예산항목의 지원 하에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이 해외박람회 참가 조직 및 지원, 농산물 수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li> <li>-농산물 수출업체 조직화(품목별 협회 등) 및 활동 지원</li> </ul>
무역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부, 상무부, 국가식량국, 해관총서, 국가통계국 등</li> <li>-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정보화 표준체계·DB 구축 등</li> <li>▪ 상무부 및 농업부</li> <li>-국제농산물시장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정보 분산</li> <li>▪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li> <li>-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실태 파악 및 정보 제공</li> </ul>	

자료: 전형진 편저,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2012.

### 3.2. 수출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

- 수출입 농산물의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은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국외인종검역심비관리방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등이 있음.
- 검사·검역 업무는 국무원 직속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이 총괄하며, 각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지역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 행정체계를 지니고 있음.
  - 이외에도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등이 수출입 검사·검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sup>75</sup>
- 수출입 농식품의 검사·검역은 신청 및 접수 → 샘플링 또는 표본 추출 → 검사·검역 → 위생 위해처리 → 증서 발급 및 통관 허가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수입 동물은 검사신청 → 현장 검역 → 격리검역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수입 육류 및 육류제품은 검사신청 → 현장 검역(박스 검사, 외부포장 검사, 화물 검사, 소독처리, 입국통관서 발급) → 샘플링 → 실험실 검사·검역 → 증명 발급과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됨.

### 3.3.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sup>76</sup>

- 중국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는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체계를 기초로

<sup>75</sup>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수출입 식의약품 관련 인증·인가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 표준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전형진, 2012a, p.61).

<sup>76</sup> 중국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는 전형진(2012b)의 자료를 기초로 재정리하였음.

하며,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최고 상위법인 「식품안전법」에서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 제63조에서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에 대해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부에 수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77</sup>
  - 동법 제64조는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위생부, 농업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식품안전법」 제66조에서는 수입포장식품의 경우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벨 및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함.
  -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및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함.
- 「식품안전법」 제67조는 수입상의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할 내용으로는 식품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 방식, 납품일자 등임.
  -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임.

<sup>77</sup> 위생부는 식품안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하도록 함.

### 「식품안전법」 제6장 식품수출입

- 제62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 후 세관이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 제6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제품의 신제품에 대해 수입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안전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제64조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와 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각 부문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5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또는 대상은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하여야 하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등록한 수출상, 대리상과 국외 식품생산 기업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66조 수입포장식품은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및 설명서는 본 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및 설명서가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67조 수입상은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일자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8조 수출식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과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장은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9조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 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총괄하고 제때에 관련 부문·기구와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 수출입 식품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신용기록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 불량기록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강화하여야 한다.



## 부록 3

---

### 중국의 가공식품 시장 동향과 전망<sup>78</sup>

#### 1. 최근 가공식품 시장의 특징과 전망

##### 1.1. 해외브랜드와 자국브랜드 간 치열한 경쟁

- 가공식품 시장에서의 해외 브랜드와 중국 현지 브랜드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외 브랜드에 더 많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 중국 현지 브랜드들은 식품 안전성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해외브랜드들의 상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음.
  - 중국 현지 브랜드들은 소비자에게 그들 제품의 안전성(food safety)을 강조하는데 몰두하고 있음

---

<sup>78</sup> 중국의 가공식품 시장 동향과 전망은 Euromonitor International사를 통해 입수한 보고서를 기초로 요약 정리하였음.

## 1.2. 슈퍼마켓·하이퍼마켓 중심의 유통망 지속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독립적인 소규모 상점들이 가공식품 유통채널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쇼핑의 편리성과 편안함 때문에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제도와 특별 프로모션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에 추가적인 냉동저장고가 필요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음.

부표 3-1. 중국의 유통업체별 가공식품 판매 비중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점포상	식품 유통업체	98.6	98.4	98.3	98.1	98.0	97.8
	슈퍼마켓	37.1	38.1	38.9	39.3	39.6	40.0
	하이퍼마켓	14.1	15.2	16.0	16.7	17.4	17.9
	할인점	0.1	0.2	0.2	0.2	0.2	0.2
	소규모 식료점	27.3	26.3	24.9	24.1	23.5	23.3
	편의점	2.5	2.6	2.6	2.6	2.7	2.8
	독립 소규모 상점	24.8	23.6	22.2	21.4	20.6	20.4
	주유소 내 상점	0.1	0.1	0.1	0.1	0.1	0.1
	기타 식품유통업체	19.9	18.7	18.2	17.8	17.3	16.3
	비식품 유통업체	1.1	1.2	1.4	1.5	1.6	1.8
	건강·이미용 유통업체	0.2	0.3	0.3	0.3	0.3	0.3
	기타 비식품 유통업체	0.9	1.0	1.2	1.2	1.3	1.4
	계	99.7	99.7	99.7	99.6	99.6	99.5
무점포상	무점포상	0.3	0.3	0.3	0.4	0.4	0.5
	자판기	0.2	0.2	0.2	0.2	0.2	0.2
	홈쇼핑	0.0	0.0	0.0	0.0	0.0	0.0
	인터넷	0.0	0.0	0.0	0.1	0.2	0.2
	직접구매	0.0	0.1	0.1	0.1	0.1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1.3. 식품 안전성 문제 크게 대두

- 2011년 Henan Synear Food Holdings사와 Zhengzhou Sanquan Food사 만두 제품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 등 가공식품의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내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보건당국은 냉동식품의 안전 기준치 설정 등 새로운 식품안전기준을 발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더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실정임.
- 이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선도적인 식품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첨단 생산기계 개발과 함께 콜드체인 방식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북경시는 2015년까지 콜드체인 비중을 과일 20%, 채소 45%, 수산물과 육류 각 70% 수준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음.

### 1.4. 인수합병 및 통합

- 최근 중국내 가공식품 시장의 인수합병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네슬레는 2011년 Xiamen Yinlu Food사와 Dongguan Hsu-Fu-Chi Group사 지분의 60%를 소유하였으며, 2012년에도 Wyeth's유업을 인수함으로써 선도적인 유제품 브랜드 2개를 보유하게 되었음.
  - Bright Food그룹은 2012년 Lion Capital로부터 시리얼 제조업체인 Weetabix의 지분 60%를 취득하였으며<sup>79</sup>, 비스킷과 과일·유제품을 생산하는 Manassen Foods사 지분의 75%도 추가로 매입하였음.

- 이처럼 중국의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특정 제품군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음.
  - 특히, 이전의 인수합병과 비교해 볼 때 최근의 인수는 주로 자원의 보완성을 중심으로 서로 윈-윈이 가능한 대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임.
- 인수합병을 이룬 기업들은 해당 제품군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가공식품군에서도 인수합병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유식, 유제품, 제과 등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집중화가 덜 된 제품군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5. 가공식품의 프리미엄화

- 중국의 가공식품 업체들은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제품 출시하기 위한 포장과 맛의 혁신을 포함하는 R&D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음.
-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개선은 가공식품산업의 프리미엄화를 불러 일으켰음.
  - 최고급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분히 인식한 제조업체들은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선물용 시장에 프리미엄 제품라인 출시를 위한 R&D에 집중하고 있음.
  - 이금기社(Lee Kum Kee)는 2012년 프리미엄화된 XO소스 선물세트를 기

---

79 Weetabix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침식사 시리얼 제조업체이며, 전 세계 8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확하였으며, Zhejiang Wu Feng Frozen Food사는 두텁고 부드러운 맛과 함께 섬세한 포장디자인의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은바 있음.

- 제품의 프리미엄화는 중국 가공식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막대한 R&D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높은 비용 발생을 유발하여 가공식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소비자의 강한 구매력으로 인해 단가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1.6. 인터넷 거래 활성화

-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CNNIC)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인구는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0% 가량인 5억 3,8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때문에 인터넷 거래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2007~2012년간 인터넷 거래의 연평균 성장률은 1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소매데이터).
- 광대역 범위의 네트워크망 구축 확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 등과 함께 저렴한 제품 가격, 쇼핑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가공식품 구매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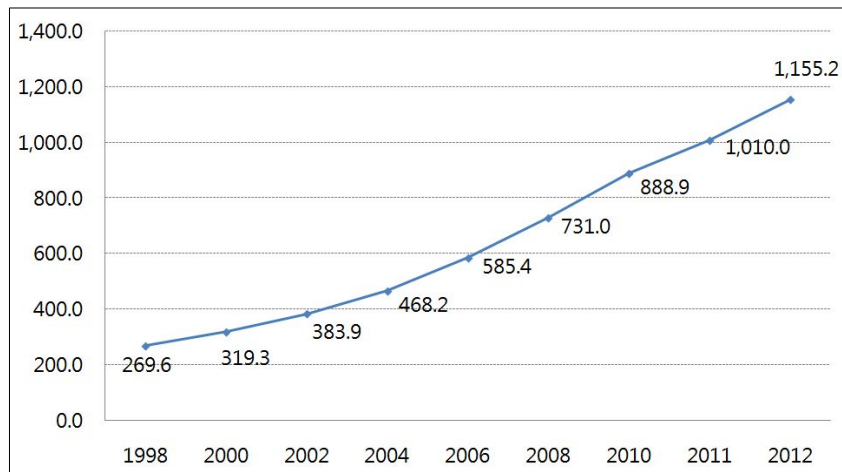
## 2. 가공식품의 부류별 동향과 전망

### 2.1. 가공식품 전체

- 중국의 가공식품 시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매년 제품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임.
  - 중국의 가공식품 판매액은 1998년 2,700억 위안에서 2012년 1조 1,550억 위안으로 4.3배나 성장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소매가격 인상, 프로모션 활동 감축, 인건비와 수송비 및 원재료비 절감 등으로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부그림 3-1. 중국의 가공식품 판매액 추이

단위: 10억 위안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중국내 주요 도시들의 가공식품 수요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로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가공



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농촌지역 등 타 도시에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할 것이며,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부표 3-2. 중국의 가공식품 판매액 전망

단위: 10억 위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아용 식품	85.2	99.1	114.4	131.3	149.9	170.4
베이커리	155.2	169.5	183.1	196.1	208.1	218.8
통조림	41.1	43.8	46.6	49.6	52.6	55.9
냉장식품	89.1	97.4	107.1	118.5	133.6	151.9
과자류	79.6	83.1	86.2	88.9	91.3	93.7
유제품	237.7	263.0	289.3	315.4	341.9	368.4
건조식품	148.5	163.3	178.3	193.7	209.0	224.7
냉동식품	46.1	50.0	54.6	59.7	65.6	72.2
아이스크림	34.4	36.5	38.7	40.8	42.9	44.8
다이어트·영양식음료	1.1	1.2	1.3	1.4	1.5	1.6
면류	96.4	103.3	109.6	115.4	120.1	124.1
유지류	84.7	91.0	97.3	103.8	110.5	117.1
파스타	0.0	0.0	0.1	0.1	0.1	0.1
간편조리식	6.6	7.0	7.4	7.8	8.2	8.6
소스, 드레싱, 조미료	64.0	68.6	73.2	77.8	82.5	87.2
스넥바	0.3	0.5	0.6	0.8	1.0	1.1
수프	0.6	0.6	0.7	0.8	0.9	0.9
버터, 잼류	5.6	5.9	6.2	6.4	6.6	6.8
스넥류	81.4	90.0	99.2	108.9	119.2	130.1
간식류/충동구매 제품군	330.3	357.1	383.5	409.4	434.9	459.4
영양/주식류 제품군	582.2	644.7	709.8	776.7	845.6	916.5
식사대용 제품군	249.4	269.4	291.4	316.1	345.4	378.9
계	1,155.2	1,264.2	1,377.3	1,494.5	1,617.7	1,746.2

주: 중복 집계(예컨대 통조림 수프는 수프와 통조림 양쪽에서 집계)으로 인해 부문별 합계와 전체 집계가 다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2.2. 영양/주식류 제품군(Nutrition/Staples)

-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브랜드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쌀과 유제품, 빵 등의 필수제품 구매 시 더욱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어 영양/주식류 제품군은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유아용 식품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판매 강세 영향으로 영양/주식류 제품군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기존 내수 이유식에서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동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영양/주식류 제품군의 유통은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선도하였으나, 최근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 또한, 영양/주식류 제품군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소포장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는데, Dewei Organic Long Grain Rice사는 500g 용량의 제품을 13.7위안에 판매하여 외식을 주로하고 가정 내 직접조리 비중이 적은 직장인을 겨냥하고 있음.

부표 3-3. 중국의 영양/주식류 제품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빵	11.0	12.2	13.1	14.8	16.9	19.2	20.9	22.7	24.3	25.8	27.1
아침식사 씨리얼	0.7	0.9	0.9	1.1	1.2	1.4	1.5	1.7	1.8	1.8	1.9
유제품	137.7	143.8	157.9	175.2	203.9	237.7	263.0	289.3	315.4	341.9	368.4
다이어트·영양식음료	0.3	0.5	0.6	0.7	0.9	1.1	1.2	1.3	1.4	1.5	1.6
유제품	43.8	51.5	57.4	64.8	73.8	84.7	91.0	97.3	103.8	110.5	117.1
유아용 식품	28.6	36.2	45.7	56.1	68.0	85.2	99.1	114.4	131.3	149.9	170.4
버터, 잼류	3.7	4.0	4.2	4.6	5.1	5.6	5.9	6.2	6.4	6.6	6.8
파스타	0.0	0.0	0.0	0.0	0.0	0.0	0.0	0.1	0.1	0.1	0.1
면류	57.2	63.1	65.8	75.5	85.8	96.4	103.3	109.6	115.4	120.1	124.1
밥류	19.8	23.7	29.7	36.8	43.5	50.8	58.7	67.4	76.9	87.4	99.0
계	302.8	335.9	375.5	429.7	499.2	582.2	644.7	709.8	776.7	845.6	916.5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영양/주식류 제품군은 면류와 유지류, 밥류 등 기초 필수품에 기초하여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소비자들의 외식 증가로 인해 가정 내 직접조리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주요한 영양/주식류 제품군의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 때문에 관련 제조업체들은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해 친건강 재료 등 기능성과 프리미엄을 갖춘 새로운 제품 개발과 판매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2.2. 간식류/충동구매 제품군(Impulse & Indulgence Products)

- 간식류/충동구매 제품군의 판매액은 3,30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과자류와 아이스크림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당분이 다량 함유되고 열량이 높은 이들 제품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임.
  - 저설탕이나 저지방 제품들이 출시되고는 있으나, 일반제품에 비해 맛이 떨어져 판매가 잘되지 않는 않으며, 자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 간식류/충동구매 제품은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소규모 식료점과 편의점의 성장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어 제조업체들은 소규모상점에서의 판매에 적합한 소규모 단위로 포장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간식류/충동구매 제품군은 연평균 성장률 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낵바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에너지·영양바가 일반 과자류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큰 성장세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부표 3-4. 중국의 간식류/총동구매 제품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 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과자류	54,381	57,818	60,826	66,165	72,387	79,624	83,104	86,210	88,891	91,350	93,660
패스트리	25,085	27,230	28,782	32,709	37,864	43,548	47,555	51,594	55,557	59,225	62,511
케익	28,287	30,377	31,809	35,335	40,768	47,229	52,373	56,955	61,262	65,483	69,103
비스킷	24,943	28,226	30,643	34,071	38,695	43,742	47,127	50,271	53,174	55,790	58,130
아이스크림	24,858	27,039	26,626	28,401	31,208	34,421	36,520	38,668	40,808	42,873	44,773
스낵류	50,403	54,211	56,024	62,695	70,291	81,376	89,988	99,164	108,925	119,242	130,097
스낵바	15	38	59	120	203	323	474	645	809	967	1,109
계	207,973	224,939	234,768	259,496	291,416	330,263	357,141	383,507	409,426	434,929	459,381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2.3. 식사대용 제품군(Meal Solutions)

- 식품안전 문제가 식사대용제품의 성장을 저해하였으나, 제조업체들의 노력으로 2012년 판매액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2,494억 위안을 달성함.
  - 수프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Shineway그룹의 시장점유율이 11%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건강과 웰빙 트렌드의 소비자 수요에 맞추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신상품 출시 노력이 수프의 성장세를 유지한 주요 요인이며, R&D를 통한 저염도 수프도 출시되고 있음.
- 통조림 제품은 제조업체들이 신선식품과의 경쟁에서 혁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디저트믹스 역시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 상황에서 신상품도 출시되지 않아 성장세가 높지 않음.

- 편리성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의 소용량 포장화가 식사대용제품의 주요한 트렌드이며, 소스와 드레싱, 조미료 등에서 소용량 포장화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
-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 진전으로 인해 식사대용제품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식사대용 제품군 중 냉장식품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7년 판매액은 1,519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외식서비스 채널이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식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식사대용제품 판매에 위협 요소로 작용함.
  - 그러나 레스토랑 음식의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고, 식사대용제품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맛을 고려했을 때, 냉장 간편조리식과 같은 식사대용 제품들은 여전히 강한 성장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부표 3-5. 중국의 식사대용 제품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간편조리식	4,054	4,572	4,925	5,407	6,034	6,629	6,998	7,377	7,768	8,166	8,580
통조림	25,449	28,842	30,169	34,340	37,579	41,101	43,803	46,624	49,569	52,644	55,859
냉동식품	28,904	32,569	34,130	37,020	41,609	46,145	50,046	54,558	59,692	63,570	72,241
디저트믹스	1,255	1,359	1,385	1,475	1,617	1,768	1,857	1,941	2,024	2,107	2,188
냉장식품	52,169	61,562	67,494	74,240	80,840	89,130	97,437	107,051	118,455	133,601	151,903
소스, 드레싱 조미료	41,774	45,502	47,683	52,221	57,250	64,040	68,584	73,174	77,815	82,450	87,215
수프	307	343	371	422	478	565	638	710	783	858	933
계	153,912	174,750	186,156	205,124	225,405	249,377	269,361	291,436	316,105	345,396	378,918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3.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별 동향과 전망

#### 3.1. 유아용 식품

- 유아용 식품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유가 전체 유아용 식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특별분유(Special Baby milk formula)는 유제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들을 위한 제품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네슬레 등 해외브랜드의 판매가 두드러지고, 특히 두유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분유의 경우 서양 국가들은 액상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과 달리 중국은 액상 제품에 대한 생산과 보존기술이 미흡하여 파우더 형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유기농 유아식품은 틈새시장으로 주목 받았으나, 일반제품을 대체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의 유아용 식품은 도시화 진전과 두 자리 수 출산율로 인해 성장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정부의 모유수유 권장 정책으로 조제분유의 연평균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0~6개월령 조제분유(Standard milk formula) 및 7~12개월령 조제분유(follow on milk formula)와 비교하여 13개월령 이상의 조제분유(Toddler milk formula)는 상대적으로 모유수유 권장 정책에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므로 제조업체들은 13개월령 이상의 제품군으로 제품 범위를 확대·세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부표 3-6. 중국의 유아용 식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조 유아식	2,629	3,261	3,919	4,562	5,367	6,423	7,289	8,201	9,147	10,113	11,082
분유	25,675	32,516	41,352	50,943	61,952	77,864	90,774	104,920	120,770	138,208	157,529
조제분유 (0~6개월령)	7,722	9,227	11,459	14,413	17,511	22,242	25,470	29,043	32,977	37,283	41,970
조제분유 (7~12개월령)	8,073	10,116	12,858	15,067	17,783	21,970	25,118	28,593	32,409	36,575	41,096
조제분유 (13개월 이상)	9,881	13,076	16,911	21,303	26,443	33,357	39,801	46,778	54,720	63,489	73,363
특별분유	-	97	124	160	216	295	386	505	665	862	1,100
즉석 유아식	295	379	467	579	713	912	1,070	1,241	1,419	1,603	1,787
계	28,599	36,155	45,738	56,084	68,032	85,199	99,134	114,362	131,337	149,924	170,398

주 1) 건조유아식: 섭취 전 반드시 물이 첨가되어야 하는 형태의 유아식으로 씨리얼 제품과 건조 수프 등이 포함됨.

2) 특별분유: 일반적인 조제분유에서 알레르기 예방, 젖당 과민반응 등의 기능성을 함유한 제품으로 두유를 원료로 한 분유를 포함함.

3) 즉석유아식: 병이나 캔, 파우치 등으로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는 형태의 유아식으로 요거트, 냉장디저트, 수프, 유아용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됨.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3.2. 우유제품

- 중국의 우유제품의 판매액은 과거에 유례없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중국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유통기간이 긴 완전살균우유(UHT) 우유를 지인이나 친지 방문 시 선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있어 우유제품 가운데 완전살균우유(UHT)는 매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에서 맛우유는 아침식사의 일부가 되었으며, 주로 젊은 층의 소비자들, 특히 학생과 어린이들이 맛우유를 선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맛우유는 주로 페트병과 테트라팩 포장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맛우유

제품의 생산비와 수송비는 일반 냉장음료보다 낮은 편임.

- 그동안 중국의 우유제품들은 성인과 유아를 세분화하지 않고 온 가족용 브랜드를 포지셔닝 해왔으나, 선도기업들은 타겟 소비자를 설정하여 기능성과 세분화된 우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음.
- 대두 음료제품은 우유(cow's milk)와 비교하여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으로 자연친화적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

부표 3-7. 중국의 우유제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맛우유	32,171	36,804	46,061	53,746	65,801	79,714	89,781	99,968	109,977	120,296	130,829
맛칩가우유	25,880	28,479	33,055	37,875	45,915	55,987	63,127	70,554	77,807	85,427	93,378
과일쥬스우유	6,291	8,325	13,006	15,870	19,886	23,728	26,654	29,414	32,170	34,869	37,452
맛우유가루	946	988	1,027	979	1,044	1,108	1,129	1,145	1,158	1,169	1,180
초코맛가루	228	240	251	178	191	203	207	211	215	217	220
몰트밀크	581	604	624	642	680	719	729	737	742	746	750
비초코맛가루	137	145	153	160	174	187	192	197	202	206	209
우유	58,999	59,956	62,451	67,010	76,077	86,817	94,064	101,829	109,567	117,610	125,744
우유가루	16,826	14,297	11,721	11,909	12,741	13,888	14,794	15,834	16,793	17,747	18,669
대두음료	4,004	4,594	5,362	5,916	6,642	7,381	7,914	8,414	8,871	9,266	9,634
콩드링크	3,429	3,979	4,697	5,217	5,884	6,560	7,060	7,529	7,955	8,326	8,675
두유	575	61	665	700	758	821	854	886	917	939	960
계	112,946	116,640	126,622	139,560	162,306	188,909	207,682	227,191	246,366	266,087	286,057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향후 우유제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상승세는 둔화되어 잠재 성장성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맛첨가 우유가 가장 빠른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선도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임.
- 유통패턴은 기존 슈퍼마켓과 독립적인 소규모 식료품 채널 점유율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하이퍼마켓과 편의점의 점유율 변동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하이퍼마켓은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인 반면, 편의점은 쉽고 빠른 구매로 인기를 끌 것임.

### 3.3. 요구르트

-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요구르트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마시는 요구르트의 경우 제조업체들이 소화촉진을 위한 다양한 성분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내몽고 지역의 전통적인 재래식 요구르트가 선도업체를 통해 프로모션 되어 중국 내에서 단시간에 많은 소비를 창출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폐신발로 만든 산업용 젤라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급격한 판매 감소가 발생하였음.
  - 재래식 요구르트의 폐신발 성분검출 사건은 전체 요구르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켜 판매를 급격히 감소시켰으나, 연평균 성장률 이상의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추세임.
- 플레인 떠먹는 요구르트 제품의 판매액은 2012년 7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플레인맛 제품이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맛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Trade Sources에 의하면, 플레인 떠먹는 요구르트의 비중은 전체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의 51%에 달하며, 향첨가나 과일첨가 제품보다 안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음.

- 맛/향이 첨가된 떠먹는 요구르트제품의 선호도는 딸기맛이 계속 1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알로에베라맛은 2007년 3순위에서 현재 2순위로 부상하였음.

부표 3-8. 중국의 맛/향 첨가 떠먹는 요구르트제품 선호도 변화

단위: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딸기맛	1	1	1	1	1	1
알로에베라맛	3	2	2	2	2	2
복숭아맛	2	3	4	4	3	3
블루베리맛	4	4	3	3	4	4
파인애플맛	6	5	5	5	5	5
포도맛	5	6	6	6	6	6
키위맛	7	7	7	7	7	7
오렌지맛	7	7	8	8	8	8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과일이 첨가된 떠먹는 요구르트제품의 경우 딸기 및 복숭아를 첨가한 요구르트의 선호도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음.

부표 3-9. 중국의 과일 첨가 떠먹는 요구르트제품 선호도 변화

단위: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딸기	2	1	1	1	1	1
복숭아	1	2	2	2	2	2
블루베리	3	3	3	3	3	3
알로에베라	4	4	4	4	4	4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요구르트 판매액은 향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저칼로리와 저지방 요구르트 제품뿐만 아니라 DHA 함유 등 기능성 요구르트 제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르트 시장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하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플레인 떠먹는 요구르트 제품은 연평균 성장률 15%의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체들은 플레인 제품에 많은 R&D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이 주를 이룰 것이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기적인 할인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부표 3-10. 중국의 요구르트제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마시는 요구르트	16,004	17,587	19,610	22,125	25,623	29,981	34,059	38,228	42,332	46,186	49,597
떠먹는 요구르트	6,959	7,608	9,534	11,155	13,253	15,677	17,823	20,102	22,476	24,968	27,555
맛/향첨가	2,210	2,380	2,787	3,113	3,549	4,036	4,403	4,767	5,117	5,459	5,768
과일첨가	1,722	1,940	2,417	2,818	3,397	3,994	4,538	5,106	5,681	6,231	6,754
플레인	3,027	3,288	4,331	5,224	6,307	7,647	8,882	10,229	11,679	13,279	15,034
계	22,963	25,196	29,143	33,280	38,876	45,658	51,882	58,329	64,808	71,154	77,152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3.4. 냉장식품

- 냉장가공육과 냉장 즉석조리식품을 제외한 타 냉장식품(냉장 생선·해물제품과 슬라이스 과일제품)의 판매는 미미한 수준임.
  - 이는 여전히 낙후된 중국의 저장·유통시스템이 주요 원인이며, 유기농

냉장식품이나 저지방 냉장식품도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아직까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냉장가공육 제품의 경우 통조림에 비해 유통기한은 짧지만 개선된 영양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냉장가공육제품 중 중국식 구운 소시지와 햄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냉장 즉석조리식품은 일반 외식서비스 업체와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적합하며, 특히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인기가 높음.

부표 3-11. 중국의 냉장식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냉장 가공육	51,466	60,746	66,600	73,252	79,719	87,870	96,071	105,566	116,836	131,832	149,964
냉장 즉석조리	704	817	894	988	1,121	1,260	1,367	1,485	1,619	1,769	1,939
계	52,169	61,562	67,494	74,240	80,840	89,130	97,437	107,051	118,455	133,601	151,903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보관이 쉽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냉장식품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샌드위치와 같은 제품들이 새롭게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냉장 가공육 제품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외식 서비스 채널을 통한 유통은 연평균 1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냉장 즉석조리식품은 9%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이퍼마켓·슈퍼마켓·편의점을 통한 직장인 층의 구매가 성장세

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며, 이들 업체의 PB(Private Label)제품의 잠재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 3.5. 냉동식품

-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일련의 만두제품 안전사고로 인해 냉동식품의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2012년 냉동식품 판매액은 2011년보다 10.9% 증가하였음.
- 냉동 디저트 제품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전통식품인 라이스볼은 축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식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냉동 어류/시푸드 제품의 경우 새우볼과 피쉬볼의 판매 비중이 높아 이들 제품이 전체의 45%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표 3-12. 중국의 냉동 어류/시푸드 품목별 판매 비중 변화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게맛살	13.0	12.5	12.5	12.0	12.0	11.9
오징어볼	10.0	10.5	10.5	11.0	11.2	12.3
피쉬볼	21.0	21.5	21.5	22.0	22.0	22.0
새우볼	21.0	21.5	21.5	22.0	22.3	22.4
기타	35.0	34.0	34.0	33.0	32.5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판매액 기준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양념 닭날개 제품은 냉동 닭/오리/가금류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점유율이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다음으로 너겟 제품(22.3%), 매운 닭다리 제품(16.1%), 치킨버거(13.3%), 양념 닭가슴살(12.5%) 등의 순임.

부표 3-13. 중국의 냉동 닭/오리/가금류 품목별 판매 비중 변화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치킨버거	14.0	14.0	14.0	13.5	13.5	13.3
너겟	24.0	23.0	23.0	22.5	22.5	22.3
양념 닭가슴살	14.0	14.0	13.0	12.5	12.5	12.5
양념 닭날개	26.0	27.0	28.0	30.0	31.0	31.5
매운 닭다리	16.0	16.0	16.0	16.0	16.0	16.1
기타	6.0	6.0	6.0	5.5	4.5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판매액 기준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냉동 육류제품은 양념 양고기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아 40%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이 양념 쇠고기(25.5%), 미트볼(24.0%) 등의 순임.
  - 냉동 소시지의 경우 냉장 소시지와 통조림 소시지의 인기로 인해 점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3-14. 중국의 냉동 육류 품목별 판매 비중 변화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트볼	21.0	21.0	22.0	23.0	23.0	24.0
소시지	8.0	8.0	7.0	7.0	7.0	7.0
양념 쇠고기	24.0	24.0	25.0	25.0	25.0	25.5
양념 양고기	42.0	42.0	41.0	40.0	40.0	40.0
기타	5.0	5.0	5.0	5.0	5.0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판매액 기준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소비자들의 냉동식품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식품안전성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냉동식품 판매액은 향후 연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소비자들의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에 냉동 베이커리, 냉동 피자, 냉동 감자 등의 제품은 계속해서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보이나, 외식 서비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어질 여지는 충분함.
  - 세계적인 냉동피자 브랜드인 Dr.Oetker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상해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였음.
- 중국은 신선채소의 안정적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동 야채의 경우 계속해서 미미한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부표 3-15. 중국의 냉동식품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냉동 디저트	5,125	5,786	5,973	6,523	7,403	8,429	9,269	10,224	11,336	12,605	14,050
냉동 어류/시푸드	4,967	5,499	5,810	6,269	6,958	7,689	8,320	9,043	9,876	10,823	11,884
냉동 닭/오리/가금	8,018	8,607	8,871	9,451	10,437	11,426	12,204	13,136	14,171	15,321	16,595
냉동 육류	2,407	2,946	3,101	3,376	3,817	4,239	4,603	5,026	5,509	6,071	6,713
기타	8,386	9,731	10,375	11,402	12,994	14,363	15,650	17,129	18,801	20,750	23,000
계	28,904	32,569	34,130	37,020	41,609	46,145	50,046	54,558	59,692	65,570	72,241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3.6. 면류

- 중국 소비자들은 건강과 웰빙의 문화로 즉석면류(인스턴트)보다는 국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국수 제품군 판매가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2011년 대만에서 발생한 가소제(塑化劑/Plasticiser) 파동의 여파는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즉석면류(인스턴트)에서 국수제품으로 선호의 변화를 가속화시켰음.
- 즉석면류(인스턴트) 제품의 혁신은 제조업체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는데, 국수 제품에 비해 건강과 웰빙 트렌드의 장점은 살릴 수 없었지만, 맛과 편리성으로 내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은 여전히 굳건한 수준임.
-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 즉석면류(인스턴트) 제조업체들은 생산비를 줄이고 마진을 늘리기 위해 컵·사발면 제품보다 봉지제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소포장 트렌드에 맞춰 ‘미니팩(Mini-pack)’ 컵·사발면이 출시되었으며, 10대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즉석면류의 선호도는 쇠고기맛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매운맛, 해물맛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부표 3-16. 중국의 즉석면류 선호도 변화

단위: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쇠고기맛	1	1	1	1	1	1
매운맛	3	2	2	2	2	2
해물맛	4	3	4	3	3	3
치킨&버섯맛	5	5	5	5	4	4
돼지고기맛	2	4	3	4	5	5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건강과 웰빙 컨셉은 면 제품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건강 중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한 신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 쌀로 반죽한 면, 영양소가 첨가된 제품, 계란과 야채가 첨가된 제품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건강과 웰빙 컨셉 외에 제품 맛의 혁신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상이한 식습관과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차별화된 맛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됨.
- 면류 가운데 국수 제품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건강기반 식습관과 식품안전성의 관심 증대로 즉석면류 제품에 비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됨.

부표 3-17. 중국의 면류 판매액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위안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즉석 면류	53,155	58,596	60,996	70,230	79,825	89,470	95,618	101,174	106,331	110,506	114,040
컵·사발면	16,845	18,854	19,980	23,372	26,993	30,854	33,573	35,999	38,243	40,249	41,921
붕지면	36,310	39,742	41,016	46,858	52,832	58,617	62,044	65,176	68,088	70,258	72,119
국수류	3,352	3,744	3,979	4,400	4,981	5,783	6,425	7,062	7,635	8,132	8,549
스낵면류	669	748	781	906	1,034	1,159	1,242	1,319	1,388	1,445	1,490
계	57,176	63,088	65,755	75,537	85,840	96,413	103,285	109,556	115,354	120,084	124,078

주: 스낵면류는 별도의 조리과정이 필요 없이 과자처럼 먹는 스낵제품을 말함.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Packaged Food In China」, 2012.



## 참고 문헌

- 강민성, 조현승, 고대영, 김재진. 2011. 「한국의 수출경쟁 패러다임 연구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구분관. 2013.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부활의 신호탄인가?” 「SERI 경제포커스」 412호. 삼성경제연구소.
-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UNIT. 2009. 「중국 소비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수출전략」.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김경필, 김연중, 한혜성. 2008. 「농산물 수출유망시장 분석과 대응방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 문한필, 한정희. 2011.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 한호석. 2010. 「과실·특작류 수출시장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박성재. 2005.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훈. 2009.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김영식. 2010.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실증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곤. 2012. “일본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세계농업」 Vol.1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형. 2010. “수출지원제도와 수출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SSIST 경영학 PhD 논문총서 시리즈」. aSSIST(서울과학종합대학원).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주요국 농식품 수출지원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_\_\_\_\_. 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_\_\_\_\_. 2013. 「농식품 수출 중장기 기본계획」.
- \_\_\_\_\_. 각 연도. 「화훼재배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 \_\_\_\_\_. 2012.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 농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or.kr>).
- 농촌진흥청. 2012. 「한·중 FTA 대비 중국 소비자 농식품 시장 세분화」.
- \_\_\_\_\_. 2012. 「중국 소비자 소비행태 분석 결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2011.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KREI 농정포커스」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기환, 정은미, 권희민. 2010. 「채소 및 화훼류 수출시장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기환, 이계임, 김경필, 이동소, 허성윤. 2012.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기환, 허성윤, 이동소. 2013. 「소비안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화훼산업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순찬, 주무현, 김성훈. 2013.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3. 「무역장벽 보고서」.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http://www.garak.co.kr>).
- 어명근, 김경필, 전형진, 문한필, 이지용. 2011. 「신홍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석진, 김성훈. 201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엄정명. 2013.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SERI 경제 포커스」 제426호.
- 오현정. 2009. 「중소수출기업 수출발전단계별 수출지원제도의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외환은행(<http://www.keb.co.kr>).
- 이두순, 박현대, 박기환. 1997.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성, 권승구, 박정운. 2012. “선진국의 수출지원제도와 국내 농식품 해외수출 전략.”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식품유통학회.
- 이승신, 정성춘, 여지나. 2010.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중국, 일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이병훈, 문한필. 2013.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 및 확대 전략.”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편저. 2012.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12.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③.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원호. 2012.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KREI 농정포커스」 제3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재승. 2006.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윤희. 2013.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
- 최세균, 김태훈, 김경필, 김성훈, 김연중, 국승용, 권오복, 정대회. 2009. 「농식품 수출 증대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김병률, 김성우, 이동소, 김윤진, 차원규 외. 201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한국고용정보원. 2012.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농림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안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http://www.kati.net>).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http://yfmc.at.or.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업전망 201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개발원. 2012.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2012.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D.A. Dickey and W.A. Fuller. 1981. "Likelihood ratio statistic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Econometrica*, Vol.49, No.4 pp.1057-1072.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2. 「Packaged Food In China」.
-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 OECD. 2013. 「OECD Economic Outlook」.
- USDA FAS(<http://www.fas.usda.gov>).
- 日本 農林水産省. 2013. 「農林水産物・食品の國別・品目別輸出戦略」.
- 日本 農林水産省(<http://www.maff.go.jp>).
- 日本 農林水産省 食料産業局輸出促進グループ. 2012. 「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促進對策の概要」.
- 日本 農林水産省 植物防疫所(<http://www.maff.go.jp/pps>).
- 日本 財務省. 各 年度. 「貿易統計」.
- 日本 財務省 貿易統計(<http://www.customs.go.jp>).
- 日本 (株)野村證券. 2013. 「2013年度~2015年度の經濟見通し」.



---

C2013-49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방안 중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2.

발 행 2013.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